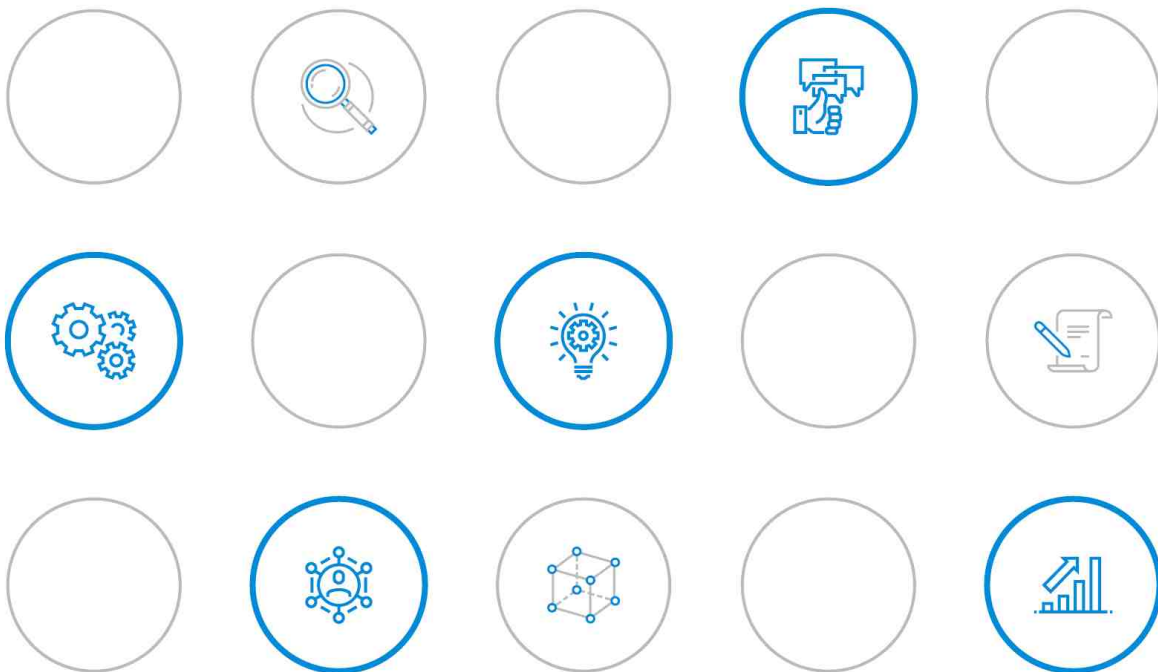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전략 : 벽제리묘지를 중심으로

Park-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funera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Byeokje-ri cemet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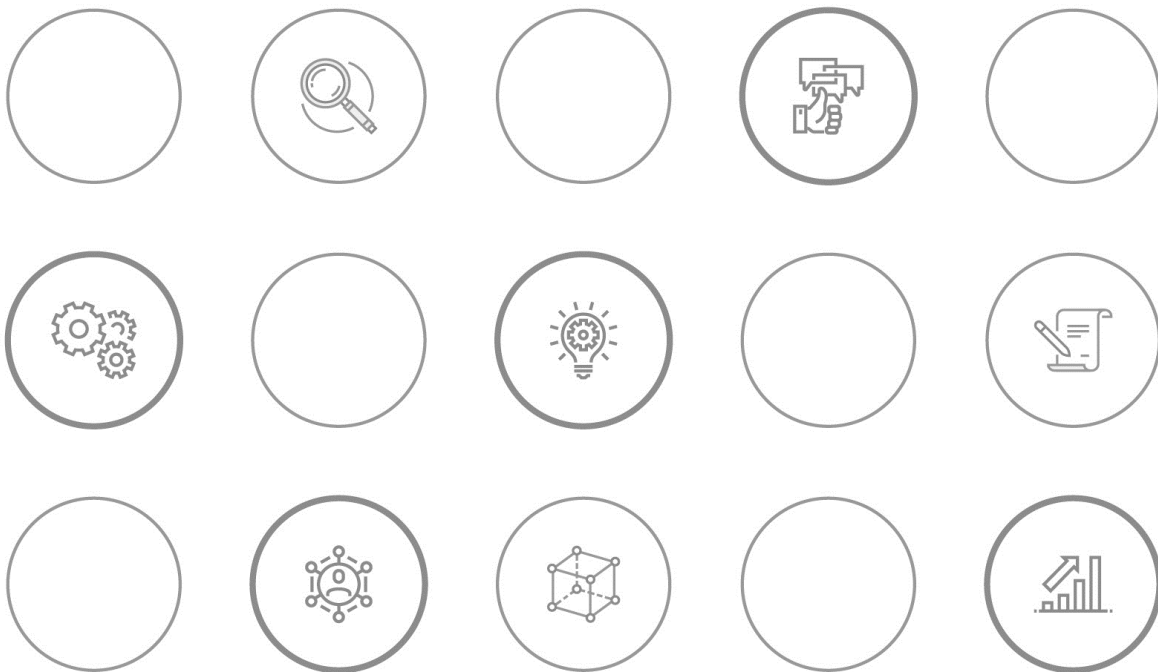
- 전영미, 음정인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전략 : 벽제리묘지를 중심으로

Park-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funera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Byeokje-ri cemetery

• 전영미, 음정인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전략 : 벽제리묘지를 중심으로

Park-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funera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Byeokje-ri cemetery

연구책임자

전영미 고양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진

음정인 고양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원

조사원

김경동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과 박사과정

박시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석사과정

박시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석사과정

자문위원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 책 제 안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적 추진

-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 (1단계) 공간 정비 및 기반 구축 → (2단계) 기능 구현 및 거점 조성 → (3단계) 공간 활성화 및 가치 극대화

○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의 공간적·기능적 전환

- 추모·치유 및 문화·여가 융합공간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간적 관점 : 기존 자연적 요소 보전·유지 + 수목원·정원 등 녹지공간 조성 및 친환경 장사시설 연계·설치 → 기피시설의 거점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도적 융합 모델
 - 기능적 관점 : 기존 장사시설 기능 유지 (장사방식 변화 수용) + 문화·여가·휴양 기능 도입 → 방문객 유인 및 지역경제 견인
- 주변지역 공간환경 개선 및 연결성 확장
 - 인근지역 공간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연결성 확장, 통합적 이미지 구축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기관 간 상생 협력 체계 정립
 - 상설 공동실무협의회 구성; 합리적 역할 분담 모델 확립; 운영·관리 체계 설정 등
-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참여 지원; 단계별 주민 설명회 정례화 등

○ 관련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

- 노후 장사시설의 복합화·공원화 지원 체계 마련
 - 「장사법」, 「국토계획법」, 「도시재생법」 내 관련 조항 신설 또는 관련 내용 추가를 검토함으로써, 노후 장사시설의 복합화·현대화·공원화를 계획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사시설에 대한 지속가능·미래지향적 모델 제시
 -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정비 시 소규모 장사시설의 복합 설치 방안 검토; 지자체 간 협력 및 장사시설의 공동 관리 등을 위한 조례 제정; 장사시설의 유형 구분 후 특성에 기반한 정비 방향성 설정 등

요 약

1.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 급속한 도시화 이후 장사시설(묘지, 화장장, 봉안당 등)이 도시조직 내로 편입됨에 따라, 환경·위생·건강 측면의 우려, 교통체증 및 소음증가에 대한 불만,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 공간적 불공정 인식, 정서적·심리적 거부감 등의 연유로 도시 부적격 시설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옴
- 그런데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방식 변화,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장사시설로의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장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 복지를 위한 도시 내 필수 기반시설 또는 공공공간으로 재해석됨
- 특히 장사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별로 기존 장사시설의 현대화·복합화·공원화를 통해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이용 가능한 녹지·여가 공간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표 1 | 시기별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	근대 (20세기 초·중반)	현대 (20세기 말~21세기 초)	미래
공간 구조	• 농경사회로 거주지와 장사시설의 분리 X	•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도시공간 팽창	• 도시의 광역화 및 건물·인구밀도의 증가	• 지속가능·친환경·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시설 입지	• 마을 인근 산자락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 (자연환경 및 풍수지리 사상)	• 도심 외곽으로 격리 (도시공간 활용의 효율성; 도시 위생·미관 관리)	• 도시조직 내로 편입 (주거밀집지역에서 이격된 개발제한구역 등)	• 도심 내 또는 근교
시설 형태	• 매장 / 단독 분묘	• 매장 / 공동묘지	• 화장 / 봉안당	• 화장 / 자연장지
기능·의미	• 조상 숭배의 공간	• 도시발전의 저해 요소	• 혐오·기피시설 (NIMBY)	• 추모·치유 및 녹지·여가·문화공간 (YIMBY)

〈자료〉 연구자 작성

○ 벽제리묘지 현대화·공원화의 필요성

- 벽제리묘지는 도시팽창 및 인구집중 등으로 서울 시내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서울시가 당시 외곽지역이었던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의 땅을 매입하여 조성한 서울시립 장사시설임
 - ※ 벽제리묘지는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산4-1 및 산4-4 일대)에 위치해있으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 소유 공유지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함
- 벽제리묘지는 1963년 개설 후 28여 년이 지난 1991년 5월 만장이 되었으며, 이후 일부 잔여 부지 이용을 거쳐 1998년 8월부터 신규 매장이 전면 중단됨
 - 1998년 8월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벽제리묘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묘지 일부 구역이 훼손 및 유실되었는데, 해당 사건이 신규 매장의 중단 결정과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방식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함
- 현재 벽제리묘지는 기존 분묘의 관리와 더불어 무연고 분묘 정리, 개장(파묘 후 화장) 및 이장 작업 위주로 운영됨
 - 벽제리묘지의 개설 시점인 1963년에는 관련법에 묘역의 구획 및 분묘의 형태·면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기에, 당시 벽제리묘지는 개별적·자연발생적으로 분묘가 형성되고 무기한 안장 방식으로 운영됨
- 벽제리묘지의 경우 전체 분묘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조성묘지로 만장 이후 상당수의 분묘가 적극적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사시설 공원화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됨

그림 1 | 벽제리묘지의 3D 위성지도



〈자료〉 ‘브이월드 (www.vworld.kr)’에서 3D지도 캡처 후 연구자 수정·보완

□ 연구 목적

○ 장사시설 공원화의 필요성 검토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정책 고찰 및 주요 쟁점 도출
-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 진단

○ 장사시설의 공원화 사례 분석

- 국·내외 공원화 조성 사례 조사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조사
-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조사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제시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공간 계획 제안

□ 연구 범위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고양시 행정구역 내 위치하는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공간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주요 쟁점, 그리고 대상지인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장사시설(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필요성을 탐색함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해 참고 가능한 국·내외 공원화 조성 사례를 분석하며, 추가적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와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함
 - 장사시설 공원화의 필요성 검토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및 공간 계획을 제시함
- ※ 벽제리묘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소유·운영하는 장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 관할구역 내에 입지함에 따라, 고양시 역시 향후 벽제리묘지의 현대화·공원화 추진 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이해당사자로서 역할 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산4-1 및 산4-4 일대)에 위치한 벽제리묘지에 초점을 맞춤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벽제리묘지의 개설(196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함

□ 연구 방법

○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정책, 선행연구, 언론보도 등 검토
- 장사시설 공원화 사례 조사

○ 현황 및 특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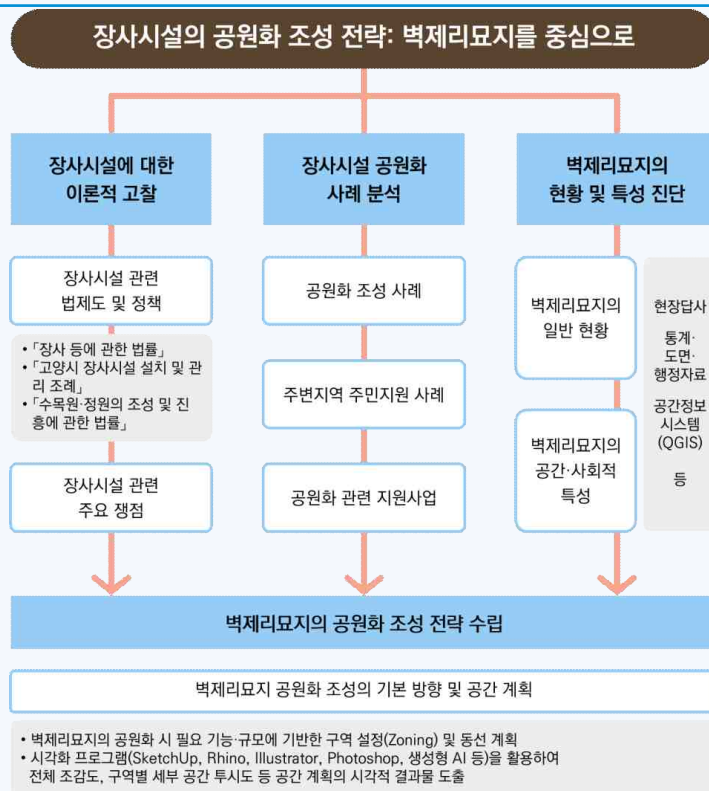
-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 분석
 - 현장 답사, 통계·도면·행정자료, 공간정보시스템(QGIS) 등 활용

○ 전략적 공간 계획 수립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및 공간 계획 제안
 - 시각화 프로그램(SketchUp, Rhino, Illustrator, Photoshop,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전체 조감도, 구역별 세부 공간 투시도 등 공간 계획의 시각적 결과물 도출

□ 연구 흐름

그림 2 | 본 연구의 흐름



〈자료〉 연구자 작성

2. 장사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역대 주요 개정 시기별 변경 사항

항목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1961.12.05 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973년 일부개정	2000년 전부개정	2007년 전부개정	2015년 일부개정	현재 (2026.06 기준)
장사 방식의 종류 및 정의	• 제2조 (정의) - 장사방식을 매장, 화장, 납골 3가지로 정의	• 제2조 (정의) - 장사방식을 매장, 화장, 납골 3가지로 정의	• 제2조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아래 묻는 ‘자연장’ 최초 규정	• 제2조 (정의) - 기존 매장·화장·봉안·자연장 체계 유지	• 제2조 (정의) - ‘자연장’에 해양 등 지정된 구역에 부리는 ‘산분장’의 내용 추가
국가·지자체의 책무	• 제7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 지자체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의 설치 의무 마련 - 공설납골당은 필요에 따라 설치	• 제5조 (묘지 등 수급계획) - 국가 및 지자체는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제5조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의무 - 지자체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화	• 제5조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의무 유지 - 지자체별 ‘지역 수급계획’ 수립 의무	• 제5조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의무 유지 - 지자체별 ‘지역 수급계획’ 수립 의무 유지
분묘 점유 면적	• 제4조 (매장 장소) - 분묘 1기당 20㎡(합장 25㎡) 이내로 면적 상한선 신설	• 제16조 (분묘 면적) - 공설 및 집단(가족·법인) 묘지 분묘 1기당 10㎡(합장 15㎡), 개인묘지 30㎡ 이내로 면적 기준 변경	• 제18조 (면적 제한) - 기존 분묘 면적 기준 유지 - 봉안묘는 높이 70cm, 면적 2㎡ 이내 • 제16조 (자연장)	• 제18조 (면적 제한) - 기존 분묘 및 봉안묘의 면적 제한 유지 • 제16조(자연장지 조성) - 자연장지 면적	• 제18조 (면적 제한) - 기존 분묘 및 봉안묘의 면적 제한 유지 • 제16조(자연장지 조성) - 자연장지 면적

			지 조성) - 개인·가족자연장 지 면적 기준 10 0㎡ 미만	기준 유지	기준 유지
분묘 설치 기간	-	• 제17조 (설치기 간) - 분묘 설치기간은 기본 15년 + 15 년씩 3회 연장 가능 (최대 60 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기간 5~15년으로 단 축 가능 • 제18조 (설치기 간 종료 분묘) - 기간 만료 후 1 년 내 철거, 화 장 또는 납골 의 무화	• 제19조 (설치기 간) - 설치기간 기준 체계 유지 - 합장 분묘 등의 경우 합장 날 기 준 계산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장기간 단축 유지 • 제20조 (설치기 간 종료 분묘) - 기간 만료 후 처 리 체계 유지	• 제19조 (설치기 간) - 분묘 설치기간은 기본 30년 + 추 가 최대 1회 30 년 연장 가능 (최대 60년 총 량은 동일)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기간 5~30년으로 단 축 가능	• 제19조 (설치기 간) - 설치기간 기준 체계 유지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장기간 단축 유지
무연 분묘 등 처리	• 제15조/제15조 의2 (무연분묘 정리) - 신고되지 않은 분묘 또는 무연 고 분묘는 시장 및 도지사에 의 해 공·사설납골 당에 집단 안치 가능 • 제16조 (개장명 령등) - 타인 토지나 승 낙 없는 묘지는 공고 후 개장 명 령 가능	• 제23조 (타인 토 지 분묘) - 무단 분묘는 지 자체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 통보 및 공고 후 개장 가능 - 무단 설치된 분 묘의 권리를 인 정하지 않음 • 제24조 (무연분 묘 처리) - 무연분묘는 지자 체장에 의해 공 고 후 화장하여 납골 가능	• 제27조 (타인 토 지 개장) - 무단 분묘의 처 리 유지 - 무단 분묘 및 무 단 자연장 분묘 의 권리를 인정 하지 않음 • 제28조 (무연분 묘 처리) - 무연분묘의 처리 유지	• 제27조 (타인 토 지 개장) - 무단 분묘의 처 리 유지 - 무단 분묘 개장 시 공고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장 한 후에 처리 • 제28조 (무연분 묘 처리) - 무연분묘의 처리 유지	• 제27조 (타인 토 지 개장) - 무단 분묘의 처 리 유지 • 제28조 (무연분 묘 처리) - 무연분묘의 처리 유지
지역 주민 갈등 조정	-	-	• 제5조 (수급계 획) - 지역간 갈등조정 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 제5조 (수급계 획) - 지역간 갈등조정 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 제5조 (수급계 획) - 지역간 갈등조정 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

			•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가능	•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유지	•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유지
--	--	--	---	---	---

〈자료〉 연구자 작성

○ 장사시설 관련 정책

- (국내 | 국가 차원) 한시적 매장제도

- 2000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을 기반으로, 2001년부터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추진함
-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30년까지 추가로 연장 가능함 (최장 이용기간 60년)
- ※ 지자체 조례나 묘지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 가능함
- 분묘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비석, 상석 등)을 철거하고 개장을 통해 매장된 유골을 땅속에서 꺼내어 화장 하거나 봉안하여야 함

- (국내 | 지자체 차원) 화장장려금 지원

- 장례 문화가 매장 중심에서 화장 및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존 매장묘의 개장 후 화장(개장유골 화장) 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방식 전환을 유도함
- 2026년 1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0%에 해당하는 91개의 시·군·구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음
- 고양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관내 공설·공동묘지의 개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장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
- ※ 고양시 관내 공설·공동묘지의 분묘를 타 장사시설로 이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 유족에게 1기당 40만원의 개장지원금을 지급함

- (국외 | 싱가포르) New Burial Policy

- 싱가포르는 제한된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화장 및 봉안 중심의 장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음
- ※ 현재 싱가포르 내 유일한 활성 공동묘지인 ‘초아추캉 공동묘지(Choa Chu Kang Cemetery)’에서만 매장이 가능함

- 1998년, 싱가포르 정부는 토지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 매장 정책 (New Burial Policy)’을 도입하여 매장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제한함
- 정책 시행 이후 매장 기간 15년을 초과한 묘지는 유골 발굴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발굴된 유골은 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가족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방식(① 화장 후 안치 또는 산분; ② 유골 발굴 후 재매장)으로 처리됨
- 2007년, 싱가포르 정부는 ‘크립트 매장 방식 (Crypt Burial System)’을 도입하여 유골의 발굴 후 재매장 시 활용함
- ※ 해당 방식은 지하에 콘크리트 빔과 패널로 묘실(Crypt)을 만든 후 관을 안치하는 것으로, 공간을 규격화함으로써 제한된 땅에 훨씬 많은 유골을 효율적으로 매장 가능함
- (국외 | 홍콩) 친환경 장례 및 시한부 매장
 - 홍콩 정부는 제한적인 토지 및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한 매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화장 기반의 친환경적 장례 방식(해양 수장, 수목장·잔디장 등)을 장려함
 - ※ 홍콩 정부는 2007년부터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제함
 - 홍콩에서 장사방식으로 공립묘지 매장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한부 매장제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은 딱 6년에 해당함
 - ※ 기간 만료 후 유족은 유골을 수거·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면적이 훨씬 좁은 워합셴 공동묘지(Wo Hop Shek Cemetery)의 소형 향아리 묘역(Urn Grave)에 옮겨 묻어야 함
- (국외 | 독일) 묘지 순환제
 - 독일은 주(州)별 장례법에 기반하여 ‘묘지 강제 원칙(Friedhofszwang)’을 통해 모든 유해를 반드시 허가된 묘지 및 봉안시설에 안치하도록 규정함
 - ※ 독일에서는 고인의 존엄성을 공공 영역에서 지켜야 한다는 문화적 합의를 바탕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설 묘지 등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함
 - 독일에서는 유골 매장을 위한 묘지를 매입할 때 영구 소유권이 아닌 ‘묘지 사용권 (Grabnutzungsrecht)’, 즉 일종의 임대권을 부여하며, 이때 적용되는 기간을 ‘휴지 기간 (Ruhezeit) 또는 안식 기간’이라 명함
 - ※ 묘지 부지에 대한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시신 또는 유골의 자연 분해(Verwesung) 시간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설정함
 - 휴지 기간(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묘지 해체·정리(Grabauflösung)’의 과정을 통해 묘지는 회수·발굴되어 비워지며, 다른 시신 또는 유골의 안치를 위해 재사용됨
 - ※ 휴지 기간 만료 후 유족은 추가 비용(사용료 및 관리비)을 지불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반 순서형 묘지(Reihengrab) 등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묘지의 반환·폐기 절차를 밟음

□ 장사시설 관련 주요 쟁점

○ 기파·혐오시설로서의 장사시설

- 지역 낙인화 (Stigmatization)

-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전통적으로 도시 외곽의 농지 또는 하천 주변에 입지하던 묘지·화장장 등의 장사시설이 도시조직 내로 편입됨
- 장사시설의 경우, 환경·위생·건강 측면의 우려, 교통체증 및 소음증가에 대한 불만,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 등의 연유로 도시 부적격 시설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옴

※ 장사시설은 도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고 시민들도 대부분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설의 위험·비용은 다른 지역이 부담해야 한다는 행동 또는 인식인 ‘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의 대표적 상징물로 자리매김함

○ 장사시설의 수요 증가 및 수용 불가

- 대도시권 인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화장률 상승 등 장사시설 수요 급증

-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이후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영향으로 고령 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사망자 수 증가와 함께 장사시설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
- ※ 한국의 경우,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한편,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서 장례 문화로서 화장이 매장보다 우세해짐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의한 장사시설 수요 증가는 전통적인 묘지의 설치보다는 화장로·봉안시설(납골당)·추모공원(자연장) 등의 확충에 초점이 맞춰짐

- 장사시설의 수용가능 공간·기능 부족 현상 발생

- 화장시설 부족으로 최근 3일장(사망 후 3일 차 화장)이 아닌 4일장 또는 5일장으로 불가피하게 장례 기간을 연장하거나 화장장 예약 불가능으로 원정 화장을 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급히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지자체의 경우, 장기적 인구감소와 단기적(향후 20~30년) 사망자 수 증가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장사시설의 용량 및 입지 등에 대한 적절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장사시설의 현대화·공원화

- 친자연적·수요자중심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로의 변화

- 장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 복지를 위한 도시 내 필수 기반시설 또는 공공공간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근 지자체별로 기존 장사시설의 현대화·공원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 고양시의 경우, 공설·공동묘지 신규 매장을 전면 금지하고 개장지원금 지급을 통해 점진적으로 묘지의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장사시설의 공원화·현대화를 추진함

3. 장사시설 공원화 사례 분석

□ 공원화 조성 사례

○ 공원형 장사시설

- 기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현대화·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
- 공원형·정원형·수목형 복합장사문화시설을 구축한 사례

표 3 | 공원형 장사시설 관련 사례 종합

지역	시설명	시기	대지면적 (㎡)	시설/기능	운영	특징
국내	세종 은하수 공원	2010	360,580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잔디장·수목장 ·화초장) 등	세종 시설 공단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 등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의 수립을 기반으로, 은하수공원을 도심 속 공원형 장사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 •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을 통해 산책로, 잔디광장, 쉼터 등 개방형 녹지 공간 확충
	인천 인천가족 공원	1977	1,497,148	승화원, 장사문화홍보관, 봉안시설 (봉안당·봉안담 ·자연장·묘지) 등	인천 시설 공단	• 승화원, 봉안시설(묘지 포함), 장사문화홍보관 등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종합장사시설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005~2034)’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현대적 종합장사시설이자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전환
	서울 망우역사 문화공원	1933	1,762,000	사색의 길, 중랑망우공간, 망우카페, 기획전시실 등	서울시 중랑구	• 근현대 인물들의 묘역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역사·문화·생태 공간 • 1933년 망우리공동묘지로 조성되어 40여 년 동안 묘지로 사용되다가 1973년 만장으로 신규 매장 금지 •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역사문화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본격 추진
	경기 양평군 국립하늘 숲추모원	2009	550,000	수목장림, 추모광장, 만남의광장, 안내센터, 야영장 등	한국 산림 복지 진흥원	• 산림청에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한 대규모 국립 수목장림 • 수목장림을 중심으로 야영장, 생태

							습지, 홍보관 등 체험·휴양 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추모객과 일반 방문객 모두를 위한 휴식·문화 공간으로 기능
	충남 보령시	국립 기억의숲	2022	290,000	수목장림, 추모광장, 안내센터, 공동 편의시설 등	한국 산림 복지 진흥원	- 장례문화 인식의 변화에 함께 수목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산림청에서 국립하늘숲추모원에 이어 국내 2호로 조성한 대규모 국립수목장림 - 수목장림은 총 12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약 39,040위 수용 가능
국 외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순례의 숲	2018	90,000	화장장 (+ 숲·인공호수, 실내·외 놀이공간, 식당·카페·상점, 역사자연자료관, 지역특산물관 등)	가와 구치시	화장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본 가와구치시에 2018년 건립된 시립 화장시설로,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도요(ito Toyo)가 '자연과의 공생'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여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일본 와카야마현 카이소군	고시키 다이 기념공원	(1990년 묘지 경영 허가)	100,000	공원형 묘지, 산책로, 제례실, 휴게소, 관리사무소 등	공익 재단 법인 エター ナリカ (에터 나리카)	- 간사이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묘지로서, 약 100,000㎡의 부지에 14개 구역, 5,000구획의 묘역 위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숲의 묘원(森の墓園) '이야기의 오솔길(語らいの小径)'을 조성
	홍콩 윈문구	청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2020 (정식 개장)	50,000	납골당, 추모정원 (산분), 대기실, 안내센터 등	홍콩 식품 환경 위생부 (FEHD)	- 홍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공공 납골시설로서, 2010년대 초 납골 수요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조성 - 봉안시설, 산분지역, 기념벽, 루프탑 정원, 수변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적·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 AI 기반 안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이용 현황 모니터링
	미국 뉴욕주 버펄로 시	포레스트 론	1849	1,088,600	봉안당, 기념비, 예배당, 박물관, 편의시설 등	Forest Lawn Group	1849년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형 묘지로, 19세기 미국에서 확산된 전원묘지운동(Rural Cemetery Movement)의 대표 사례 - 도시 외곽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조성된 전원묘지로서, 도심의 위생문제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

	스웨덴 스톡홀름	우드랜드 공동묘지	1920	1,080,000	화장장, 납골시설, 예배당, 추모숲, 산책로, 명상공간 등	스톡 홀름시	• 1915년과 1940년 사이에 건축가 군나르 아스플룬드와 시구르드 레베렌츠에 의해 자연과 건축을 통해 생명의 전체 순환을 반영하도록 설계·조성 • 소나무로 우거진 옛 자갈 채석장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식생과 건축 요소를 혼합하여 부지의 불규칙성을 활용함으로써 기능에 잘 적응한 조경을 창출
	독일 함부르크	울스도르프 공원묘지	1877	3,910,000	묘지, 납골당, 예배당, 박물관, 장미정원, 조각공원, 산책로 등	함부 르크시	• “모두를 위한 공원”을 목표로 설계된 세계 최대의 평지 공원묘지 • 규모·기능 측면에서 도시조직 및 시민생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

〈자료〉 연구자 작성

○ 자연치유·문화공간

- 산림 등 자연환경을 활용해 수목원·식물원·정원, 추모공간 등을 조성한 사례

※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시 참고 및 적용 가능한 사례

표 4 | 자연치유·문화공간 관련 사례 종합

지역	시설명	시기	대지면적 (㎡)	시설/기능	운영	특징
국내	경기 광주시 화담숲	2013	165,265	테마원 16개, 산책로, 모노레일, 식음 및 편의시설 등	LG 상록 재단	•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사립 수목원 • 약 5만 평의 부지에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자작나무숲, 이끼원 등 16개의 테마원 조성 • 수목원 내에 약 5.3km의 전 구간이 경사가 완만한 데크길로 구성된 산책로와 순환 모노레일 설치
	대구 군위군 사유원	2021	516,000	건축/정원 공간, 갤러리,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주식 회사 사유원	• 모과나무 등의 희귀 고목을 보호하기 위해 TC대창 유재성 회장이 설립한 사립 수목원 • 약 15만 평의 산지에 수목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가 및 조경가들의 작품을 유기적으로 배치 • 산책로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따라 목련길, 백일홍길, 모과길, 고송길의 4가지 관람 추천코스 제공

국 외	경기 파주시	울곡 수목원	2021	341,500	21개 테마 식물 주제원, 전망대, 황톳길, 식음 및 편의시설 등	파주시	1960년대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가꾸어진 시유림을 새롭게 탈바꿈한 파주시 최초 공립 수목원 - 약 10만 평의 부지에 허브원, 암석원, 침엽수원 등 21개 테마별 식물 주제원 조성
	인천 강화군	화개정원	2023	213,251	5색 테마정원, 화개산 전망대, 식음 및 편의시설 등	강화군 화개 정원 사업소	- 화개산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인천 최초 지방정원 - 약 3만 3천 평의 부지에 물/역사·문화/추억/평화/치유를 각각의 테마로 하는 5색 테마정원 구성 - 정원 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및 모노레일 설치
	강원 춘천시	제이드 가든	2011	163,500	24개 테마정원, 산책로, 식음 및 편의시설 등	한화 솔루션	- 자연생태 교육장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설립한 사립 수목원 - 약 5만 평의 부지에 자연 지형을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한 채 24개의 테마정원 조성 - 수목원 내 ‘스카이가든’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따라 숲속바람길, 나무내음길, 단풍나무길의 3가지 산책로 코스 제공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 수목원	1996	330,000	주제정원 22여 개, 실내 전시시설 4곳,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주)아침 고요 수목원	- 한상경 교수가 한국의 미를 담은 정원을 만들고자 설립·운영하는 사립 수목원 - 약 10만 평의 부지에 하경정원, 비밀의정원, 아침광장, 하늘길, 분재정원, 한국정원 등 22여 개의 특색 있는 주제정원 구성
	충남 태안군	천리포 수목원	1979	590,000	7개 관리지역, 기념관, 숙박시설,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재) 천리포 수목원	- 미국 출생이지만 한국으로 귀화한 고(故) 민병갈(Carl Ferris Miller) 박사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민간 수목원 - 약 18만 평의 부지에 본원에 해당하는 밀러가든과 에코힐링센터, 목련원, 낭새섬, 침엽수원, 종합원, 큰굴 등 7개의 지역 조성
	일본 효고현 아와지 시	아와지 유메 부타이	2000	280,000	호텔·컨벤션, 정원·식물원, 광장·공연장, 예식장, 편의 및 상업시설 등	효고현 및 (주) 아와지 유메 부타이	-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의 ‘회복’과 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치유’를 상징하는 복합 문화·휴양 시설 - 약 8만5천 평의 부지에 자연지형과 건축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호텔·컨벤션, 정원·식물원, 광장·공연장, 예식장 등의 시설 조성

〈자료〉 연구자 작성

□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

-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기파·비선호 시설로서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에, 장사시설의 정비 및 공원화 시 갈등을 관리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수립이 필수적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중앙정부는 장사시설의 신설 또는 증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은 고려되지 않음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은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가 제정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는 ‘종합장사시설 설치·건립 조례’ 등에 근거함

-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식

- 주민지원기금 조성 :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지자체의 상당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 후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함
- ※ 화장장·납골당 등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 (예, 5~15%), 기금운영 수입금 (이자 수입 등), 지자체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함
- 주민숙원사업 지원 : 장사시설의 신설·증축 및 정비 시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을 파악한 후 이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 ※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마을숙원사업인 도로 포장, 마을회관·노인복지관·보건소 확충, 노인정 보수·확장 등 도시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함
- 주민 일자리 연계 및 소득 창출 : 장사시설의 신설·증축 및 정비 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주민지원협의체 등에게 장사시설 내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우선 위탁하거나,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자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직접 보상 및 간접 혜택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일환으로 소득 보조 등의 직접 보상 또는 사용료 면제 등의 간접 혜택을 제공하기도 함

○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 서울추모공원

- 서울추모공원은 서울시에 두 번째로 조성된 시립 화장시설로서, 한강 이남 지역의 화장시설 확보를 위해 1998년 ‘서울시 제2화장시설 건립계획’ 발표 이후 2001년 서초구 원지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 서울추모공원은 공공 갈등의 관리 과정을 거치며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10여 년이 넘게 소요됨
- ※ 서울시와 지역주민 간 430여 회에 걸친 후속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룸에 따라, 2009년 서울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2011년 완공됨
- 2009년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공공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17여 가지의 사항이

담긴 ‘지역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함

※ 지역주민 지원계획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주민편의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과 함께 추모공원 인근 9개 마을의 용도지역 종상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울산하늘공원

• 울산하늘공원은 운구·장례·화장·봉안에 이르기까지 장사 절차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장사시설로, 울산 동구 공설화장장의 노후화에 따라 2000년부터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추진하여 2003년 울주군 삼동면으로 입지를 확정함

※ 공공의 일방적 부지 선정 시 공공 갈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것을 우려해 울산 최초로 ‘주민 자발적 유치 공모제’를 시행함

• 그런데 당시 장사시설 진입로가 관통하는 인접지역(양산시 하북면) 주민들과 환경훼손 및 지하하락을 이유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가까이 법정·물리적 갈등이 발생함

※ 인접 지역과의 갈등 봉합 후 2008년 울산하늘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2012년 완공됨

• 울산시는 자발적으로 기피시설을 유치해 준 지역사회에 총 19개의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할 것에 합의함

※ 지역사회 숙원사업 지원 사항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버스노선 연장운행, 지방산업단지 공단조성, 면사무소 건립, 면민 운동장 건립, 하수차집관로 설치, 대단위 택지지구 지정(종상향 필요), 삼동-KTX울산역 간 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포함됨

- 화성함백산추모공원

•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 경기 서남부권의 극심한 화장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지자체(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가 공동 건립한 광역 종합장사시설로, 2011년 안양시가 화성시에 해당 사업을 최초 제안한 이후 화성시는 마을 주민 70% 이상이 동의하는 장사시설 유치 후보지 중 현재 추모공원이 위치한 속곡1리를 최종 입지로 선정함

※ 장사시설 유치 후보지 물색 시 마을발전기금과 수익 사업권 등 화성시의 주민 인센티브 계획을 바탕으로 무려 6개 마을이 유치에 지원함

• 그런데 시설 경계선과 맞닿은 인접 지자체(수원시 호매실동 일대)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지하하락을 이유로 집단 반대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 국무조정실의 중재와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통해 갈등을 봉합한 이후 2018년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2021년 완공됨

• 화성시는 총 395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수익시설 운영권 위탁 등의 방식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수행함

※ 화성시는 2020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을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으로 구분한 후 마을발전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을 차별적으로 적용·지원함

※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의 경우, 지원사업이 마을발전 전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기금운용심의위원회·주민총회 등 주민참여 구조를 제도화함

- 순천시립추모공원

- 순천시립추모공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화장시설을 현대화·공원화 하면서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전남 동부권의 거점 종합장사시설로, 순천시가 장사시설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화장장과 인접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함

※ 화장장에 인접한 야흥마을은 전체 80여 가구, 2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화장장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여 화장장마을로 불려옴

- 그러나 시의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주민과의 토론 및 고민을 통해 실질적인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민동의를 이끌어 냄

※ 야흥마을은 화장시설의 입지 선정에 대응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전위원회로 전환하고, 시와 함께 새로운 마을 구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함

- 순천시는 야흥마을을 태양광 발전 기반의 에너지 자립마을로 특성화하는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함

※ 야흥마을 전체 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및 건강관리실 등 공동시설을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로 운영하며, 마을 앞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조합한 자체 동력 가로등을 설치함

□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 장사시설의 공원화

-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사시설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서 공원형·정원형·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등 친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로의 전환을 강조함

- 매장보다 화장을 기반으로 한 봉안·자연장·산분장의 수요 및 선호도 증가 등 장사문화의 변화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장사시설 공원화를 통한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에 일조함

- 기존 장사시설(벽제리묘지)을 수목장·추모숲 및 수목원·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전환 시 대상지 규모, 분묘 기수, 훼손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수목 및 식생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단계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형 사업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대상지의 구역별·기능별로 연계·적용함으로써, 장사시설 공원화의 단계적 실현을 검토 가능함

- 장사시설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유형

- 장사시설 공원화와 관련된 국가·광역지자체 지원사업은 ① 종합 공간계획, ② 기반시설 확충, ③ 장사방식 재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 장사시설의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표 5 | 장사시설 공원화 관련 국가·광역지자체 지원사업

구분	사업	부서	지원	연계
종합 공간계획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비 1:1 분담 (국비 최대 60억)	• 자연경관·문화자원·추모공간을 결 합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청	지방비 1:1 분담	• 장사시설 공원화 시 녹지축 및 완 충녹지 확대를 통해 기후대응형 도시숲 구축
	지방정원 조성사업	경기도	도비 30%, 시·군비 70%	•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테마정원, 추모정원 등 도입
기반시설 확충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 한국 관광공사	지방비 1:1 분담 (개소 당 2.5억)	•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동선 개선 및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산림복지 진흥원	총 사업비의 50% (개소 당 최대 33억)	• 무장애 나눔길 등을 통해 보행약자 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활동 지원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환경부	국비 30%, 지방비 70%	• 유희·훼손 공간의 생태복원 및 체 험형 생태·휴식공간으로 재생
장사방식 재편	산분장지 조성	보건 복지부	국비 70% (개소 당 국비 1억 이내)	• 기존 묘역 일부에 산분장지 도입을 통해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전환

〈자료〉 연구자 작성

4. 벽제리묘지의 현황 및 특성 진단

□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 벽제리묘지

- 개요

- 벽제리묘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하며, 서울 중랑구 망우리묘지, 파주 용미리 제1·2묘지, 남양주 내곡리묘지 등과 함께 서울시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공동묘지임

※ 벽제리묘지는 고양시 관할구역 내 입지하지만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로 현재 서울시설공단에 의해 운영·관리됨

- 벽제리묘지는 1960년대 서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시가지 개발, 기존 망우리묘지 및 내곡리묘지의 만장으로 인한 추가 매장 불가능 등의 사유로 1963년 당시 벽제리 인근에 조성됨

- 벽제리묘지의 총 면적은 1,375,000㎡(약 416,000평)로, 2026년 5월 기준 사용 중인 분묘는 6,800여 기에 해당함

※ 고양시 관할구역 내 고양시에 의해 관리되는 묘지 전체 면적의 약 5.9배에 달함

- 연혁

- 1963년 11월, 서울시의 인구 집중 및 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경기도 고양군 벽제리 일대에 장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묘지 운영을 개시함
- 1991년 5월, 벽제리묘지 개설 이후 30여 년 동안의 지속적인 매장으로 인해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만장(滿葬)' 처리됨
- 1998년 8월, 경기북부 지역의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묘지 훼손·유실 사태와 서울시의 화장 장려 정책이 맞물리면서, 가문 소유의 기존 계약지나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신규 매장이 전면 중단됨
- 2020년, '벽제리·내곡리묘지 개장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무연 분묘와 재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분묘 400여 기를 대상으로 개장을 추진함

- 특징

- 벽제리묘지는 초기 개별적·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조성 분묘로,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 혹은 능선 형태로 묘역이 퍼져 있음
- 벽제리묘지는 1991년 만장 및 1998년 매장 중단 조치 이후 신규 단독 매장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기존 분묘의 관리와 더불어 무연고 분묘 정리, 개장(파묘 후 화장) 및 이장 작업 중심으로 운영됨
- 벽제리묘지의 경우 전체 분묘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조성 묘지로 만장 이후 상당수의 분묘가 적극적 유지관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사시설 공원화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됨

그림 3 | 벽제리묘지 전경



〈자료〉 연구자 현장답사 시 직접 촬영

□ 벽제리묘지의 공간·사회적 특성

○ 공간적 특성

－ 입지

- 벽제리묘지는 파주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북쪽 끝부분에 위치함
- 벽제리묘지의 공간 중심에서 반경 10km 이내에는 장사시설, 수목원, 골프장, 학교, 관광지 등 주요 시설 40여 개가 위치함
- 벽제리묘지로부터 반경 10km를 기준으로 경기 파주시·양주시·의정부시 및 서울 북서부의 일부 행정구역이 포함됨

－ 토지용도

- 벽제리묘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크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4-1, 산4-4, 산5, 산6-1의 4개의 토지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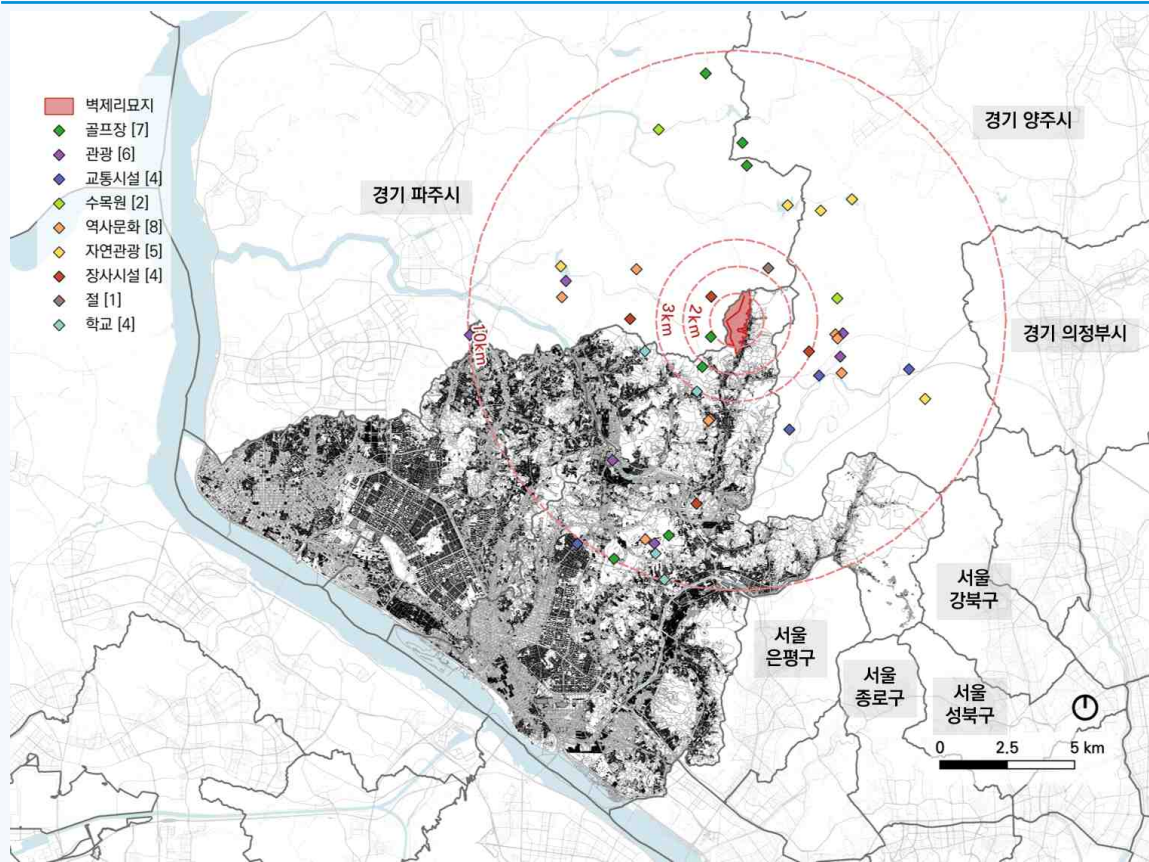
－ 토지소유

- 벽제리묘지 부지(산4-1, 산4-4, 산5, 산6-1)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토지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의 관외 장사시설임

- 지형 (등고 및 경사)

- 벽제리묘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형 산지 묘역으로 전통적 장묘문화에 따라 햇빛이 잘 드는 남향·남동향·남서향의 경사면을 중심으로 분묘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음
 - 벽제리묘지는 표고(해발고도) 100~400m 사이의 산자락에 위치하며, 보광로를 중심으로 진 입부(하단부)의 경사는 완만하지만 서편 능선을 따라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가팔라지는 지형임
- ※ 전체 면적의 87.5%가 경사도 15도 이상이며, 특히 30도 이상이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4 | 벽제리묘지 입지



〈자료〉 'QGIS'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 사회적 특성

- 인구

- 벽제리묘지가 속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행정동인 고양동 기준, 2000년 이후로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 고양동의 경우, 2000~2024년의 기간 동안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4년 기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10.7%, 11.1%, 9.0%와 17.6%, 18.0%, 23.9%로 고양동의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고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음

- 벽제리묘지가 속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법정동인 벽제동 기준, 2023~2025년의 기간 동안 총 인구는 소폭 증감을 보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그 비율이 35.8%에 달함

표 6 | 고양동(행정동)의 인구 변화 (2000~2024)

(단위 :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4
고양시	합계	762,598	864,402	897,222	990,073	1,045,497	1,047,592	1,044,968
	15세 미만	199,138 (26.1)	196,935 (22.8)	161,073 (18.0)	144,238 (14.6)	129,078 (12.3)	116,632 (11.1)	111,821 (10.7)
	65세 이상	43,946 (5.8)	64,919 (7.5)	84,359 (9.4)	109,145 (11.0)	144,331 (13.8)	172,076 (16.4)	183,613 (17.6)
고양시 덕양구	합계	360,408	375,812	372,973	425,100	460,881	484,424	482,446
	15세 미만	92,045 (25.5)	82,560 (22.0)	65,547 (17.6)	61,320 (14.4)	57,327 (12.4)	56,166 (11.6)	53,592 (11.1)
	65세 이상	21,073 (5.8)	29,909 (8.0)	38,007 (10.2)	51,117 (12.0)	67,874 (14.7)	81,748 (16.9)	86,602 (18.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합계	19,553	22,702	31,669	32,305	29,656	28,004	27,562
	15세 미만	4,718 (24.1)	4,872 (21.5)	6,294 (19.9)	5,383 (16.7)	3,783 (12.8)	2,809 (10.0)	2,493 (9.0)
	65세 이상	1,192 (6.1)	1,949 (8.6)	3,378 (10.7)	4,251 (13.2)	5,364 (18.1)	6,279 (22.4)	6,583 (23.9)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인구총조사" 데이터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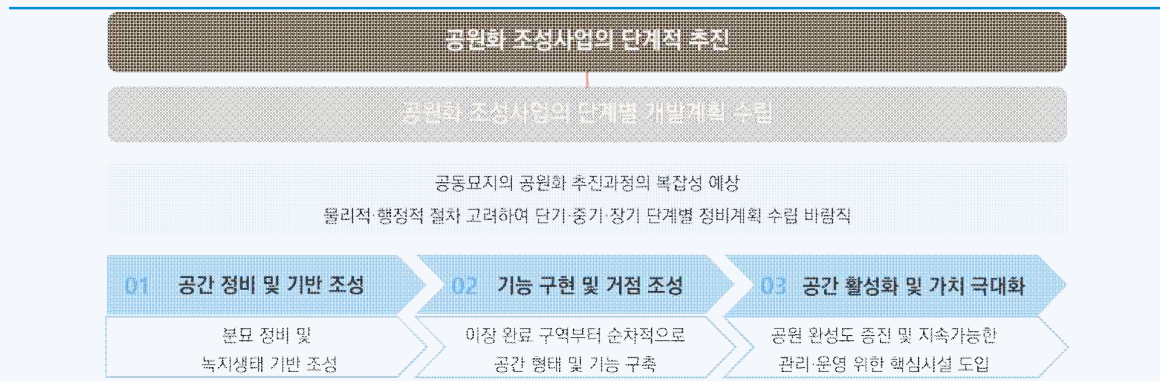
- 벽제리묘지가 속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행정동인 고양동의 경우, 2024년 기준 총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각각 2,512개, 8,414명에 해당함
- 표준산업분류(11차)에 따라 '세세분류(96922)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 '대분류(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하는데, 고양동의 해당 대분류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각각 249개, 553명에 해당함

5.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적 추진
 -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그림 5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1)



〈자료〉 연구자 작성

-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의 공간적·기능적 전환
 - 추모·치유 및 문화·여가 융합공간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주변지역 공간환경 개선 및 연결성 확장

그림 6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2)



〈자료〉 연구자 작성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기관 간 상생 협력 체계 정립
-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그림 7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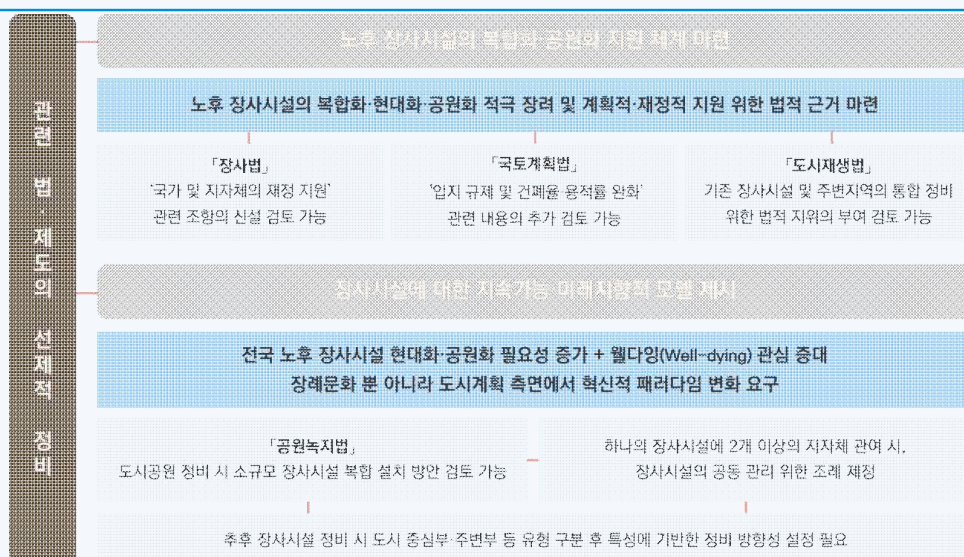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 관련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

- 노후 장사시설의 복합화·공원화 지원 체계 마련
- 장사시설에 대한 지속가능·미래지향적 모델 제안

그림 8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4)



〈자료〉 연구자 작성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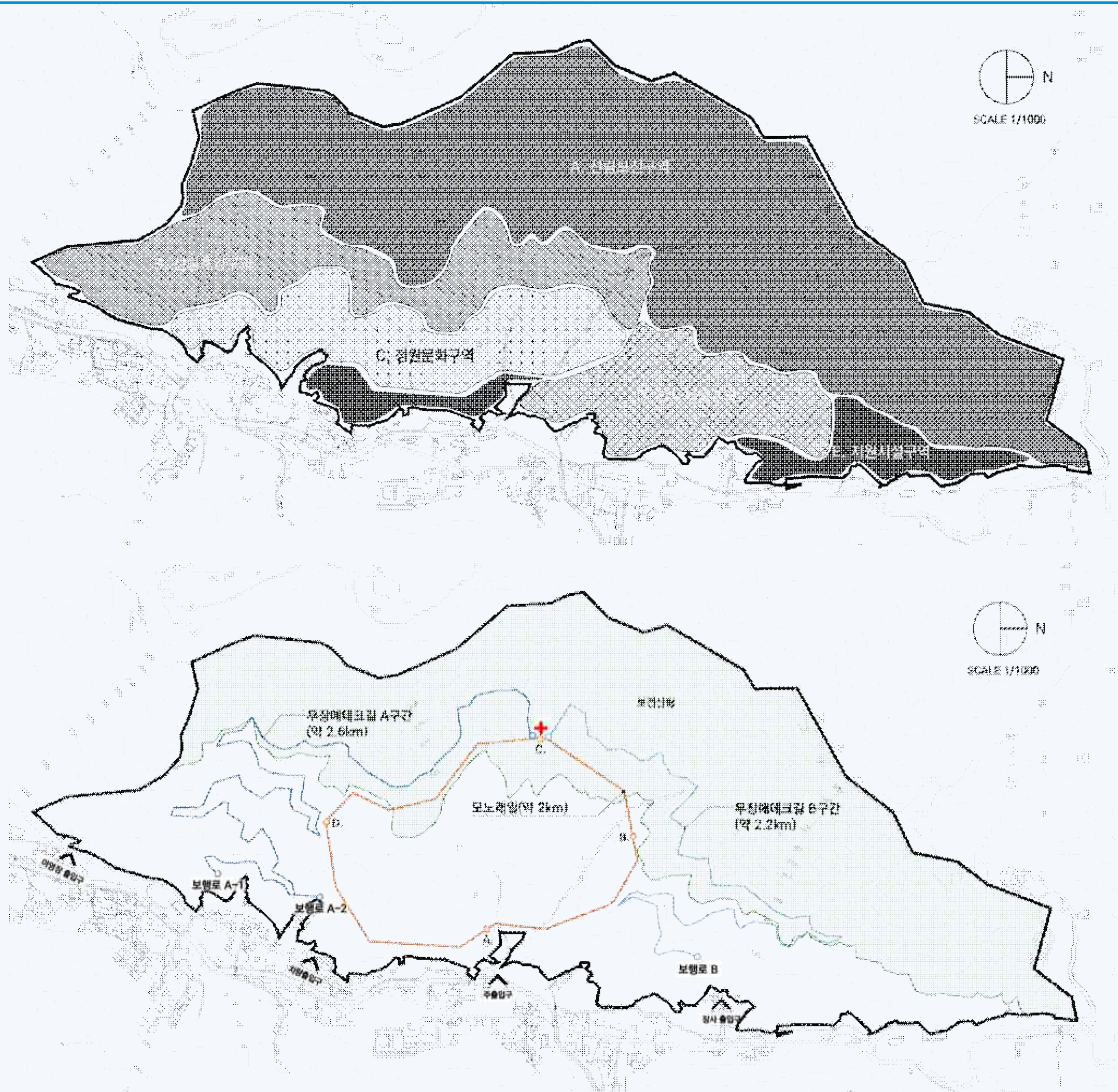
○ 공간 구상(안)

- 구역 설정 (Zoning)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을 통한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의 전환 시, 필요성·타당성 등에 기반하여 구성 가능한 기능·시설을 선정한 후 지형(경사 등), 소요면적·비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함

※ ① 산림보전구역, ② 산림휴양구역, ③ 정원문화구역, ④ 장사시설구역, ⑤ 지원시설구역의 총 5개의 구역으로 구분

그림 9 | 구역도(안) 및 동선(안)



〈자료〉 연구자 작성



요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장사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7
제2절 장사시설 관련 주요 쟁점	39
제3장 장사시설 공원화 사례 분석	45
제1절 공원화 조성 사례	47
제2절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101
제3절 공원화 관련 지원 사업	115
제4장 벽제리묘지의 현황 및 특성 진단	135
제1절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137
제2절 벽제리묘지의 공간·사회적 특성	141
제5장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	151
제1절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153
제2절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공간 계획	169

참고문헌	205
Abstract	211

표 목차

[표 1-1] 시기별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5
[표 1-2] 장사시설 관련 선행연구	12
[표 1-3]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표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항목 및 내용	18
[표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역대 주요 개정 시기별 변경 사항	20
[표 2-3]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요 항목 및 내용	23
[표 2-4] 고양시 내 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5
[표 2-5]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25
[표 2-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항목 및 내용	28
[표 2-7] 지자체별 분묘 개장 후 화장 시 지원 사례	32
[표 2-8] 전국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변화 (1990-2024)	40
[표 2-9] 고양시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2000-2024)	41
[표 3-1] 은하수공원 개요·연혁·특징	48
[표 3-2]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의 핵심 전략	48
[표 3-3]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중 ‘공원 조경 및 환경개선 사업’ 세부 계획	49
[표 3-4] 인천가족공원 개요·연혁·특징	51
[표 3-5]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52
[표 3-6] 망우역사문화공원 개요·연혁·특징	54
[표 3-7] 망우리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화 세부사업 개요 (2017년 기준)	55
[표 3-8] 국립하늘숲추모원 개요·연혁·특징	57
[표 3-9] 국립기억의숲 개요·연혁·특징	59
[표 3-10] 순례의 숲 개요·연혁·특징	61
[표 3-11]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개요·연혁·특징	63
[표 3-12] 청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개요·연혁·특징	66
[표 3-13] 포레스트 론 개요·연혁·특징	68
[표 3-14] 우드랜드 공동묘지 개요·연혁·특징	71
[표 3-15]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개요·연혁·특징	73
[표 3-16] 공원형 장사시설 관련 사례 종합	76
[표 3-17] 화담숲 개요·연혁·특징	79

[표 3-18] 사유원 개요·연혁·특징	82
[표 3-19] 울곡수목원 개요·연혁·특징	85
[표 3-20] 화개정원 개요·연혁·특징	87
[표 3-21] 제이드가든 개요·연혁·특징	90
[표 3-22] 아침고요수목원 개요·연혁·특징	92
[표 3-23] 천리포수목원 개요·연혁·특징	94
[표 3-24] 아와지유메부타이 개요·연혁·특징	97
[표 3-25] 자연치유·문화공간 관련 사례 종합	99
[표 3-26] 장사시설의 신설·증축 지원을 위한 근거법 및 국고보조사업	101
[표 3-27] 지자체별 장사(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관련 조례	103
[표 3-28] 지자체별 종합장사시설 설치·건립 관련 조례 내 주민지원 사항	104
[표 3-29] 서울추모공원 개요	106
[표 3-30] 울산하늘공원 개요	108
[표 3-31] 울산하늘공원 건립 관련 주민숙원사업 지원 (19건)	109
[표 3-32]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개요	110
[표 3-3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마을발전지 원의 종류'	111
[표 3-3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2」 주민지원사 업의 종류'	112
[표 3-35] 순천시립추모공원 개요	113
[표 3-36] 장사시설 공원화 관련 국가·광역지자체 지원사업	116
[표 3-37]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개요	117
[표 3-38]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연도별 선정 지역	119
[표 3-39] '도시숲 조성사업' 개요	121
[표 3-40] '도시 숲 조성사업' 유형별 특성	122
[표 3-41]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현황 (2019-2024)	124
[표 3-42] '지방정원 조성사업' 개요	125
[표 3-43] 경기 지방정원 현황	126
[표 3-44]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개요	127
[표 3-45]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	

업' 개요	129
[표 3-46]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의 세부사업	130
[표 3-47]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개요	131
[표 3-48]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사례 (2012년 선정)	132
[표 3-49] '산분장지 조성사업' 개요	133
[표 3-50]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선정 대상지	134
[표 4-1] 벽제리묘지 개요·연혁·특징	139
[표 4-2] 고양동(행정동)의 인구 변화 (2000-2024)	147
[표 4-3] 벽제동(법정동)의 인구 변화 (2023-2025)	148
[표 4-4] 고양동(행정동)의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49
[표 4-5] 장사시설 관련 표준산업분류 상세 (11차)	150
[표 5-1]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153
[표 5-2] 장사시설 공원화 시 활용 가능한 국가·광역지자체 지원사업	155
[표 5-3]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내 '공원화' 명시 조항	163
[표 5-4] 구역별 기능·시설 및 규모	170
[표 5-5] 무장애 데크길 및 모노레일 동선의 구간별 길이	173
[표 5-6] 세부공간 구상 1안의 시설별 공간 유형 및 규모	175
[표 5-7] 세부공간 구상 2안의 시설별 공간 유형 및 규모	178

그림 목차

[그림 1-1]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비전·목표·주요과제	4
[그림 1-2]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주요과제 중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부문	5
[그림 1-3] 벽제리묘지의 3D위성지도	7
[그림 1-4] 본 연구의 흐름	11
[그림 2-1]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현황	31
[그림 2-2] 고양시 관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지원금 지급 사업	33
[그림 2-3] 싱가포르의 장사체계	35
[그림 2-4] 싱가포르의 장사방식별 비율 변화	35
[그림 2-5] 싱가포르의 크립트(Crypt) 매장 방식	36
[그림 2-6] 수도권 장사시설(화장장) 수용가능 공간·기능 부족 현상	42
[그림 3-1] 은하수공원 조감도	49
[그림 3-2] 은하수공원 전경	50
[그림 3-3]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도(안)	50
[그림 3-4] 인천가족공원 조감도	52
[그림 3-5] 인천가족공원 전경	53
[그림 3-6] 인천가족공원(묘지) 전경	53
[그림 3-7]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단계별 구역도	53
[그림 3-8] 망우역사문화공원 안내도	56
[그림 3-9] 망우역사문화공원 전경	56
[그림 3-10] 망우리공동묘지(망우묘지공원) 전경	56
[그림 3-11] 국립하늘숲추모원 안내도 및 구역도	58
[그림 3-12] 국립하늘숲추모원 전경	58
[그림 3-13] 국립기억의숲 조감도	60
[그림 3-14] 국립기억의숲 전경	60
[그림 3-15] 이이나파크 가와구치 (아카야마 역사자연공원) 안내도	62
[그림 3-16] 순례의 숲 및 역사자연공원 전경	62
[그림 3-17]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안내도	64
[그림 3-18]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전경	64

[그림 3-19] 고시키다이 기념공원의 '이야기의 오솔길(語らいの小径)'	65
[그림 3-20] 청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위치도	67
[그림 3-21] 청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전경	67
[그림 3-22] 포레스트 론 안내도	69
[그림 3-23] 포레스트 론 전경	69
[그림 3-24] 포레스트 론 구역도 (1884년경)	70
[그림 3-25] 포레스트 론의 'Blue Sky Mausoleum'	70
[그림 3-26] 우드랜드 공동묘지 안내도	72
[그림 3-27] 우드랜드 공동묘지 전경	72
[그림 3-28]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안내도	74
[그림 3-29]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전경	75
[그림 3-30] 화담숲 안내도	80
[그림 3-31] 화담숲 전경	80
[그림 3-32] 화담숲 산책로 및 모노레일 동선	81
[그림 3-33] 사유원 안내도	83
[그림 3-34] 사유원 건축 공간	83
[그림 3-35] 사유원 정원 공간	84
[그림 3-36] 사유원 관람 동선	84
[그림 3-37] 울곡수목원 안내도	86
[그림 3-38] 울곡수목원 전경	86
[그림 3-39] 화개정원 안내도	88
[그림 3-40] 화개정원 전경	89
[그림 3-41] 제이드가든 안내도	91
[그림 3-42] 제이드가든 전경	91
[그림 3-43] 아침고요수목원 안내도	93
[그림 3-44] 아침고요수목원 전경	93
[그림 3-45] 천리포수목원 밀러가든 안내도	95
[그림 3-46] 천리포수목원 전경	95
[그림 3-47] 아와자유메부타이 안내도	97

[그림 3-48] 아와지유메부타이 전경	98
[그림 3-49] 아와지유메부타이 주요 시설	98
[그림 3-50] 경기 평택시 포승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숲	123
[그림 3-51] 전남 광양시 유당공원 및 폐철도부지의 기후대응 도시숲	123
[그림 3-52] 경기 지방정원 전경	126
[그림 3-53] 2021 고양시 행주산성 일대 열린관광지	128
[그림 3-54]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사례	130
[그림 3-55] 용미리 제1묘지 어린이 추모공간 '나비쉼터'	134
[그림 4-1] 1991년 벽제리묘지 만장 공고	139
[그림 4-2] 1998년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벽제리묘지 훼손 및 유실	140
[그림 4-3] 벽제리묘지 전경	140
[그림 4-4] 벽제리묘지 입지	141
[그림 4-5] 벽제리묘지 토지용도/지목	143
[그림 4-6] 벽제리묘지 토지소유 관계	144
[그림 4-7] 벽제리묘지 등고선	145
[그림 4-8] 벽제리묘지 경사도	146
[그림 5-1]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도	154
[그림 5-2]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1)	156
[그림 5-3] 올스도르프 공원묘지와 주변 도시조직	158
[그림 5-4]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2)	159
[그림 5-5] 'Ohlsdorf 2050' 프로젝트의 'Nachbarschaftscafés(이웃카페)'를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 과제	161
[그림 5-6]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3)	162
[그림 5-7] 기반시설 복합화의 제도적 수단	164
[그림 5-8]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내 사용/미사용 구역 및 집중·광역 공동묘지/공원 구역	167
[그림 5-9]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4)	168
[그림 5-10] 구역도(안)	171
[그림 5-11] 대상지 인근 벽제천 수계	172
[그림 5-12] 무장애 데크길 및 모노레일 동선(안)	174

[그림 5-13] 세부공간 구성 (1안)	177
[그림 5-14] 세부공간 구성 (2안)	180
[그림 5-15] 세부공간 구성 1안 - 남측 (1)	181
[그림 5-16] 세부공간 구성 1안 - 남측 (2)	182
[그림 5-17] 세부공간 구성 1안 - 북측 (1)	183
[그림 5-18] 세부공간 구성 1안 - 북측 (2)	184
[그림 5-19] 세부공간 구성 2안 - 남측 (1)	185
[그림 5-20] 세부공간 구성 2안 - 남측 (2)	186
[그림 5-21] 세부공간 구성 2안 - 북측 (1)	187
[그림 5-22] 세부공간 구성 2안 - 북측 (2)	188
[그림 5-23] 산림보전구역 (1)	189
[그림 5-24] 산림보전구역 (2)	190
[그림 5-25] 산림보전구역 (3)	191
[그림 5-26] 산림보전구역 (4)	192
[그림 5-27] 산림보전구역 (5)	193
[그림 5-28] 산림휴양구역 (1)	194
[그림 5-29] 산림휴양구역 (2)	195
[그림 5-30] 정원문화구역 (1)	196
[그림 5-31] 정원문화구역 (2)	197
[그림 5-32] 정원문화구역 (3)	198
[그림 5-33] 정원문화구역 (4)	199
[그림 5-34] 장사시설구역 (1)	200
[그림 5-35] 장사시설구역 (2)	201
[그림 5-36] 장사시설구역 (3)	202
[그림 5-37] 장사시설구역 (4)	203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 급속한 도시화 이후 장사시설(묘지, 화장장, 봉안당 등)이 도시조직 내로 편입됨에 따라, 환경·위생·건강 측면의 우려, 교통체증 및 소음증가에 대한 불만,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 공간적 불공정 인식, 정서적·심리적 거부감 등의 연유로 도시 부적격 시설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옴
 -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자연환경 및 풍수지리 사상에 기반하여 거주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마을 인근 산자락에 매장(埋葬) 중심의 단독 분묘(봉분) 형태로 자연발생적 묘지가 조성됨
 - 20세기 초·중반 도시화 및 산업화의 흐름과 함께 장사시설은 도시공간 활용의 효율성 증대, 도시 위생·미관 관리 등의 명목 하에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도심 외곽으로 격리되었으며, 개인 분묘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나 법인이 대규모 부지를 조성하여 집단 관리하는 공동묘지 형태로 전환됨
 -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도시의 광역화(metropolitanization) 및 건물·인구밀도의 증가로 도심 외곽의 공동묘지가 도심 내부로 편입되고 심각한 묘지 부족 현상을 경험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에서 이격된 개발제한구역 등에 화장(火葬) 중심의 봉안당(납골당) 형태로 장사시설이 조성됨
 - 도심 지가 급등, 가용 토지 고갈 등으로 도시 내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매장 기반 분묘 형태의 장사시설은 도시 공간구조와 양립할 수 없게 됨
- ※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NIMBY(Not In My Back Yard) 시설로 전락하여 입지 갈등이 극에 달함

- 그런데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방식 변화,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사시설로의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장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 복지를 위한 도시 내 필수 기반시설 또는 공공공간으로 재해석됨
 -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도심 내 또는 근교에 묘지공원 등의 형태로 추모·치유·문화공간으로서의 장사시설이 조성됨
- 특히 장사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별로 기존 장사시설의 현대화·복합화·공원화를 통해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이용 가능한 녹지·여가 공간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그림 1-1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비전·목표·주요과제

비전	장사정책 공적 책임 강화,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확산	
목표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관리 • 재난 대응 등 “국가 책임 강화” · 부족 화장로 확충 : [‘27년] 52로 추가 ·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이용률 제고 : [‘27년] 30%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27년] 70%	
주요 과제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① 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 ② 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관리 ③ 집단묘지 재개발 및 지역 내 분묘관리 강화 ④ 장사시설관리 내실화
	장사서비스 질 제고	① 장사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② 장사 제도 개선 지속 추진 ③ 장례지도사 등 자격관리 및 위상강화 ④ 장사시설 영업자·종사자 등 교육 개선
	국가책임 강화	①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 ② 장례 전반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 ③ 사회적 취약계층 장례복지 확대 ④ 장사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① 환경 변화에 발맞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② 대국민 장사서비스 신뢰 확보 ③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 ④ 장례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자료〉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23)’에서 발췌

그림 1-2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주요과제 중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부문

분야	과제	현재(2022)	개선(2027)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화장수용능력 확대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존재	서울, 경기(특히 동북부 지역), 부산, 대구 지역 화장로 확대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친자연적 수요자 중심	봉안 67.2%, 자연장 24.5%, 산분 8.2%('20년)	자연장지 이용률 확대(30%) 산분장 이용률(30%)
		확일적 형태 자연장지 조성	⇒ 공원형 및 정원형,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복합 장사문화시설로 다변화
	집단묘지 재개발	만장된 집단묘지 정비 부진	분묘개장촉진 및 집단묘지 개발 활성화
	평가제도 도입	장사시설 평가 미흡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장사시설관리 내실화

〈자료〉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23)’에서 발췌

표 1-1 | 시기별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	근대 (20세기 초·중반)	현대 (20세기 말-21세기 초)	미래
공간 구조	• 농경사회로 거주지와 장사시설의 분리 X	•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도시공간 팽창	• 도시의 광역화 및 건물·인구밀도의 증가	• 지속가능·친환경·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시설 입지	• 마을 인근 산자락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자연환경 및 풍수지리 사상)	• 도심 외곽으로 격리(도시공간 활용의 효율성; 도시 위생·미관 관리)	• 도시조직 내로 편입(주거밀집지역에서 이격된 개발제한구역 등)	• 도심 내 또는 근교
시설 형태	• 매장 / 단독 분묘	• 매장 / 공동묘지	• 화장 / 봉안당	• 화장 / 자연장지
기능·의미	• 조상 숭배의 공간	• 도시발전의 저해 요소	• 혐오·기피시설(NIMBY)	• 추모·치유 및 녹지·여가·문화공간(YIM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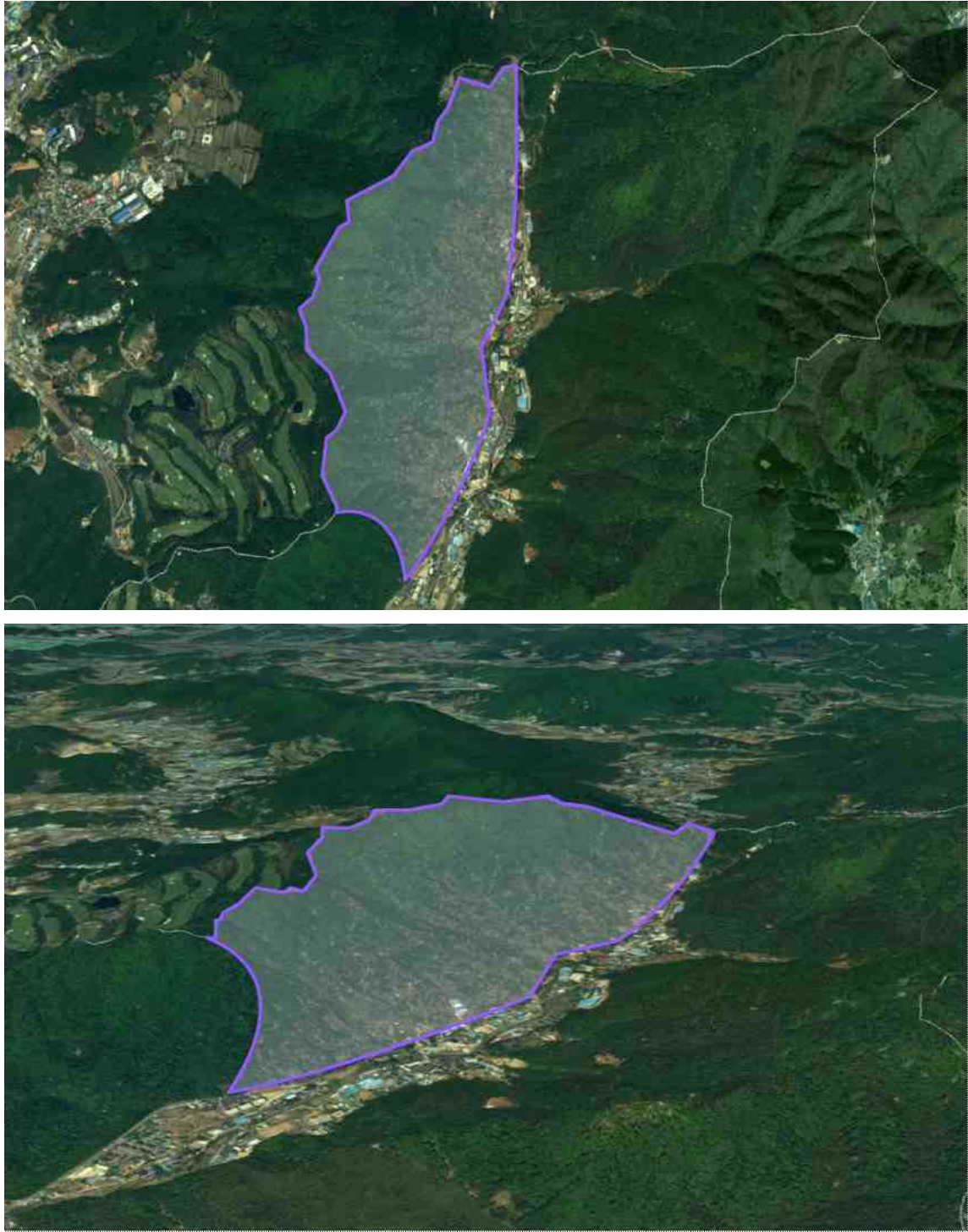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 NIMBY는 “No, In My Back Yard”를, YIMBY는 “Yes, In My Back Yard”를 의미

□ 벽제리묘지 현대화·공원화의 필요성

- 벽제리묘지는 도시팽창 및 인구집중 등으로 서울 시내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서울시가 당시 외곽지역이었던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의 땅을 매입하여 조성한 서울시립 장사시설임
 - 1963년 11월,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일대에 대규모 시립 묘지(벽제리 묘지, 용미리 제1·2 묘지)를 조성함
 - ※ 벽제리묘지는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산4-1 및 산4-4 일대)에 위치해있으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 소유 공유지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함
- 벽제리묘지는 1963년 개설 후 28여 년이 지난 1991년 5월 만장이 되었으며, 이후 일부 잔여 부지 이용을 거쳐 1998년 8월부터 신규 매장이 전면 중단됨
 - 1998년 8월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벽제리묘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묘지 일부 구역이 훼손 및 유실되었는데, 해당 사건이 신규 매장의 중단 결정과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방식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함
- 현재 벽제리묘지는 기존 분묘의 관리와 더불어 무연고 분묘 정리, 개장(파묘 후 화장) 및 이장 작업 위주로 운영됨
 - 벽제리묘지의 개설 시점인 1963년에는 관련법에 묘역의 구획 및 분묘의 형태·면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기에, 당시 벽제리묘지는 개별적·자연발생적으로 분묘가 형성되고 무기한 안장 방식으로 운영됨
 - ※ 1961년, 장사시설 관련 첫 근거법인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
 - ※ 1968년, 해당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명칭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됨
 - ※ 1973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최초로 분묘의 점유 면적과 형태에 대한 규제가 명문화됨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을 20㎡(합장 시 25㎡) 이내로 제한; 공설묘지 조성 시 지형·배수를 고려하여 밭전(田)자 모양으로 구획)
 - 1991년 벽제리묘지 만장 시점을 고려할 때 모든 분묘는 매장 후 35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세대를 거치면서 다수의 분묘가 후손들에 의해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벽제리묘지 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분묘별 관리비 미납 시 노란 딱지를 부착하는데 현재 전체 분묘의 약 2/3가 노란 딱지 상태로 후손들의 방문·연락이 중단됨
- 벽제리묘지의 경우 전체 분묘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조성묘지로 만장 이후 상당수의 분묘가 적극적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사시설 공원화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됨

그림 1-3 | 벽제리묘지의 3D위성지도



〈자료〉 ‘브이월드 (www.vworld.kr)’에서 3D지도 캡처 후 연구자 수정·보완

2. 연구 목적

□ 장사시설 공원화의 필요성 검토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정책 고찰 및 주요 쟁점 도출
-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 진단

□ 장사시설의 공원화 사례 분석

- 국·내외 공원화 조성 사례 조사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조사
-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조사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제시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공간 계획 제안

〈 연구 질문 〉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정책 및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은 어떠한가?
-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는 어떠한가?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전략(기본 방향 및 공간 계획)은 무엇인가?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고양시 행정구역 내 위치하는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공간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주요 쟁점, 그리고 대상지인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장사시설(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필요성을 탐색함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해 참고 가능한 국·내외 공원화 조성 사례를 분석하며, 추가적으로 추진 절차상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와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함
 - 국·내외 공원화 조성 사례의 경우, 공원형 장사시설과 자연치유·문화공간으로 구분 후 사례별 개요·연혁·특징 등에 대해 조사함
 - 장사시설 공원화의 필요성 검토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및 공간 계획을 제시함
- ※ 벽제리묘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소유·운영하는 장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 관할구역 내에 입지함에 따라, 고양시 역시 향후 벽제리묘지의 현대화·공원화 추진 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이해당사자로서 역할 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산4-1 및 산4-4 일대)에 위치한 벽제리묘지에 초점을 맞춤
 - 벽제리묘지의 총 면적은 약 1,375,000㎡로, 고양시 소유·운영 하에 있는 전체 묘지 면적의 약 5.9배에 달함
- ※ 벽제리묘지 조성 당시의 지명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에 해당함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벽제리묘지의 개설(196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함

2. 연구 방법

□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정책, 선행연구, 언론보도 등 검토

- 관련 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관련 조례 : 「고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자체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건립 조례’ 등

○ 장사시설 공원화 사례 조사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해 참고 가능한 국·내외 공원화 조성 사례
- 추진 절차상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및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 현황 및 특성 진단

○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 분석

- 현장 답사, 통계·도면·행정자료, 공간정보시스템(QGIS) 등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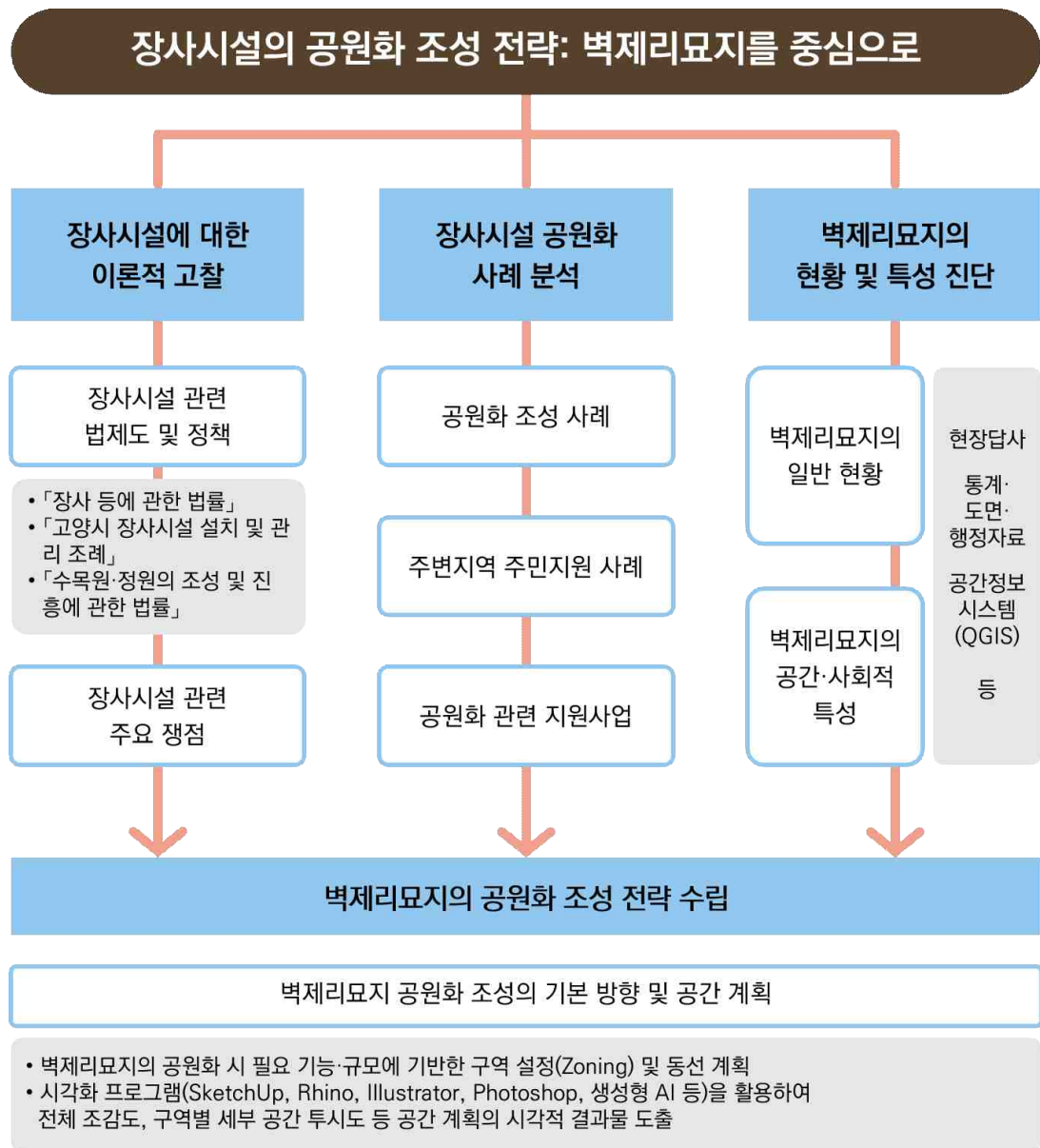
□ 전략적 공간 계획 수립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및 공간 계획 제안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 제시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시 필요 기능·규모에 기반한 구역 설정(Zoning) 및 동선 계획
- 시각화 프로그램(SketchUp, Rhino, Illustrator, Photoshop,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전체 조감도, 구역별 세부 공간 투시도 등 공간 계획의 시각적 결과물 도출

3. 연구 흐름

그림 1-4 | 본 연구의 흐름



〈자료〉 연구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 장사시설의 수급·운영 계획

- 국가 및 지자체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
- 공설·공동묘지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장사시설의 공원화·현대화 계획

- 기존 장사시설의 건물 증·개축, 녹지공간 확충 등 현대화·공원화 사업 계획

□ 장사시설 관련 갈등 조정

- 장사시설의 입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 관련 갈등의 해결 방안 연구

표 1-2 | 장사시설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장사시설 수급·운영 계획	- 연구명 :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 연구자 : 보건복지부 (2023) - 연구목적 : 1차 종합계획('13-'17) 및 2차 종합계획('18-'22)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장사시설의 수급 관리를 위한 비전과 과제 도출	- 기존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 및 한계 평가 - 비전·목표·주요과제 설정 - 장사시설(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집단묘지) 수요 추계 - 사망자·화장을 관련 통계 분석 - 장사시설 현황 분석	- 수립 근거와 추진 방향 - 정책 여건과 비전·목표 - 주요 과제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장례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 추진 일정 - 장사시설 수요 추계 및 주요 통계
	- 연구명 :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 연구자 : 경기도 (2023) - 연구목적 : 경기도의 장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장사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	- 문헌 연구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및 〈제3차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2023~2027)〉 등) - 기초통계 수집·분석 (인구 현황, 출생·사망자 수, 사망률, 화장률 등) - 장사시설 현황 등 수집·분석 - 사례 연구 - 도민인식 설문조사	- 장사시설 공급 및 이용 현황 - 장사시설 관련 시민인식 설문조사 -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 국내·외 장사시설 사례조사 (국내: 서울/부산/화성, 국외: 스페인/오스트리아/일본/스위스) - 경기도 묘지 재개발 방안 - 장사시설 중장기 발전방안 - 장사시설 갈등 조정 방안

	• 연구명 :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운영개선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 : 고양시의회 (2020) • 연구목적 : 고양시의 활용가치가 저하된 공설·공동묘지를 자연친화적인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정책적·실무적 기초자료로 활용	•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연구 •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 분석 (경기도 용인/수원/이천/안산, 울산광역시, 청주시, 춘천시 등) • 주민 욕구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운영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공원화 개발여건 및 우선순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장사시설 기본현황 및 시민의식 조사·분석 • 국내·외 장사시설 사례연구 •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운영 개선방안 분석 •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운영개선 정책제언
장사시설 공원화· 현대화 계획	• 연구명 :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 • 연구자 : 세종시설공단 (2017) • 연구목적 :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은하수공원의 고정된 인식변화를 위하여 도심속 공원형 장사시설을 목표로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핵심 전략 수립 • 종합계획도(안) 도출 • 사업별 세부 계획 마련	• 추진 배경 및 추진 사항 • 주요 핵심 전략 • 주요 사업 세부 계획 • 기대 효과 • 행정 사항
장사시설 관련 갈등 조정	• 연구명 : 지방정부의 비선회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과정 분석_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자 : 함요상 & 현승현 (2013) • 연구목적 : 서울추모공원과 울산하늘공원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선회시설 입지선정 관련 지역주민과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조정과 전략에 대해 탐색	• 이론적 연구 (국내 비선회시설 입지선정과 관련된 문헌; 제도 분석 틀) • 실증적 연구 (서울추모공원 및 울산하늘공원 사례 비교·분석)	•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공공갈등과 비선회시설 - 거버넌스 분석모형으로서 제도분석 틀 - 선행연구 검토 - 분석의 틀 • 사례 개요 및 갈등과정 분석 - 서울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건립 사례분석 - 울산시 하늘공원 건립 사례 분석 - 비선회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조건: 갈등 최소화 전략
	• 연구명 : 장사시설과 관련된 갈등해결방안 연구_홍성군과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자 : 이수장 (2006) • 연구목적 : 장사시설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지역(충남 홍성군)과 갈등 중인 지역(경기 부천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모형 제시	• 장사시설과 같은 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의 입지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론적 측면에서 규명 • 분석의 틀을 제시 • 사례지역 적용 및 분석 •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 장사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장사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의 이론적 설명 (분석의 틀) • 홍성군 및 부천시의 장사시설 입지과정 분석 • 갈등해결방안

〈자료〉 연구자 작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 장사시설 공원화 전략의 기본 방향 및 공간 계획 제시

- 벽제리묘지를 친자연적·수요자중심의 추모·휴양·관광이 결합된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 탐색
 - 지속가능·친자연적 장사방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장례문화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여, 벽제리묘지를 장사시설(봉안당, 수목장, 산분장, 추모숲 등)과 산림·정원·수목원 등의 기능이 복합화 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방향 마련
- 벽제리묘지를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 전환 시 수용 가능한 기능을 파악한 후 공간 계획을 통해 기본구상도(안) 도출
 - 대상지 공간 특성(경사도 등), 수용 가능한 기능 등을 기반으로 구역을 구분하고, 구역별 세부시설 및 규모 설정

표 1-3 |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 연구명 :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전략_벽제리묘지를 중심으로 - 연구목적 : 장사시설 공원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원화 조성 사례를 분석한 후,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및 공간 계획 제시	- 문헌 조사 (관련 법제도, 정책, 선행연구, 언론보도 등) - 기초통계 수집·분석 - 국내·외 사례 연구 - 현장 답사 - 전문가 자문 - 기본구상도(안) 도출	- 장사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장사시설의 공원화 사례 분석 (+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및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 벽제리묘지 현황 및 특성 진단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 (기본 방향 및 공간 계획)
	차별성		
	- 벽제리묘지를 친자연적·수요자중심의 추모·휴양·관광이 결합된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 탐색 - 벽제리묘지를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 전환 시 수용 가능한 기능을 파악한 후 공간 계획을 통해 기본구상도(안) 도출		

〈자료〉 연구자 작성

제2장 장사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제2절 장사시설 관련 주요 쟁점

제1절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장사시설 관련 법제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제1조)

- 해당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제2조)

-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함

□ 책무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수급계획 (제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분묘 설치기간 및 처리 (제19조 및 제20조)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 가능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함

표 2-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항목 및 내용

법제도	항목		내용
장사법	제2조 (정의)	용어 정의	•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함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함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함 •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 •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포함)을 말함 •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건축물인 봉안당 -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함 •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함 •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함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함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수급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

			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음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음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무연고 시신 처리		-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함 ※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점유 면적		- 공설묘지, 가족묘지, 중종 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분묘 설치 기간		-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 -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함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분묘 처리		-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함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함

〈자료〉 연구자 작성

표 2-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역대 주요 개정 시기별 변경 사항

항목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1961.12.05 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973년 일부개정	2000년 전부개정	2007년 전부개정	2015년 일부개정	현재 (2026.06 기준)
장사방식의 종류 및 정의	- 제2조 (정의) - 장사방식을 매장, 화장, 납골 3가지로 정의	- 제2조 (정의) - 장사방식을 매장, 화장, 납골 3가지로 정의	- 제2조 (정의) <u>확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아래 묻는 '자연장' 최초 규정</u>	- 제2조 (정의) - 기존 매장·화장·봉안·자연장 체계 유지	- 제2조 (정의) <u>'자연장'에 해양 등 지정된 구역에 뿌리는 '산분장'의 내용 추가</u>
국가·지자체의 책무	- 제7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 지자체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의 설치 의무 마련 - 공설납골당은 필요에 따라 설치	- 제5조 (묘지 등 수급계획) - 국가 및 지자체는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제5조 (수급계획) <u>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의무</u> - 지자체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화	- 제5조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의무 유지 - 지자체별 '지역수급계획' 수립 의무	- 제5조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의무 유지 - 지자체별 '지역수급계획' 수립 의무 유지
분묘 점유면적	- 제4조 (매장 장소) - 분묘 1기당 20㎡(합장 25㎡) 이내로 면적 상한선 신설	- 제16조 (분묘 면적) <u>공설 및 집단(가족·법인) 묘지 분묘 1기당 10㎡(합장 15㎡), 개인묘지 30㎡ 이내로 면적 기준 변경</u>	- 제18조 (면적 제한) - 기존 분묘 면적 기준 유지 <u>봉안묘는 높이 70cm, 면적 2㎡ 이내</u> - 제16조 (자연장지 조성) <u>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 기준 100㎡ 미만</u>	- 제18조 (면적 제한) - 기존 분묘 및 봉안묘의 면적 제한 유지 - 제16조(자연장지 조성) - 자연장지 면적 기준 유지	- 제18조 (면적 제한) - 기존 분묘 및 봉안묘의 면적 제한 유지 - 제16조(자연장지 조성) - 자연장지 면적 기준 유지
분묘 설치기간	-	- 제17조 (설치기간) <u>분묘 설치기간은 기본 15년 + 15년씩 3회 연장 가능 (최대 60년)</u>	- 제19조 (설치기간) - 설치기간 기존 체계 유지 <u>합장 분묘 등의 경우 합장날 기준 계산</u>	- 제19조 (설치기간) <u>분묘 설치기간은 기본 30년 + 추가 최대 1회 30년 연장 가능 (최대 60년 총량은</u>	- 제19조 (설치기간) - 설치기간 기존 체계 유지 <u>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장기간 단축 유지</u>

		- <u>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기간 5~15년으로 단축 가능</u> • 제18조 (설치기간 종료 분묘) - <u>기간 만료 후 1년 내 철거, 화장 또는 납골 의무화</u>	- <u>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장기간 단축 유지</u> • 제20조 (설치기간 종료 분묘) - <u>기간 만료 후 처리 체계 유지</u>	동일) - <u>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기간 5~30년으로 단축 가능</u>	
무연분묘 등 처리	• 제15조/제15조의2 (무연분묘 정리) - <u>신고되지 않은 분묘 또는 무연고 분묘는 시장 및 도지사에 의해 공·사설납골당에 집단 안치 가능</u> • 제16조 (개장명령등) - <u>타인 토지나 승낙 없는 묘지는 공고 후 개장 명령 가능</u>	• 제23조 (타인 토지 분묘) - <u>무단 분묘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 통보 및 공고 후 개장 가능</u> - <u>무단 설치된 분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u> • 제24조 (무연분묘 처리) - <u>무연분묘는 지자체장에 의해 공고 후 화장하여 납골 가능</u>	• 제27조 (타인 토지 개장) - <u>무단 분묘의 처리 유지</u> - <u>무단 분묘 및 무단 자연장 분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u> • 제28조 (무연분묘 처리) - <u>무연분묘의 처리 유지</u>	• 제27조 (타인 토지 개장) - <u>무단 분묘의 처리 유지</u> - <u>무단 분묘 개장 시 공고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장한 후에 처리</u> • 제28조 (무연분묘 처리) - <u>무연분묘의 처리 유지</u>	
지역주민 갈등 조정	-	-	• 제5조 (수급계획) - <u>지역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u> •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u>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가능</u>	• 제5조 (수급계획) - <u>지역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u> •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u>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유지</u>	• 제5조 (수급계획) - <u>지역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 유지</u> •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 <u>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유지</u>

〈자료〉 연구자 작성

2)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목적 (제1조)

- 해당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관할구역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해당 조례는 고양시 관할구역 안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함

□ 정의 (제2조)

-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함
-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

-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 분묘의 개장 후 화장 지원 (공설·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한정)
 - ※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의 추진
 -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 수급계획 (제5조)

- 시장은 중앙 부처와 경기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주민의견수렴 (제6조의2)

○ 해당 시설이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 주거·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등

※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분묘 설치기간 (제8조)

○ 분묘의 설치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30년으로 하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5년으로 함

□ 시범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

○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표 2-3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요 항목 및 내용

법제도	항목		내용
고양시 장사시설 조례	제2조 (정의)	용어 정의	•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함 • “공설묘지”란 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함 •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함 •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함
	제4조 (시책의 수립·시행)	시책 수립·시행	•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가. 분묘의 개장 후 화장 지원 (공설·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한정) 나.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의 추진 -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급 계획	•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앙 부처와 경기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6조의2 (주민 의견수렴 등)	주민 의견 수렴	•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장사시설 중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제외) -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 주거·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등 •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8조 (분묘 설치기간)	분묘 설치 기간	•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의 규정을 따름 •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 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함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며, 그 기간을 5년으로 함
제9조 (시범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범 장사 시설	•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제19조 (사용신고의 철회)	사용 신고 철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철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음 - 사용신고한 공설묘지 내 분묘설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자료〉 연구자 작성

표 2-4 | 고양시 내 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종류	명칭	소재지
공설묘지	내유동 공설묘지	•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82, 142-4
	성석동 공설묘지	•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153
공동묘지	효자동 공동묘지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27
	화전동 공동묘지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63-9
	성사동 공동묘지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42-8,9
	식사동 공동묘지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27
	도내동 공동묘지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54-2,6
	행주외동 공동묘지	•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19-3
	강매동 공동묘지	•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93-6
	지영동 공동묘지	•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산42
	벽제동 공동묘지	•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57
	내유동 공동묘지	•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82

〈자료〉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표 2-5 |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구분	일반		합장	
	1기당 점유면적 (㎡)	사용료 (원)	2기당 점유면적 (㎡)	사용료 (원)
공설묘지	6.6	35,000	9.9	12,500
공동묘지	6.6	10,000	9.9	5,000

〈자료〉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2」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목적 (제1조)

- 해당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제2조)

-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함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함

□ 구분 (제4조)

-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함
 -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사립수목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학교수목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으로 구분함
 - 국가정원 :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지방정원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민간정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 공동체정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

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 생활정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 주제정원
 - 교육정원 :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치유정원 :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실습정원 :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모델정원 :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제6조)

-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수목원 및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제6조의2)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수목원조성예정지)을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지정기간 5년 → 3년, 연장기간 3년 → 1년 (2026년 10월부터 변경 시행)
-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산지·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토지 수용 (제8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표 2-6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항목 및 내용

법제도	항목	내용
수목원 정원법	제2조 (정의)	용어 정의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함 -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 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함 ※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함
	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구분 -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제6조 (수목원·정원 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본 계획	•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제6조의2 (수목원조성 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해제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 하려는 구역(수목원조성예정지)을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 적, 위치·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함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 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지정기간 5년→3년, 연장기간 3년→1년 (2026년 10월부터 변경 시행) •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산지·농지의 전용 -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 건축물의 건축 - 인공구조물의 설치
	제7조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 등)	수목원 조성 계획 승인	• 시·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 제외)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제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토지 수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 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함
	제18조의2 (정원의 조성 등)	정원 조성	•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 용함

〈자료〉 연구자 작성

2. 장사시설 관련 정책

1) 국내

(1) 국가 차원

□ 한시적 매장제도

- 2000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을 기반으로, 2001년부터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추진함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영구 매장을 금지하고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함
 - ※ 국가적 차원에서 한시적 매장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세부 추진 방안 마련 및 사전 준비 중 (~'27)
-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30년까지 추가로 연장 가능함 (최장 이용기간 60년)
 - 지자체 조례나 묘지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 가능함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모든 매장 분묘에 적용됨
 - ※ 합장의 경우,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한시적 매장제도가 적용됨
- 분묘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비석, 상석 등)을 철거하고 개장을 통해 매장된 유골을 땅속에서 꺼내어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함
 - 만약 기한 내에 연고자가 자진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묘지 관리자(지자체 또는 법인 묘지)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음
 - ※ 2001-2021년 한시적 매장제도 대상 분묘(합법 분묘)는 645,858기에 해당함

(2) 지자체 차원

□ 화장장려금 지원

- 장례 문화가 매장 중심에서 화장 및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존 매장묘의 개장 후 화장(개장유골 화장) 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방식 전환을 유도함

그림 2-1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자료〉 ‘2026년 지방자치단체별 화장장려금 조례-알기 쉬운 화장장려금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6)’에서 발췌

* 2026년 1월 기준, 전국 226개 행정구역 중 91개 시·군·구에서 화장장려금 관련 조례 제정 (제정률 40%)

- 2026년 1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0%에 해당하는 91개의 시·군·구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시립묘지(용미리 제1·2묘지, 벽제리묘지, 내곡리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유족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합장분묘는 1기로 간주)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 ※ 2020년 해당 정책 시행 첫 해에는 화장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50만원)를 지원하였고, 2021년 이후로 개장 후 화장 완료한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함
 -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망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

- 된 분묘를 개장한 경우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전액을 지원함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망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및 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한 경우 등에 한해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를 지원함
 - ※ 지자체별 개장·화장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1구당 10-20만 원 정도로, 지자체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 일부 지자체는 실제 화장에 소요된 비용이 지원 기준보다 적을 경우 실비로 지급하기도 하며, 지역 내 화장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표 2-7 | 지자체별 분묘 개장 후 화장 시 지원 사례

지자체	지원 기준	지원 대상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분묘 1기당 400,000원	• 관내 공설묘지(용미리, 벽제리 등) 안치 분묘를 자진 개장하여 화장하는 연고자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인천 옹진군	관내: 1구당 100,000원 관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유족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경기 과천시	1구당 850,000원	•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가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경기 구리시	화장시설 이용료의 50% (상한 50만원) ※ 차상위계층은 70%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경기 남양주시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상한 100만원)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강원 삼척시	화장시설 이용료의 80%	• 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강원 고성군	화장시설 이용료의 80%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충북 단양군	화장시설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전액 (상한 30만원)	• 군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충북 보은군	1구당 100,000원	• 개장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충남 계룡시	1구당 50,000원	• 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북 고창군	서남권추모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 지급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남	1구당 200,000원	• 개장신고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나주시 화장장려금

나주시		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지원 조례
경북 영천시	화장시설 이용료의 60%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경남 거창군	1구당 100,000원	• 군에 설치된 기존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 제외)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자료〉 연구자 작성

○ 고양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관내 공설·공동묘지의 개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장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

- 고양시는 공설·공동묘지 신규매장을 전면 금지하고 개장지원금 지급으로 점진적으로 공동묘지의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설·공동묘지의 공원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임

• 고양시 관내 공설·공동묘지의 분묘를 타 장사시설로 이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 유족에게 1기당 40만원의 개장지원금을 지급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 개장지원금 지급은 내유동, 성석동, 도내동, 성사동 공동묘지 등 관내 12개 공설·공동묘지의 개장 분묘를 대상으로 함

그림 2-2 | 고양시 관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지원금 지급 사업



〈자료〉 ‘고양시-보도자료’ (https://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90&q_estnColumn1=All&q_bbscttSn=20220902144836419)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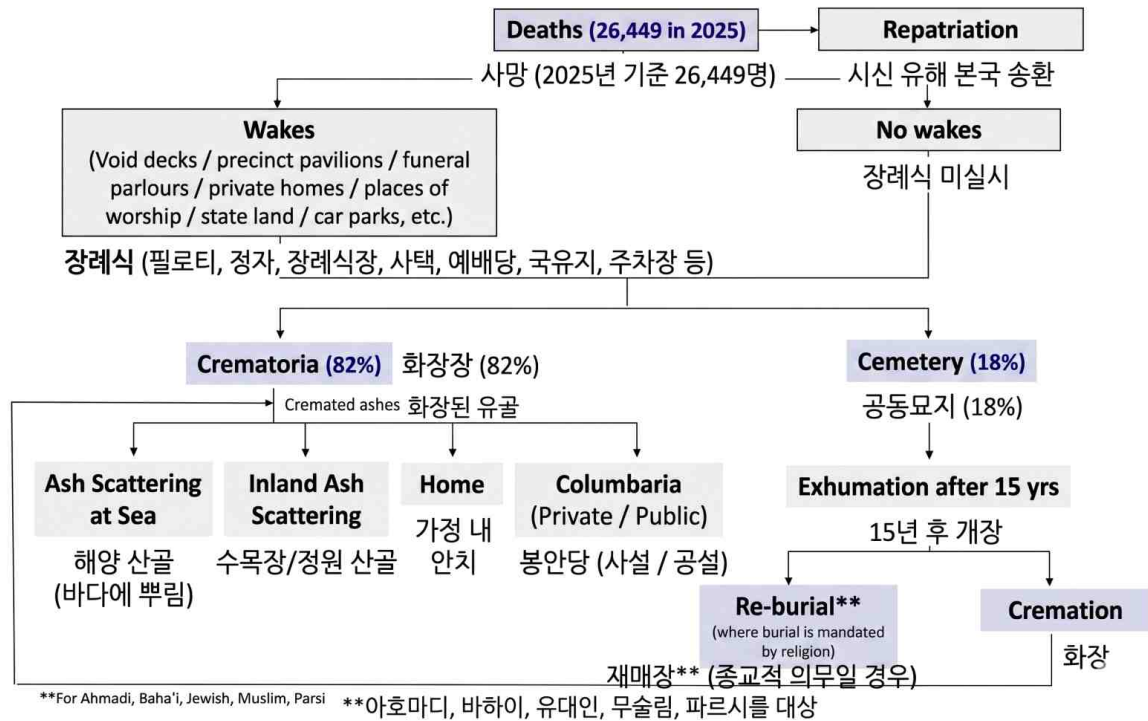
2) 국외

(1) 싱가포르

□ New Buri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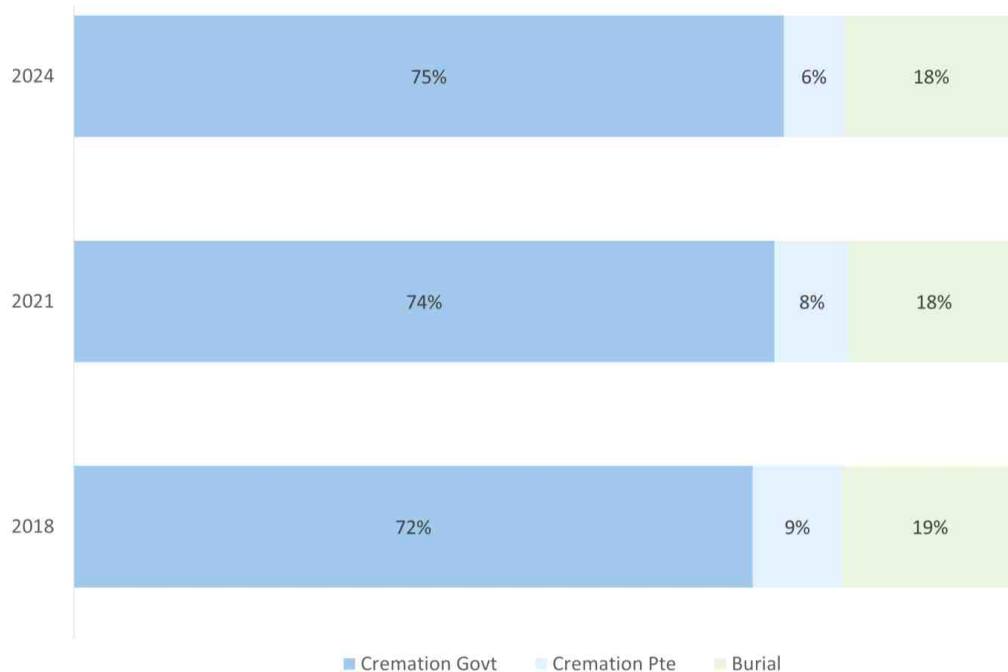
- 싱가포르는 제한된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화장 및 봉안 중심의 장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음
 - 2025년 기준, 총 26,449명의 사망자 중 82%는 화장, 18%는 공동묘지 매장의 방식으로 장사가 이루어짐
 - ※ 현재 싱가포르 내 유일한 활성 공동묘지인 ‘초아추강 공동묘지(Choa Chu Kang Cemetery)’에서만 매장이 가능함
- 1998년, 싱가포르 정부는 토지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 매장 정책 (New Burial Policy)’을 도입함
 -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묘지의 영구 사용 개념을 폐지하고, 매장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제한함
- 정책 시행 이후 매장 기간 15년을 초과한 묘지는 유골 발굴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발굴된 유골은 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가족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됨
 - 화장이 허용되는 종교의 경우,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당(납골당) 또는 자택에 안치하거나 바다·기념 정원에 산분(散粉)함
 - ※ 싱가포르에서는 국토 효율성 때문에 화장을 적극 권장함
 - 매장만 허용하는 종교(이슬람교, 유대교 등)의 경우, 유골을 발굴한 뒤 더 작은 규격의 개인 구획에 재매장(Re-burial)함
- 2007년, 싱가포르 정부는 ‘크립트 매장 방식 (Crypt Burial System)’을 도입하여 유골의 발굴 후 재매장 시 활용함
 - 해당 시스템은 흙을 파서 관을 묻는 전통 방식과 달리, 지하에 콘크리트 빔과 패널로 묘실(Crypt)을 만든 후 관을 안치함
 - 이 시스템을 통해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관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간을 규격화하여 제한된 땅에 훨씬 많은 유골을 효율적으로 매장할 수 있게 됨
 - ※ 연고자가 있는 경우 한 크립트에 최대 8구, 무연고는 최대 16구까지 집단 관리 가능함

그림 2-3 | 싱가포르의 장사체계



〈자료〉 'Singapore National Environment Agency (<https://www.nea.gov.sg/our-services/after-death>)'에서 발췌 후 연구자 수정·보완

그림 2-4 | 싱가포르의 장사방식별 비율 변화



〈자료〉 'Singapore National Environment Agency (<https://www.nea.gov.sg/our-services/after-death>)'에서 발췌

그림 2-5 | 싱가포르의 크립트(Crypt) 매장 방식



〈자료〉 'ZENBOX CATALYST' (<https://www.zenboxcatalyst.com.sg/singapore-burial-system/>) 및 'Singapore Funeral Alliance' (<https://www.singaporefuneralalliance.com.sg/post-funeral>)에서 발췌

(2) 홍콩

□ 친환경 장례 및 시한부 매장

- 홍콩 정부는 제한적인 토지 및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한 장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화장 기반의 친환경적 장례 방식을 장려함
 - 홍콩 정부는 매장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 수장, 수목장·잔디장 등의 친환경 장례방식을 적극 장려하고 비용을 지원함
 - 해양 수장(Sea Burial)의 경우, 홍콩 내 지정된 해역에 화장된 유골을 뿌리는 장사방식으로 홍콩 정부는 무료 페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배 위에서 간단한 추모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홍콩 정부는 2007년부터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제함
 - 기억의 정원(Garden of Remembrance)의 경우, 홍콩 내 지정된 추모공원의 잔디나 나무 주변에 화장된 유골을 뿌리는 장사방식으로 신청비용은 무료이고 원할 경우 약간의 비용을 내고 벽면에 작은 추모 패를 부착할 수 있음
- 홍콩에서 장사방식으로 공립묘지 매장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한부 매장제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은 딱 6년에 해당함
 - 매년 홍콩 식품환경위생처(FEHD)는 관보를 통해 공립묘지에 6년을 초과하여 매장되어 있는 모든 유해를 무덤에서 옮기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장 명령을 공고함
 - 이장 명령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유해가 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유해를 직권으로 파내어 화장한 뒤 샌드리지 공동묘지(Sandy Ridge Cemetery)의 공동 유골함에 합장 처리함
 - 유족이 장례업자 등을 통해 직접 유골을 수거한 경우, 이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면적이 훨씬 좁은 워합셴 공동묘지(Wo Hop Shek Cemetery)의 소형 항아리 묘역(Urn Grave)에 옮겨 묻어야 함
 - ※ 홍콩 법령 「Chinese Permanent Cemeteries Rules (Cap. 1112A)」에 따르면, 묘지 1기당 허용 면적은 가로 900mm, 세로 2,400mm로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2.16㎡, 약 0.65평에 해당함

(3) 독일

□ 묘지 순환제 (임대 및 재사용)

○ 독일은 주별 장례법에 기반하여 '묘지 강제 원칙(Friedhofszwang)'을 통해 모든 유해를 반드시 허가된 묘지 및 봉안시설에 안치하도록 규정함

- 묘지 강제 원칙은 본래 부패한 시신을 아무 곳이나 묻으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됨

- 독일에서는 고인의 존엄성을 공공 영역에서 지켜야 한다는 문화적 합의를 바탕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설 묘지 등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함

- 묘지 매장 외에 지정된 해역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Seebestattung)과 정부가 공식 허가한 숲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Bestattungswald)이 허용되며, 수목장 숲 역시 법적으로는 묘지로 분류됨

※ 유일하게 브레멘(Bremen)주에서만 특정 조건의 개인 정원에서 유골을 뿌리는 행위가 가능함

○ 독일에서는 유골 매장을 위한 묘지를 매입할 때 영구 소유권이 아닌 '묘지 사용권(Grabnutzungsrecht)', 즉 일종의 임대권을 부여하며, 이때 적용되는 기간을 '휴지 기간(Ruhezeit) 또는 안식 기간'이라 명함

- 묘지 부지에 대한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시신 또는 유골의 자연분해(Verwesung) 시간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설정함

- 시신의 경우 보통 20-30년으로 설정되는데 토양이 축축한 점토질인 경우 분해가 느려 최대 40년까지 지정되기도 하며, 유골의 경우 자연분해 속도가 빠르고 공간을 덜 차지하므로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게 설정됨

※ 지자체별 조례(Satzung)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토질, 묘지수급 상황 등에 따라 휴지 기간을 다르게 규정함

○ 휴지 기간(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묘지 해체·정리(Grabauflösung)'의 과정을 통해 묘지는 회수·발굴되어 비워지며, 다른 시신 또는 유골의 안치를 위해 재사용됨

- 휴지 기간 만료 전 지자체나 관리 주체로부터 안내 통보를 받으면 유족은 연장(Wahlgrab) 또는 반환·폐기(Reihengrab) 중 선택을 해야 함

- 휴지 기간 만료 후 유족은 추가 비용(사용료 및 관리비)을 지불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반 순서형 묘지(Reihengrab) 등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묘지의 반환·폐기 절차를 밟음

※ 휴지 기간 만료 후 땅속에 미처 다 분해되지 않은 유골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여 묘지 내 지정된 공동 안치소(익명 장지)에 모시거나 새로 들어올 시신을 위해 더 깊은 땅속으로 밀어 넣는 방식을 취함

제2절 장사시설 관련 주요 쟁점

1. 기파·혐오시설로서의 장사시설

□ 지역 낙인화 (Stigmatization)

-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전통적으로 도시 외곽의 농지 또는 하천 주변에 입지하던 묘지·화장장 등의 장사시설이 도시조직 내로 편입됨
- 장사시설의 경우, 환경·위생·건강 측면의 우려, 교통체증 및 소음증가에 대한 불만,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 공간적 불공정 인식, 정서적·심리적 거부감 등의 연유로 도시 부적격 시설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옴
 - 장사시설은 도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고 시민들도 대부분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설의 위험·비용은 다른 지역이 부담해야 한다는 행동 또는 인식인 ‘넴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의 대표적 상징물로 자리매김
 - ※ 넴비(NIMBY)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시설(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교도소 등)의 설치 등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임
 - 일례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주민들이 마을의 법정동 명칭인 “벽제”가 ‘화장터’로 인식이 고착화돼 지역 이미지 손상이 상당하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함¹⁾
 - 벽제화장장으로 불리는 서울시립승화원은 실제 대자동에 입지하고 대자동과 벽제동은 2km 이상 떨어져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벽제화장터”라는 명칭의 사용이 고착화됨
 - ※ 벽제화장장이 위치한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벽제면에 편입된 이후, 1980년 벽제면의 벽제읍으로의 승격과 함께 대자리에 속했다가 1992년 고양군의 고양시로의 승격과 함께 대자동에 속하게 됨
 - ※ 1970년 서울시립승화원이 당시 벽제면에 들어섬에 따라 “벽제화장터”로 불리게 됨 (벽제동과 대자동은 법정동으로서, 벽제동은 행정동인 고양동, 대자동은 고양동·관산동 관할에 속함)
 - 2008년 벽제동 전체 거주자 4,684세대의 절반가량인 아파트 거주자 2,51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시, 응답자 2,192 세대 중 2,021 세대, 약 92.2%가 명칭 변경에 찬성함

1)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380291?sid=100>)’ 참고

2. 장사시설의 수요 증가 및 수용 불가

□ 대도시권 인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화장률 상승 등 장사시설 수요 급증

-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이후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사망자 수 증가와 함께 장사시설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
 - 한국의 경우,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고양시의 경우, 2024년 기준 15세 미만 인구는 10.7%, 65세 이상 인구는 17.6%로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통계청(KOSIS)의 ‘장래 인구변동요인’ 조사에 따르면 2030년 추계인구 총 5,131만 명 대비 사망자수 41만 명(0.8%), 2040년 추계인구 총 5,006만 명 대비 사망자수 53만 명(1.1%)으로 연간 사망자의 수 및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 장사시설 수요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 한편,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서 장례 문화로서 화장이 매장보다 우세해짐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의한 장사시설 수요 증가는 전통적인 묘지의 설치보다는 화장로·봉안시설(납골당)·추모공원(자연장) 등의 확충에 초점이 맞춰짐
 - 2025년 10월 기준 전국의 잠정치 화장률은 94.2%로, 2015년 동월 80.2%와 비교할 때 10년 만에 14%p 증가함²⁾

표 2-8 | 전국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변화 (1990~2024)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전국	4.98	5.93	7.33	9.28	11.30	12.96	15.99	19.54
서울특별시	3.42	4.22	5.43	7.28	9.64	12.33	15.64	19.19
부산광역시	3.35	4.53	6.17	8.65	11.70	14.52	19.08	23.57
대구광역시	3.69	4.55	5.95	8.00	10.34	12.65	16.36	20.58
인천광역시	3.52	4.48	5.54	7.10	8.82	10.66	13.77	17.38
광주광역시	4.03	4.62	5.58	7.16	9.08	11.06	14.04	17.33
대전광역시	4.02	4.53	5.47	7.01	8.79	10.68	14.05	17.60
울산광역시	-	-	4.04	5.34	7.01	8.69	12.40	16.82

2)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	-	-	-	-	10.34	9.32	11.14
경기도	4.44	4.83	5.81	7.28	8.92	10.43	13.01	16.33
강원특별자치도	6.51	8.04	9.89	12.87	15.47	16.78	20.30	24.64
충청북도	7.12	8.15	9.69	12.08	13.90	14.50	17.22	20.84
충청남도	7.72	9.95	12.06	14.25	15.52	15.79	18.15	20.83
전북특별자치도	7.22	9.08	11.21	14.22	16.40	17.68	20.86	24.38
전라남도	7.65	10.69	13.57	17.67	20.42	20.70	23.14	26.25
경상북도	8.15	9.62	11.56	14.43	16.72	17.50	21.09	24.86
경상남도	5.56	6.41	9.00	10.85	12.54	13.60	16.95	21.08
제주특별자치도	5.80	6.71	8.37	10.44	12.83	13.78	15.35	18.36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인구총조사” 데이터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표 2-9 | 고양시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2000-2024)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15세 미만	65세 이상	15세 미만	65세 이상	15세 미만	65세 이상	15세 미만	65세 이상	15세 미만	65세 이상	15세 미만	65세 이상
고양시	26.11	5.76	22.78	7.51	17.95	9.40	14.57	11.02	12.35	13.81	10.70	17.57
덕양구	5.54	5.85	21.97	7.96	17.57	10.19	14.42	12.02	12.44	14.73	11.11	17.95
일산동구	26.63	5.69	21.45	7.31	16.74	8.89	13.66	10.29	11.54	13.39	10.10	17.30
일산서구	*	*	24.93	7.05	19.61	8.79	15.66	10.25	13.00	12.76	10.62	17.19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인구총조사” 데이터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005년을 기준으로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 (2000년 비율은 일산동구/서구의 인구 총합을 기준으로 함)

□ 장사시설의 수용가능 공간·기능 부족 현상 발생

○ 화장시설 부족으로 최근 3일장(사망 후 3일 차 화장)이 아닌 4일장 또는 5일장으로 불가피하게 장례 기간을 연장하거나 화장장 예약 불가능으로 원정 화장을 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급히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³⁾

-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2024년 2월 화장장·봉안당·자연장지·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 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밝힘

3) ‘상조장례뉴스 (https://www.s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08)’ 참고

-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2023년 12월 화장장을 포함한 광역 장사시설 사업부지를 최종 선정한 데 이어 기본구상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함
-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2024년 1월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이후 2026년 4월 화장장 부지를 확정함 (신청 지역주민 가구의 70% 이상 동의 조건)
- 지자체의 경우, 장기적 인구감소와 단기적(향후 20~30년) 사망자 수 증가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장사시설의 용량 및 입지 등에 대한 적절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지자체별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입지 선정, 토지 수용과 보상, 주민 설득, 예산 확보 등의 과정으로 인해 최종 건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해야 함

그림 2-6 | 수도권 장사시설(화장장) 수용가능 공간·기능 부족 현상



〈자료〉 'Btv news' (<https://news.skb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266>)에서 캡처

3. 장사시설의 현대화·공원화

□ 친자연적·수요자중심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로의 변화

- 장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 복지를 위한 도시 내 필수 기반시설 또는 공공공간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근 지자체별로 기존 장사시설의 현대화·공원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가용부지를 찾기 힘든 수도권 도시들에서는 지속가능한 장사시설로의 장례문화 변화에 대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공원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함
 - 최근 장사시설의 공간(위치·동선·경관 등) 및 기능을 적절히 계획하면 도시 내에서 추모·휴식이 공존하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토지 부족 및 고층화된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에 수직형 납골당을 배치하는 ‘스마트 콜럼바리움(Smart Columbarium)’ 개념이 확산됨
- 고양시의 경우, 공설·공동묘지 신규 매장을 전면 금지하고 개장지원금 지급을 통해 점진적으로 묘지의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장사시설의 공원화·현대화를 추진함⁴⁾
 - 2021년 10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이후,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를 개장(改葬)하여 타 장사시설로 이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 유족들에게 분묘 1기당 40만 원의 개장지원금을 지급함
 - 개장지원금 지급은 관내 12개 공설·공동묘지의 개장 분묘를 대상으로 함
 - ※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 내유동·성석동 공설묘지 및 효자동·화전동·성사동·식사동·도내동·행주외동·강매동·지영동·벽제동·내유동 공동묘지

4) ‘고양특례시 뉴스포털 (https://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90&q_estnColumn1=All&q_bbscttSn=20220902144836419)’ 참고

제3장 장사시설 공원화 사례 분석

제1절 공원화 조성 사례

제2절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제3절 공원화 관련 지원 사업

제1절 공원화 조성 사례

공원형 장사시설	• 기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현대화·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 • 공원형·정원형·수목형 복합장사문화시설을 구축한 사례
자연치유·문화공간	• 산림 등 자연환경을 활용해 수목원·식물원·정원, 추모공간 등을 조성한 사례 ※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시 참고 및 적용 가능한 사례

1. 공원형 장사시설

1) 국내

(1) 은하수공원

- 은하수공원은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 등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임
-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의 수립을 기반으로, 은하수공원을 도심 속 공원형 장사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민공원화 사업이 추진됨
 - 2010년 개장 이후 화장 문화의 확산, 자연장법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등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2017년 시설 현대화 및 기능 재정비 등을 포함한 시민공원화 사업 계획을 수립함
 - 은하수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11만평의 넓은 녹지공간은 시민들의 문화·전시 및 각종 행사 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함
-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을 통해 산책로, 잔디광장, 쉼터 등 개방형 녹지공간을 확충함
 - 은하수공원 반경 2km 이내에 40여 개의 아파트 단지과 초등학교 5개소 등이 입지하는 등 세종시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음에 따라, 인근 주민의 산책·휴식 등을 위한 공원 공간으로 활용됨

- 어린이 대상 친환경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사진 공모전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시민의 일상적 휴식·여가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함

표 3-1 | 은하수공원 개요·연혁·특징

은하수공원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		
면적	360,580㎡	시기	2010
운영	세종시설공단	기능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화초장) 등
연혁	• ('07.10.) 세종 은하수공원 착공 • ('10.01.) 세종 은하수공원 개장 (행복도시건설청 운영) • ('17.01.) 세종시설관리공단 운영권 이관 (직영 관리) • ('17.06.)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 • ('17.09.) 세종시 최초 도시형 수목장 개장 (미리별동산)		
특징	• 장례식장, 화장장(화장로 10기), 봉안시설(봉안당 20,034위, 봉안담 1,408위), 자연장지 등으로 구성되어 종합 장사 서비스 제공 • 도심 속 공원형 장사시설로의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및 초등학교 등 입지) • 어린이 친환경 체험 학습,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자료〉 연구자 작성

표 3-2 |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의 핵심 전략

전략	내용
은하수공원의 명칭에 걸맞는 공원 테마 선정 (“별”)	• 은하수공원 내 별을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 설치 • 공원 내 은하수터널 리모델링 (별자리 LED 설치) • 견우와 직녀 동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명명 작업 (견우문, 직녀문 등) 
기피시설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시설 명칭 변경	• 시설물 정비: 장례·장지 등과 같은 문구 변경; 안내표지판 화장장(해님의 집), 봉안당(달님의 집) 정비 ※ 수목장지(별해는 언덕), 잔디장지(바람의 언덕), 터널(가람 터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은하수 공원 이미지 홍보	• 시 축제 행사장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 연계 방문 유도(야외 활동) • 방송·매체, 홍보물(시 발행, 자체 제작) 활용 홍보

시민공원화 사업구역 내 “장례문화 홍보관” 건립 검토	• 보건복지부, 세종시, SK그룹, 장례문화진흥원 등 유관기관 협력 • 은하수공원 건립에 기여한 SK그룹 연계 사회공헌 사업 추진
시민공원에 걸맞는 다양한 아이템 개발 및 테마공원 조성	• 계절별 꽃 테마 공원 조성; 전기차 운행 및 축제(루미나리에) 기획; - 여름철 물놀이 시설; 각종 전시·행사 및 음악회 개최 등

〈자료〉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 (세종시설공단, 2017)’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표 3-3 |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중 ‘공원 조경 및 환경개선 사업’ 세부 계획

사업	내용
시민공원 조경 개선 종합계획 추진	• 기간 : 2017년 6-10월 • 장소 : 은하수공원 시민공원 예정지 일원 • 주요 내용 - 계절별 꽃 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장미터널 조성 - 무궁화 탐방길 조성 - 자연연못 연꽃 식재 - 야생화 군락지 조성 - 청보리 군락지 조성
은하수공원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기간 : 2017년 6월-10월 • 장소 : 은하수공원 시민공원 예정지 일원 • 주요 내용 - 시민공원 예정지 내 피양처 추가 설치 - 시민공원 내 포토존, 바람개비언덕 등 체험형 관람시설 조성 - 공원 순환 전기차(버스) 도입 - 시민공원 예정지 내 장사시설 표시 안내판 정비 - 푸트트랙 등 시민공원화 사업 관련 민간협업 Zone 설정 및 정비

〈자료〉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 (세종시설공단, 2017)’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그림 3-1 | 은하수공원 조감도



〈자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113174200063>)’에서 발췌

그림 3-2 | 은하수공원 전경



〈자료〉 ‘은하수공원 (<https://www.sjfmco.or.kr/eunhasu.do>)’에서 발췌

그림 3-3 |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도(안)



〈자료〉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 (세종시설공단, 2017)’에서 발췌

(2) 인천가족공원

- 인천가족공원은 승화원, 봉안시설(묘지 포함), 장사문화홍보관 등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종합장사시설임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005~2034)’을 통해 193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화장·봉안시설을 포함한 현대적 종합장사시설이자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전환함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대규모 장사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의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됨
 - 총 3단계에 걸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통해 분묘개장(이장)·화장을 유도함으로써, 묘지난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봉안당·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정원장), 산분장 등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변 무허가 건물 철거, 생태하천·자연학습장·분수대·산책로·가로공원 등의 설치를 진행함

표 3-4 | 인천가족공원 개요·연혁·특징

인천가족공원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면적	1,497,148㎡	시기	1977
운영	인천시설공단	기능	승화원, 장사문화홍보관, 봉안시설(봉안당·봉안담·자연장·묘지) 등
연혁	• (1934.) 공동묘지 형태로 자연적으로 조성 • (1971.06.) 묘지공원 결정 고시 (건설부 고시 제356호) • (1977.) 부평 시립승화원 현 위치로 이전 • (‘00.07.) 현대식 화장장 신축 착공 • (‘02.10.) 구화장장 철거; 신축 화장로 가동 • (‘03.01.) 신축 화장장 및 추모의 집 준공 • (‘06.01.) 부평묘지공원 명칭 변경 (⇒ 인천가족공원) • (‘07.12.) 완공 화장로 현대화 1단계 사업추진 • (‘08.01.) 착공 화장로 현대화 2단계 사업추진 • (‘11.04.) 승화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 • (‘16.09.) 2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봉안담, 외국인묘역 등) • (‘19.10.) 3-1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별빛당, 카페 등) • (‘21.06.) 3-1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수목장, 잔디장 등)		
특징	• 승화원(화장로 20기), 봉안시설(봉안당 145,147기, 봉안담 20,300기, 자연장 22,055기, 묘지 35,734기) 등으로 구성되어 종합 장사 서비스 제공 • 3단계에 걸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05~’34년) 진행 (현재 3-2단계 추진 중) - 장사시설(봉안당·자연장지 등) 설치, 산림복원 등		

〈자료〉 연구자 작성

표 3-5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단계	조성기간	조성액	조성규모	주요 장사시설	비고
1단계	2005~2016 (장사시설 2010 준공)	678억	199,741㎡	봉안당 30천기, 세월호 추모관	완료
2단계	2011~2016	521억	180,148㎡	봉안당·담 55천기, 자연장지 5천기	완료
3단계	3-1	2016~2024	497억	봉안당 35천기, 자연장지 14천기	완료
	3-2	2020~2028	473억	봉안당 23천기, 자연장지 2.4천기	추진중
	3-3	2025~2028	426억	9,400㎡ (봉안당 연면적)	추진중
	3-4·5	2025~2034	2,415억	봉안당 40천기, 자연장지 80천기, 산분장 40천㎡	추진중

〈자료〉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현황 (2025.10. 기준)’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그림 3-4 | 인천가족공원 조감도



〈자료〉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에서 발췌

(3) 망우역사문화공원

-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서울 중랑구 망우산 자락에 위치한 묘지공원으로, 근현대 인물들의 묘역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역사·문화·생태공간임
 - 유관순 열사, 소파 방정환, 만해 한용운 등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애국지사 및 문화예술·정치 분야 주요 인물들의 묘역이 집적되어 있어 역사·문화적 장소로서의 가치를 지님
-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경성부에 의해 망우리공동묘지(당시 양주군 망우리 임야)로 조성되어 40여 년 동안 묘지로 사용되다가 1973년 만장으로 신규 매장이 금지되었으며,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역사문화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됨
 - 2013년, 서울 미래유산의 시민생활·도시관리·정치역사·산업노동·문화예술의 5개의 분야 중 시민생활 부문에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선정됨
 - 선정 사유: 서울시 관할구역 내의 유일한 공동묘지형 공원묘원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활동했던 저명한 인사들의 묘를 살펴볼 수 있는 산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가치가 높음
 - 기존 망우리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전환·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표적으로 ‘망우묘지공원 인문학 길(現 사색의 길) 조성’, ‘망우역사문화관(現 중랑망우공간) 조성’ 등을 추진함
 - ‘망우묘지공원 인문학 길 조성’의 경우, 유명인사 묘역 정비와 함께 망우리공원 내 기존 둘레길을 정비함
 - ‘망우역사문화관 조성’의 경우, 망우리공원 방문객을 위한 전시 및 휴식공간을 마련함

표 3-6 | 망우역사문화공원 개요·연혁·특징

망우역사문화공원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91길 2		
면적	1,762,000㎡	시기	1933
운영	중랑구	기능	사색의 길, 중랑망우공간, 망우카페, 기획전시실 등
연혁	• (1933.) 서울 내 공동묘지 터가 부족해지자 일제강점기 경성부는 망우리공동묘지 조성 • (1973.) 묘지 만장으로 신규매장 금지 (당시 분묘 4만7천여 기) • (1977.) “망우리공동묘지”에서 “망우묘지공원”으로 명칭 변경 • (1997.) 독립운동가·문학인 등 15인의 위인 묘 주변에 추모비 조성 • (1998.) “망우묘지공원”에서 “망우리공원”으로 명칭 변경 • (‘13.)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인정) • (‘16.) ‘망우리 인문학길 사잇길’ 2개 코스 조성 • (‘21.)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재출범 (역사·문화·추모·휴식 기능 통합)		

	• ('22.04.) 복합문화공간 '중랑망우공간' 개관 • ('22.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4-'25.) '망우역사문화공원 감성쉼터(망우문화마당) 조성사업' 설계 및 완공
특징	• 유관순, 방정환 등 근·현대사 위인 80여 명 포함 약 7천기의 묘역 보존 • 묘지공원을 역사·문화·추모·휴식 기능이 통합된 생활밀착형 공원 공간으로 전환

〈자료〉 연구자 작성

표 3-7 | 망우리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화 세부사업 개요 (2017년 기준)

사업명	주요 내용
망우리공원 인문학 길 조성	• 유명인사 묘역 정비 • 망우리공원 내 기존 둘레길 정비 (인문학 길 2코스, 8km) - A코스 (유명인사 묘역 중심, 4.5km) : 유명인사 묘역 정비 (254개소); 진입광장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각 1개소); 화초원단지 조성 (2.2km); 방송(음향)시설 (1개소) 등 - B코스 (경관 중심 탐방로, 3.5km) : 진입구간 트레일헤드 (2개소); 테마의 숲 (3개소); 야생화단지 (2개소); 경관 휴게소 (2개소); 전망대 (2개소); 흙막이; 돌계단; 수로정비 등 ※ 사업 기간 : 2025.12-2026.12 ※ 사업 금액 : 10억5,814만원
망우리공원 관리소부지 망우역사문화관 조성	• 망우리공원 방문객을 위한 전시공간 및 휴식공간 마련 - 총 면적 : 3,543㎡ (진입구간 2,000㎡ 별도) - 건축면적 : 2,136㎡ - 주차계획 : 73대 (옥외 30대, 옥내 43대) - 총 사업비 : 85억 원 (전시컨텐츠 15억, 조성 및 설계 65억) - 주요내용 : 통합 역사문화관 조성 (전시·기념·교육 등); 랜드마크적 웰컴 진입 공간 및 연결로 웰컴마당 조성 (주차장·휴게·공연 등) ※ 2022년, '중랑망우공간' 개관
망우묘지공원 명칭 개정	• 망우리공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명칭 개정 - 시민 공모 ('16.09.01-30) : 온라인 626건 접수 - 1차 심사 ('16.10.12) : 위원회 구성하여 15건 선정 - 시민 선호도 조사 ('16.10.13-19) : 앱 또는 홈페이지 통한 조사 - 2차 심사 ('16.10.27) : 8명의 위원들이 1차 심사된 15건 중 6건 선정 - 중랑구 지명위원회 명칭 선정안 제출 안내 ('16.11.09) ⇒ 중랑구 선정 명칭을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자료에 반영 - 2016년 제2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16.12.20 심의) ⇒ 서울시 선정 명칭을 1안, 중랑구 선정 명칭을 2안으로 제출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의뢰 ('17.02, 국토지리정보원) ⇒ 국가지명위원회 의결·고시 및 홍보, 공부 정리 ('17.04월)
망우리공원 사색의 길 가로등 설치	• 망우리공원 사색의 길 야간 이용 시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 위치 : 망우리공원 사색의 길 2km - 사업기간 : 2017.01-12 (3월 공사시행 예정) - 사업예산 : 3억 원 - 사업내용 : 전통적 테마 등주 48개, 분전반 2면, 케이블 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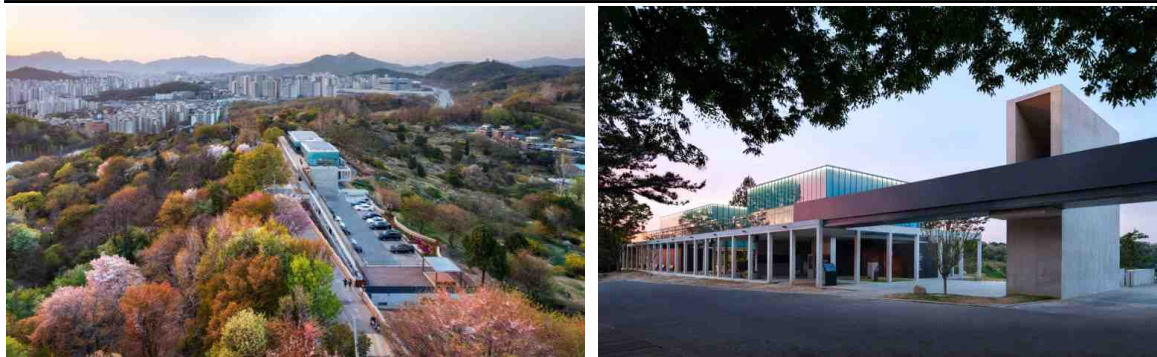
〈자료〉 'https://blog.naver.com/sk4129/220929456097'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그림 3-8 | 망우역사문화공원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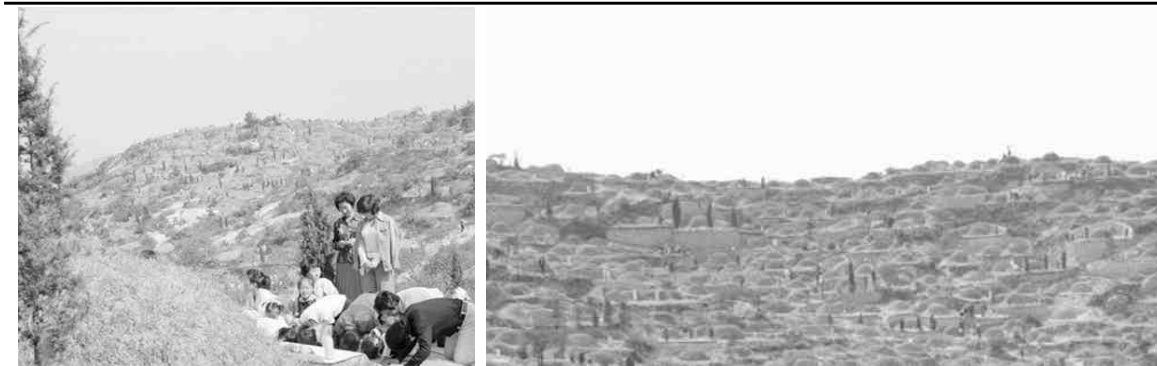
〈자료〉 ‘망우역사문화공원’ (<https://manguripark.or.kr/index.php>)에서 발췌

그림 3-9 | 망우역사문화공원 전경



〈자료〉 ‘망우역사문화공원’ (<https://manguripark.or.kr/index.php>)에서 발췌

그림 3-10 | 망우리공동묘지(망우묘지공원) 전경



〈자료〉 ‘망우역사문화공원’ (<https://manguripark.or.kr/index.php>)에서 발췌

(4) 국립하늘숲추모원

-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산림청에서 삼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한 대규모 국립 수목장림으로 삼림 복지기능을 결합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지’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산림복지시설’로 정의됨
 -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함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림 등)
 - ※ 수목장림이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정신에 근거하여 화장한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산림을 말함
 -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로,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등이 해당함
- 수목장림을 중심으로 야영장, 생태습지, 홍보관 등 체험·휴양 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추모객과 일반 방문객 모두를 위한 휴식·문화 공간으로 기능함
 - 수목장림은 총 15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추모목의 유형 및 등급을 선택 가능함
 - ※ 2020년 4월 기준, 추모목 중 84%에 해당하는 5,300여 건이 분양 완료됨
 - ※ 수목장림 내 제단이나 비석 등 추모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제례는 정해진 장소(추모광장의 합동 분양소)에서만 가능함

표 3-8 | 국립하늘숲추모원 개요·연혁·특징

국립하늘숲추모원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양서동로 372		
면적	550,000㎡ (수목장림 480,000㎡; 야영장 36,000㎡ 등)	시기	2009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하)	기능	수목장림, 추모광장, 만남의광장, 야영장 등
연혁	• (‘07-’09.) 국립하늘숲추모원 조성사업 진행 • (‘09.05.) 국립하늘숲추모원 개원 • (‘16.12.) 국립하늘숲추모원 운영·관리 주체 변경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17.05.) ‘제1회 국립하늘숲추모원 캠핑페스티벌’ 개최 • (‘17.04-06.) 국립하늘숲추모원 공원화사업 진행 • (‘18.04-11.) 국립하늘숲추모원 환경개선 및 복원사업		
특징	• 대한민국 1호 대규모 국립 수목장림 (평균 19도의 완만한 경사) • 소나무·잣나무·참나무류 등 6,315본의 추모목(가족목 또는 공동목) 보유 • 지역(양동면 계정3리) 주민들이 야영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야영장 수익금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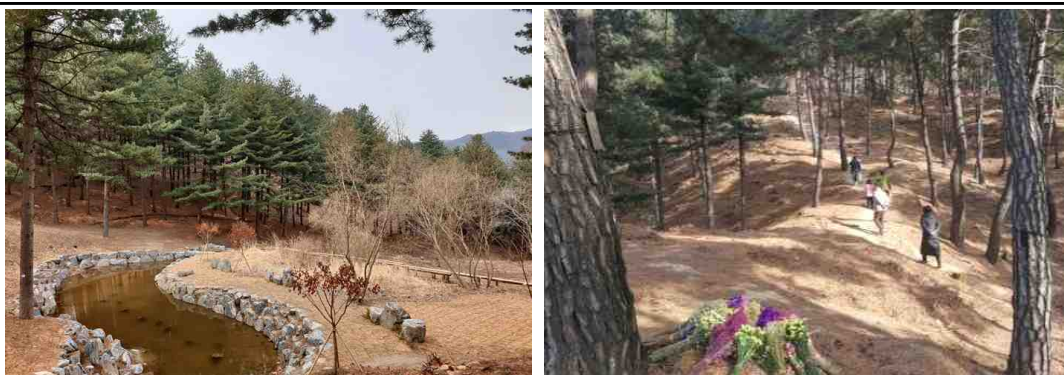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11 | 국립하늘숲추모원 안내도 및 구역도



〈자료〉 ‘국립하늘숲추모원’ (<https://sky.fowi.or.kr>)에서 발췌

그림 3-12 | 국립하늘숲추모원 전경



〈자료〉 ‘국립하늘숲추모원’ (<https://sky.fowi.or.kr>)에서 발췌

(5) 국립기억의숲

- 국립기억의숲은 장례문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수목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산림청에서 국립하늘숲추모원에 이어 국내 2호로 조성한 대규모 국립 수목장임
 - 국립하늘숲추모원과 동일하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지’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산림복지시설’로 규정됨
- 수목장림은 총 12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약 39,040위를 수용 가능함
 - 추모목은 약 3,950그루로, 주요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굴참·졸참나무, 산벚나무 등임

표 3-9 | 국립기억의숲 개요·연혁·특징

국립기억의숲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755-136		
면적	290,000㎡	시기	2022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하)	기능	수목장림, 추모광장, 안내센터, 공동 편의시설 등
연혁	• ('18.04.) 국립기억의숲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산림청) • ('18.08.) 국립기억의숲 대상지로 보령시 선정 • ('20-'21.) 국립기억의숲 조성사업 추진 • ('22.10.) (재)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위탁 운영 • ('22.12.) 국립기억의숲 개장 • ('23.03.) 숲 교육 및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작 • ('23.12.) 쉼터 '기억의 정원' 조성 • ('24.01.)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작		
특징	• 대한민국 2호 대규모 국립 수목장림 • 소나무·잣나무·굴참나무 등 약 3,950그루 추모목(가족목 또는 공동목) 보유 • 숲 교육 및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13 | 국립기억의숲 조감도



〈자료〉 ‘국립기억의숲’ (<https://nfm.wbf.or.kr>)에서 발췌

그림 3-14 | 국립기억의숲 전경



〈자료〉 ‘국립기억의숲’ (<https://nfm.wbf.or.kr>)에서 발췌

2) 국외

(1)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 순례의 숲 (めぐりの森)

- 순례의 숲은 화장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본 가와구치시에 2018년 건립된 시립 화장시설로,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도요(Ito Toyo)가 '자연과의 공생'을 주제로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하여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함
- 순례의 숲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접한 위치에 조성되어 주민 주거지역과 분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환경 문제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님
- 순례의 숲은 '이이나파크 가와구치 (아카야마 역사자연공원)'와 경계 없이 연계되어 녹지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획됨
 - 순례의 숲이 위치한 '이이나파크 가와구치' 구역 내에는 실내·외 놀이공간 (ASOBooN, 대형 돔, 놀이터 등), 식당·카페·상점, 역사자연자료관, 지역특산물관 등의 공공·편의시설이 복합·조성됨

표 3-10 | 순례의 숲 개요·연혁·특징

순례의 숲			
위치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大字 新井宿 430-1		
면적	90,000㎡ (이이나파크 포함) ※ 순례의 숲 부지 면적: 7761.92㎡ ※ 순례의 숲 건물 면적: 5493.44㎡	시기	2018
운영	가와구치시	기능	화장장(화장로 10기) (+ 숲 인공호수, 실내·외 놀이공간, 식당·카페·상점, 역사자연자료관, 지역특산물관 등)
연혁	• ('13~'14.) 건축가 이토 도요의 실시설계 및 협의 진행 • ('16.01.) 기공식 및 착공 • ('18.04.) 가와구치시 순례의 숲 개원		
특징	•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도요의 설계를 기반으로 역사자연공원 구역 내에 화장시설과 공공·편의시설 및 녹지공간을 통합·연계 조성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15 | 이이나파크 가와구치 (아카야마 역사자연공원) 안내도



〈자료〉 'Kawaguchi City Official Site (<https://www.city.kawaguchi.lg.jp/soshiki/01120/035/iinakawaguchi/34754.html>)'에서 발췌

그림 3-16 | 순례의 숲 및 역사자연공원 전경



〈자료〉 '川口市めぐりの森 (www.kawaguchishi-megurinomori.jp)' 및 'Kawaguchi City Official Site (<https://www.city.kawaguchi.lg.jp/soshiki/01120/035/iinakawaguchi/34754.html>)'에서 발췌

(2) 일본 와카야마현 카이소군 -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五色台メモリアルパーク)

- 고시키다이 기념공원은 와카야마 시내에서 차로 동쪽으로 약 30분 거리, 그리고 오사카현 경계에 인접하여 자연이 풍부한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형 묘지임
- 고시키다이 기념공원은 간사이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묘지로서, 약 100,000㎡의 부지에 14개 구역, 5,000구획의 묘역이 펼쳐져 있음
 - 와카야마현의 허가 하에 공익재단법인 에터나리카(公益財団法人 エターナリカ)가 경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민영 묘원임
 - 공원묘지 전 구역이 평지 지형에 설계·조성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도 어려움 없이 참배가 가능하며, 자동차로 공원 내 이동이 가능함
 - 참배로는 전면 잔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마다 댐을 비롯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숲의 묘원(森の墓園) ‘이야기의 오솔길(語らいの小径)’을 조성하여 2,098㎡ 면적에 총 979기의 수목장 시설을 갖추
 - ‘이야기의 오솔길(語らいの小径)’은 수목장 묘소로서, ‘Key Operation Inc. / Architects (도쿄)’에서 기복 지형을 살려 섬·반도형으로 묘지를 배치하고 걸음마다 풍경이 바뀌는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설계함
 - 1단계: 2021.03 완공, 수목장 274기 조성
 - 2단계: 2022.07 완공, 수목장 추가 105기 조성
 - 3단계: 2023.10 완공, 수목장 추가 600기 및 파빌리온 조성
 - 느티나무, 참나무, 섬잣나무(Japanese white pine), 일본 단풍나무, 매화나무, 벚나무, 금목서 등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지면에는 야생화가 펼쳐져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지는 숲의 풍경을 만들어냄

표 3-11 |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개요·연혁·특징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위치	일본 와카야마현 카이소군 紀美野町 国木原 577-3		
면적	100,000㎡ (수목장 묘역 ‘기억의 정원’ : 2,098㎡)	시기	묘지경영허가(1990) 후 조성
운영	공익재단법인 エターナリカ(에터나리카)	기능	공원형 묘지, 산책로, 제례실, 휴게소, 관리사무소 등
연혁	• (1990.12.) 와카야마현 생활위생 부서로부터 정식 묘지사업 허가 승인 - 묘지경영허가(墓地経営許可) : “和歌山県指令生衛第234号 (平成2年12月6日)”		
특징	• 약 100,000㎡의 부지에 14개 구역, 5,000구획의 묘역 조성 • 2021-2023년에 걸쳐 ‘이야기의 오솔길(語らいの小径)’ 수목장 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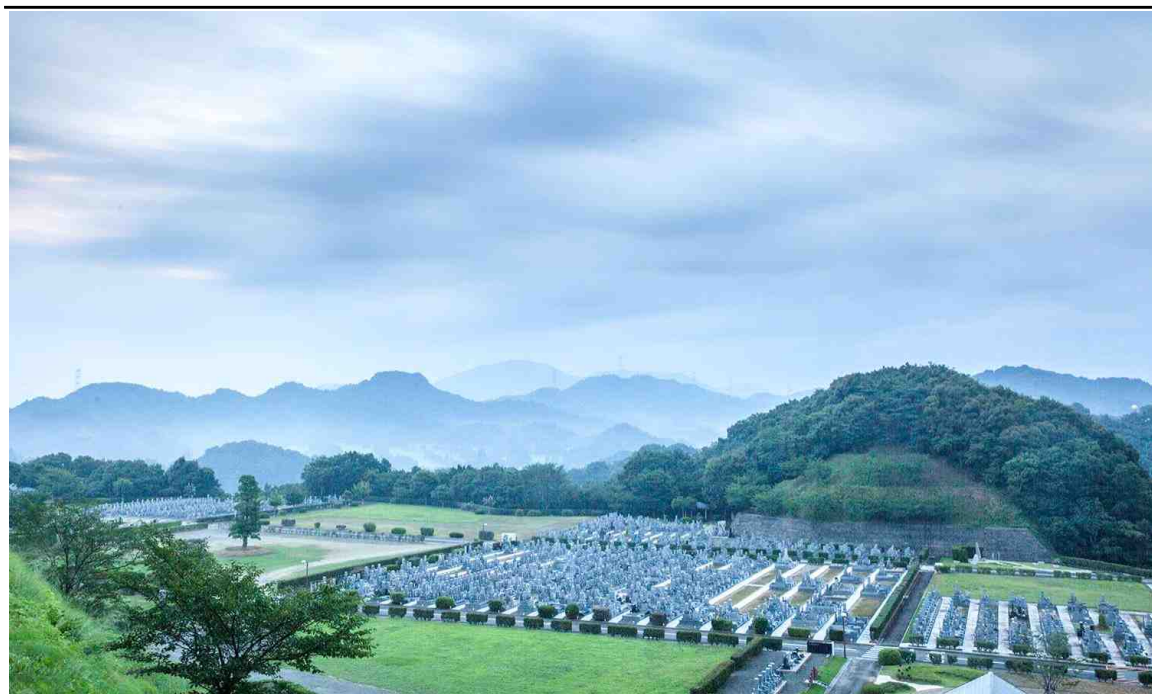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17 |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안내도



〈자료〉 ‘五色台メモリアルパーク (https://www.ohnoya.co.jp/cemetery/search_other/640gsk/cemetery.shtml)’에서 발췌

그림 3-18 |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전경



〈자료〉 ‘公益財団法人 エターナリカ (<https://www.eternalica.org/reien/goshiki/index.html>)’에서 발췌

그림 3-19 | 고시키다이 기념공원의 '이야기의 오솔길(語らいの小径)'



〈자료〉 'KEY OPERATION INC./ARCHITECTS (<https://www.keyoperation.com/en/archives/projects/goshikidaif-cemetery/>)'에서 발췌

(3) 홍콩 툰문구 -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Tsang Tsui Columbarium and Garden of Remembrance)

-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은 홍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공공 납골시설로서, 2010년대 초 납골 수요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조성됨
 -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은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에서 운영·관리하며, 도심 외곽 및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안·산골·추모 서비스를 제공함
 -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12개의 공공 납골당과 14개의 추모정원(10개의 공공 납골당에 위치)을 관리함
-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은 봉안시설, 산분지역, 기념벽, 루프탑 정원, 수변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적·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됨
 - 해안 자연경관에 순응하는 곡선형 건물 2동을 중심으로 납골·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5만 기의 유골이 안치됨
 - 연간 3,000건 이상의 산골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장례방식 지원에 따라 추모정원에서 무료로 산골이 가능함

표 3-12 |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개요·연혁·특징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위치	홍콩 툰문(Tuen Mun)구 稔灣路(Yim Wan Road) 15번지		
면적	50,000m ²	시기	2018 (시범운영) 2020 (정식개장)
운영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FEHD)	기능	납골당, 추모정원 (산분), 대기실, 안내센터 등
연혁	• ('15.) 홍콩 정부의 장기적 장묘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조성 착공 • ('20.)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정식 개장 • (-'26.)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첩추이 단지 내 2개 동 신축 공사 진행 중 - 다목적 추모 홀 (종교별 전용 영결식장 8개소, 500석 규모의 공연장) 및 추가 납골시설 (지하 3층 공간에 3만 기의 봉안함 확보 계획) ※ 홍콩 정부의 「2046 장묘 마스터플랜」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예상되는 연간 사망자 6만 명 수요에 대비		
특징	• 해안 자연경관에 순응하는 곡선형 건물 2동, 산골 기념벽, 루프탑 정원 및 수변 산책로 등 조성 • AI 기반 안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이용 현황 모니터링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20 |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위치도



〈자료〉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https://www.fehd.gov.hk/english/map/columbarium/cc_pt.html?mapID=1380&type=columbarium)'에서 발췌 후 수정·보완

그림 3-21 | 첩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전경



〈자료〉 'Archify (<https://www.archify.com/hk/photo/detail/169558>)'에서 발췌

(4)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 - 포레스트 론 (Forest Lawn)

- 포레스트 론은 1849년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형 묘지로, 19세기 미국에서 확산된 전원묘지 운동(Rural Cemetery Movement)의 대표 사례임
 - 버펄로시의 변호사였던 Charles E. Clarke는 급증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버펄로 도심에서 2.5마일 떨어진 교외의 토지를 매입한 후 포레스트 론 묘지를 조성함
- 포레스트 론은 도시 외곽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조성된 전원묘지로서, 도심의 위생문제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
 - 포레스트 론은 구릉 지형, 수목림, 호수 등 자연친화적 경관 구조를 통해 도시 녹지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함에 따라, 생태적 가치 증진과 문화유산 보존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으로 평가됨
 - 포레스트 론에는 100여 종, 3,500그루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240여 종이 넘는 새가 관찰됨
 - Clarke는 포레스트 론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조각 작품을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포레스트 론이 묘지임과 동시에 야외 조각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함
 - 포레스트 론은 건축·조각·풍경이 결합되어 있으며, 묘비와 기념비는 역사적 조형물로서 경관 요소의 일부로 기능함
 - 포레스트 론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행사, 야외 공연, 계절 축제 이벤트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됨

표 3-13 | 포레스트 론 개요·연혁·특징

포레스트 론			
위치	미국, New York, Buffalo, Delaware Avenue 1411		
면적	1,088,600㎡	시기	1849
운영	Forest Lawn Group	기능	봉안당, 기념비, 예배당, 박물관, 편의시설 등
연혁	• (1849-1900) 도심 외곽 부지 매입 후 최초의 정원형 공원묘지 조성 • (1901-1950) 포레스트 론의 기념비적 새 정문 건립 (Henry Osgood Holland 설계) • (1951-2000) 인근 묘지와의 합병 및 신규 구역 개발을 통한 확장 • (2004)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설계한 묘인 'Blue Sky Mausoleum' 완성 • (2024) 포레스트 론이 레벨 1 수목원 (Level 1 Arboretum)으로 지정 (향후 25년간 묘지 내 수목 관리를 위한 '수목 조사·분석 및 관리 계획' 수립)		
특징	• 전형적인 묘지구획이 아닌 자연지형을 따라 구성된 형태로, 현재 165,000기 이상 안치 중 • 100여 종, 3,500그루 이상의 수목 보유 및 레벨 1 수목원으로서 기능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22 | 포레스트 론 안내도



〈자료〉 'FOREST LAWN (<https://forest-lawn.com>)'에서 발췌

그림 3-23 | 포레스트 론 전경



〈자료〉 'FOREST LAWN (<https://forest-lawn.com>)'에서 발췌

그림 3-24 | 포레스트 론 구역도 (1884년경)



〈자료〉 'FOREST LAWN (<https://forest-lawn.com>)'에서 발췌

그림 3-25 | 포레스트 론의 'Blue Sky Mausoleum'



〈자료〉 'FOREST LAWN (<https://forest-lawn.com>)'에서 발췌

(5) 스웨덴 스톡홀름 - 우드랜드 공동묘지 (Skogskyrkogården, 스코그스쉬르코고르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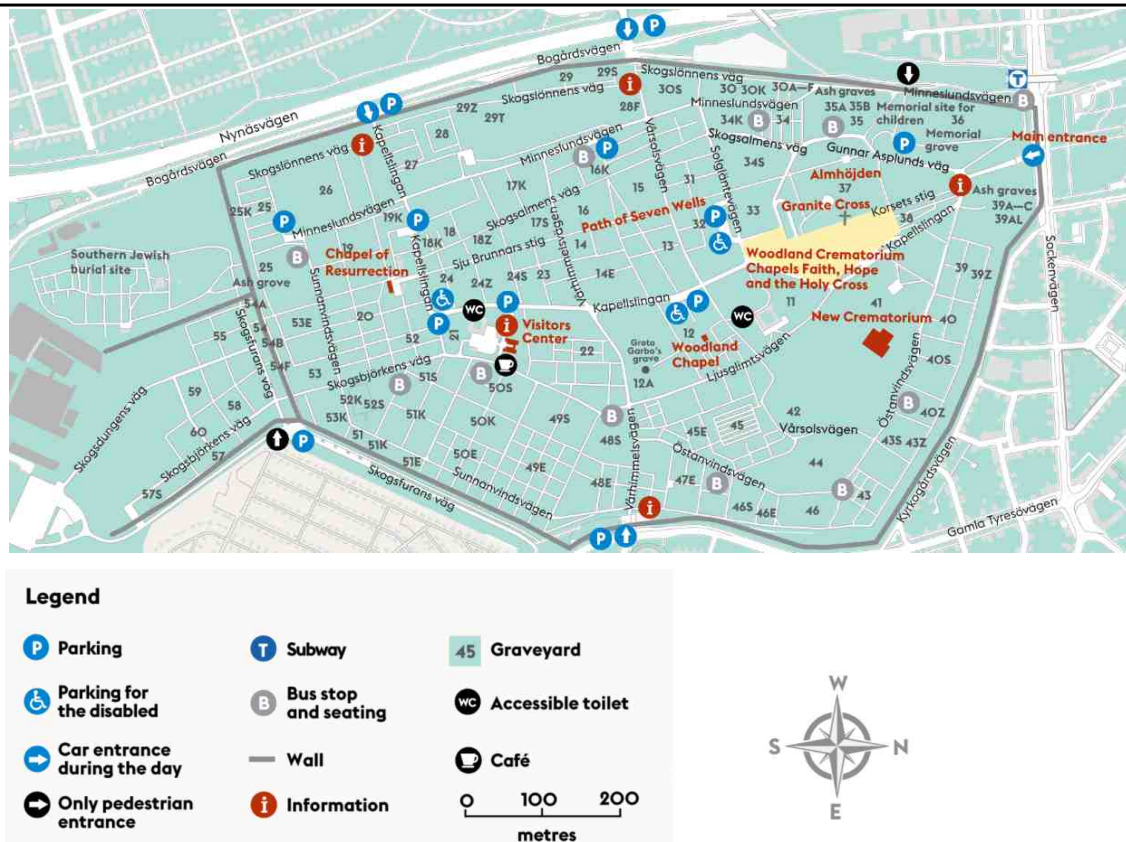
- 우드랜드 공동묘지는 1915년과 1940년 사이에 건축가 군나르 아스플룬드와 시구르드 레베렌츠에 의해 자연과 건축을 통해 생명의 전체 순환을 반영하도록 설계·조성됨
 - 1900년대 초반 스톡홀름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매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시는 기존의 Södra begravningsplatsen(남부 묘지)을 확장하기로 결정 후 새로운 구역의 설계를 위한 공모전을 공고함
- 우드랜드 공동묘지는 소나무로 우거진 옛 자갈 채석장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식생과 건축 요소를 혼합하여 부지의 불규칙성을 활용함으로써 기능에 잘 적응한 조경을 창출함
 - 조경(landscape)의 측면에서, 소나무 숲(The pine trees), 느릅나무로 덮인 언덕(Almhöjden), 기념 숲(Memorial grove), 화강암 십자가(The Granite Cross), 석조 담장(The Wall), 산책로(The Path of Seven Wells) 등으로 구성됨
 - 건물(Buildings)의 측면에서, 우드랜드 화장터(The Woodland Crematorium), 새로운 화장터(The New Crematorium), 우드랜드 예배당(The Woodland Chapel), 부활 예배당(The Chapel of Resurrection), 탈룸 파빌리온(Tallum Pavilion/Visitors Center) 등으로 구성됨

표 3-14 | 우드랜드 공동묘지 개요·연혁·특징

우드랜드 공동묘지			
위치	스웨덴, 스톡홀름, Sockenvägen		
면적	1,080,000㎡	시기	1920 (1920-1940년에 걸쳐 조성)
운영	스톡홀름시 (공공)	기능	화장장, 납골시설, 예배당, 추모숲, 산책로, 명상공간 등
연혁	• (1912) 스톡홀름시는 1895년 완공된 기존의 Södra begravningsplatsen(남부 묘지)을 확장하기로 결정 • (1914-1915) 새로운 묘지를 위한 설계 공모전 개최 ※ 당선: 군나르 아스플룬드 (Gunnar Asplund) & 시구르드 레베렌츠 (Sigurd Lewerentz) • (1917) 조경 공사 착공 • (1920) Södra begravningsplatsen은 군나르 아스플룬드가 설계한 작은 숲속 예배당(Skogskapellet)과 함께 개관 • (1921) Södra begravningsplatsen은 Skogskyrkogården(스코그스쉬르코고르덴)과 Sandsborgskyrkogården으로 분할 • (1936-1940) 대형 숲속 화장장(Woodland Crematorium) 개관 • (1961) 시구르드 레베렌츠가 설계한 추모정원(Remembrance Garden) 개관 • (199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2009-2015) 새로운 화장장이 계획·건설되어 운영 시작		
특징	• 기존 소나무 숲 지형을 보존하며 건축을 자연에 종속시킨 설계 • 삶-죽음-재생의 여정을 산책 동선으로 체험하도록 구성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26 | 우드랜드 공동묘지 안내도



〈자료〉 'Skogskyrkogården' (<https://skogskyrkogarden.stockholm/en/>)에서 발췌

그림 3-27 | 우드랜드 공동묘지 전경



〈자료〉 'Skogskyrkogården' (<https://skogskyrkogarden.stockholm/en/>)에서 발췌

(6) 독일 함부르크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Friedhof Ohlsdorf)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는 “모두를 위한 공원”을 목표로 설계된 세계 최대의 평지 공원묘지임
 - 1874년, 함부르크 시의회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당시 도심 외곽이었던 올스도르프 지역에 대규모의 새 묘지 조성을 결정함
 - 건축가 빌헬름 코르텔스(Wilhelm Cordes, 1840-1917)가 초대 관장을 맡아 38년 동안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조성 작업을 수행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경 건축가 오토 린네(Otto Linne, 1869-1937)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확장됨
 - 1877년 개장 이래 거의 140만 건의 매장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유명 인사들의 묘지를 포함해 약 256,000개의 묘지가 입지함
- 약 3,910,000㎡(약 118만 평)에 달하는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부지에 약 450종, 25,000 그루 이상의 활엽수 및 침엽수, 그리고 수만 그루의 진달래(Rhododendron)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운하·연못·분수 등의 풍부한 수계공간이 배치됨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는 장례 박물관 및 조각상·기념비 등 약 330명의 건축가·조각가들이 기여한 풍부한 예술적 자산들을 보유함
 -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800여 개의 조각상과 기념비가 공원묘지 곳곳에 배치되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됨
 - 1996년부터 공원묘지 내 작은 역사적 건물을 장례 박물관으로 활용·운영함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는 규모·기능 측면에서 도시조직 및 시민생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함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내부로 대중교통·도로망 등 일반적인 도시 인프라가 흡수·조성됨
 - 공원묘지 내부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2개 노선, 20여 개 정류장)이 운영됨
 - 공원묘지 내부로 연장 약 17km에 달하는 도로가 조성되어 자유로운 차량 이동이 가능함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는 장례 서비스 외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함
 - 공원묘지 내부에서 조깅, 자전거 타기, 조류 관찰(약 100종 서식)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콘서트나 연극 공연이 열리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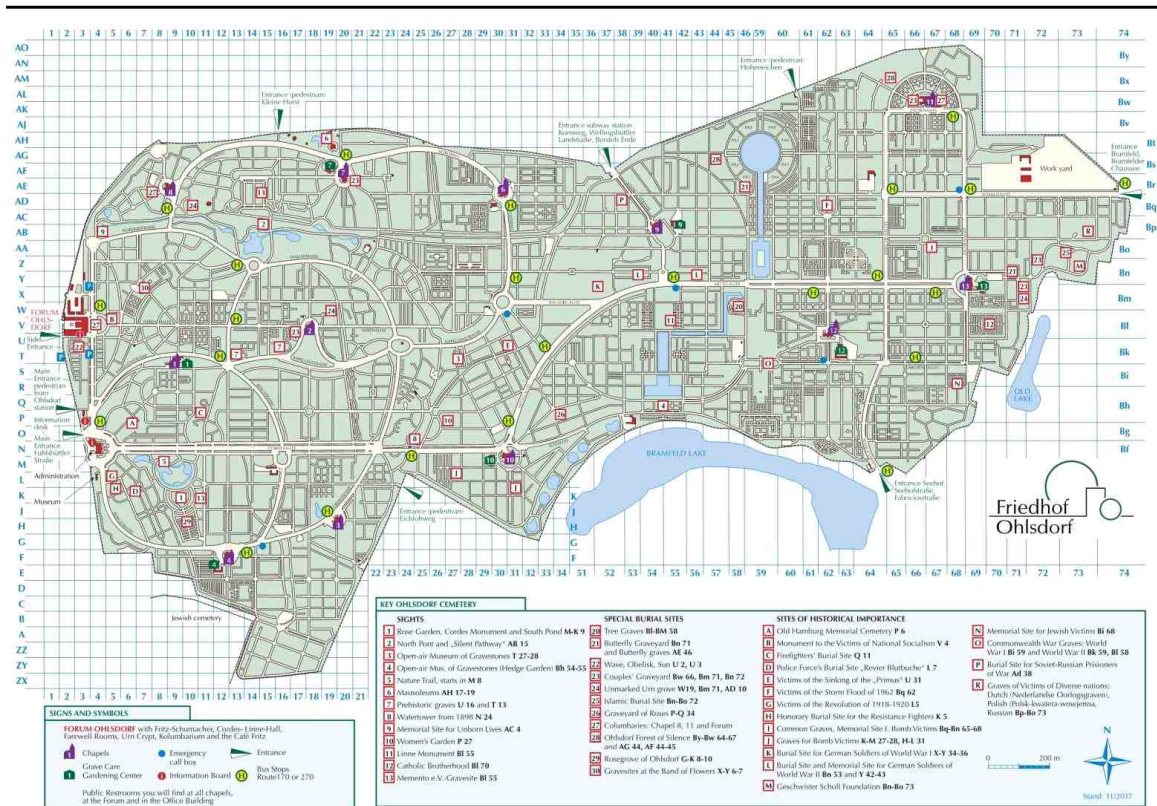
표 3-15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개요·연혁·특징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위치	독일, 함부르크, Ohlsdorf		
면적	3,910,000㎡	시기	1877
운영	함부르크시 (공공)	기능	묘지, 납골당, 예배당, 박물관, 장미정원, 조각공원, 산책로 등
연혁	• (1874) 함부르크 시의회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올스도르프 지역에 대규모 묘지 조성		

	을 결정 • (1877)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공식 개장 ※ 초대 관장이자 설계자인 빌헬름 코르델스의 주도하에 '공원형 묘지'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 (1891-1912) 공원묘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 • (1892) 함부르크 콜레라 창궐 당시 희생자들을 대거 수용 • (1900년대 초) 독일 최초의 현대적 화장장 중 하나를 건립함에 따라, 매장 중심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되는 고도보 역할 수행 • (1919) 2대 관장인 오토 린네(Otto Linne)가 취임하며 공원묘지 조성 철학 변화 • (1940-1950년대) 함부르크 대공습 희생자들을 위한 대규모 집단 묘역 조성; 나치 정권 저항군, 강제 수용소 희생자 등을 위한 기념비와 추모 구역 설치 • (1970년대) 묘지 내부로 시내버스 노선 확충 • (2000년대) 'Ohlsdorf 2050' 마스터플랜 수립 ※ 'Ohlsdorf 2050'은 매장 수요 감소에 따라 여유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순수 공원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미래형 공원묘지의 모델을 제시함 • (현재) 조류 보호구역 및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폐 예배당 문화시설 전환, 초원 피크닉·콘서트 운영
특징	• 공간구조·형태 상, 서쪽의 '곡선형 구역 (빌헬름 코르델스 설계)'과 동쪽의 '직선형 구역 (오토 린네 설계)'이 공존 • 유럽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공원묘지로, 연간 약 200만 명 방문 • 공원묘지 내 매장 수요 감소에 따라, 공원·문화시설로 점진적 전환 중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28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안내도



〈자료〉 'Hamburger Friedhöfe (<https://www.friedhof-hamburg.de/en/ohlsdorf-cemetery/service/>)'에서 발췌

그림 3-29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전경



〈자료〉 'Association of Significant Cemeteries in Europe (<https://www.significantcemeteries.org/2011/11/ohlshdorf-cemetery-hamburg-germany.html>)' 및 'Hamburg.de (<https://www.hamburg.de/tourismus/sehenswuerdigkeiten/friedhof-ohlshdorf-314168>)'에서 발췌

3) 종합

○ 공원형 장사시설 관련 11개 국·내외 주요 사례들의 개요 및 특징을 종합·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6 | 공원형 장사시설 관련 사례 종합

지역		시설명	시기	대지면적 (㎡)	시설/기능	운영	특징
국내	세종	은하수공원	2010	360,580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잔디장·수목장·화초장) 등	세종시설공단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의 수립을 기반으로, 은하수공원을 도심 속 공원형 장사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을 통해 산책로, 잔디광장, 쉼터 등 개방형 녹지 공간 확충
	인천	인천가족공원	1977	1,497,148	승화원, 장사문화홍보관, 봉안시설(봉안당·봉안담·자연장·묘지) 등	인천시설공단	- 승화원, 봉안시설(묘지 포함), 장사문화홍보관 등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종합 장사시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005~2034)’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현대적 종합장사시설이자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전환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	1933	1,762,000	사색의 길, 종량망우공간, 망우카페, 기획전시실 등	서울시 종량구	- 근현대 인물들의 묘역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역사·문화·생태 공간 1933년 망우리공동묘지로 조성되어 40여 년 동안 묘지로 사용되다가 1973년 만장으로 신규 매장 금지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역사

							문화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본격 추진
	경기 양평군	국립하늘숲추모원	2009	550,000	수목장림, 추모광장, 만남의광장, 안내센터, 야영장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산림청에서 삼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한 대규모 국립 수목장림 - 수목장림을 중심으로 야영장, 생태습지, 홍보관 등 체험·휴양 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추모객과 일반 방문객 모두를 위한 휴식·문화 공간으로 기능
	충남 보령시	국립기억의숲	2022	290,000	수목장림, 추모광장, 안내센터, 공동 편의시설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장례문화·인식의 변화에 함께 수목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산림청에서 국립하늘숲추모원에 이어 국내 2호로 조성한 대규모 국립 수목장림 - 수목장림은 총 12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약 39,040위 수용 가능
국외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순례의 숲	2018	90,000	화장장 (+ 숲·인공호수, 실내·외 놀이공간, 식당·카페·상점, 역사자연자료관, 지역특산물관 등)	가와구치시	화장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본 가와구치시에 2018년 건립된 시립 화장시설로,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도요(ito Toyo)가 '자연과의 공생'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여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일본 와카야마현 카이소군	고시키다이 기념공원	(1990년 묘지 경영 허가)	100,000	공원형 묘지, 산책로, 제례실, 휴게소, 관리사무소 등	공익재단법인 エターナリカ (에터나리카)	- 간사이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묘지로서, 약 100,000㎡의 부지에 14개 구역, 5,000구획의 묘역 위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숲의 묘원(森の墓園) '이야기의 오솔길(語らいの小径)'을 조성
	홍콩 톨문구	청추이 납골당 및 추모정원	2020 (정식개장)	50,000	납골당, 추모정원 (산분), 대기실, 안내센터 등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홍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공공 납골 시설로서, 2010년대 초 납골 수요 부족 문제

						(FEHD)	- 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조성 • 봉안시설, 산분지역, 기념벽, 루프탑 정원, 수변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적·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 AI 기반 안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이용 현황 모니터링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	포레스트 론	1849	1,088,600	봉안당, 기념비, 예배당, 박물관, 편의시설 등	Forest Lawn Group	• 1849년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형 묘지로, 19세기 미국에서 확산된 전원묘지 운동(Rural Cemetery Movement)의 대표 사례 • 도시 외곽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조성된 전원묘지로서, 도심의 위생문제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
	스웨덴 스톡홀름	우드랜드 공동묘지	1920	1,080,000	화장장, 납골시설, 예배당, 추모숲, 산책로, 명상공간 등	스톡홀름시	• 1915년과 1940년 사이에 건축가 군나르 아스플룬드와 시구르드 레베렌츠에 의해 자연과 건축을 통해 생명의 전체 순환을 반영하도록 설계·조성 • 소나무로 우거진 옛 자갈 채석장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식생과 건축 요소를 혼합하여 부지의 불규칙성을 활용함으로써 기능에 잘 적응한 조경을 창출
	독일 함부르크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1877	3,910,000	묘지, 납골당, 예배당, 박물관, 장미정원, 조각공원, 산책로 등	함부르크시	• “모두를 위한 공원”을 목표로 설계된 세계 최대의 평지 공원묘지 • 규모·기능 측면에서 도시조직 및 시민생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

〈자료〉 연구자 작성

2. 자연치유·문화공간

1) 국내

(1) 화담숲

- 화담숲은 경기도 광주시 발리봉 산기슭에 위치한 사립 수목원으로,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설립·운영함
 - ‘화담(和談)’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뜻으로,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을 지향함
 - 생태 복원의 측면에서, 산성비와 병충해로 산성화된 토양을 정화하고 자생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함
- 약 5만 평의 부지에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자작나무 숲, 이끼원 (국내 최대 규모) 등 16개의 테마원을 조성함
 - 국·내외 희귀식물 및 멸종위기식물을 포함해 4,0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함
 - 봄(철쭉), 여름(수국), 가을(단풍) 등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원앙, 반딧불이, 남생이 등 멸종 위기 동·식물의 복원 및 연구 사업을 지속 중에 있음
- 수목원 내에 약 5.3km의 전 구간이 경사가 완만한 데크길로 구성된 산책로와 순환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 역시 무장애 관광이 가능함

표 3-17 | 화담숲 개요·연혁·특징

화담숲			
위치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1		
면적	165,265㎡	시기	2013
운영	LG상록재단	기능	테마원 16개, 산책로, 모노레일,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연혁	• ('06.04.) 곤지암 생태수목원 조성 승인 및 착공 • ('13.06.) 화담숲 정식 개원 • ('17.04.) 모노레일 순환 노선 완성 • ('24.03.) 화담채(복합문화공간) 개관		
특징	• 16개의 테마원에 4,000여 종의 국·내외 자생 및 도입식물 보유 • 무장애 산책로 및 순환 모노레일 설치 •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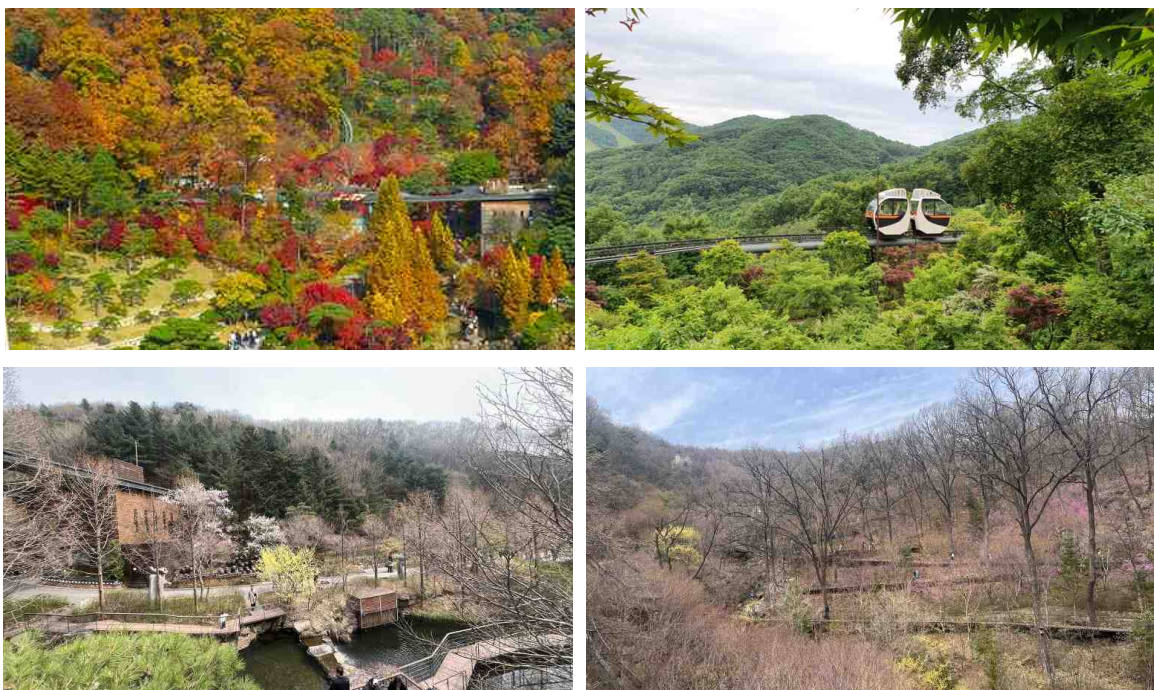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30 | 화담숲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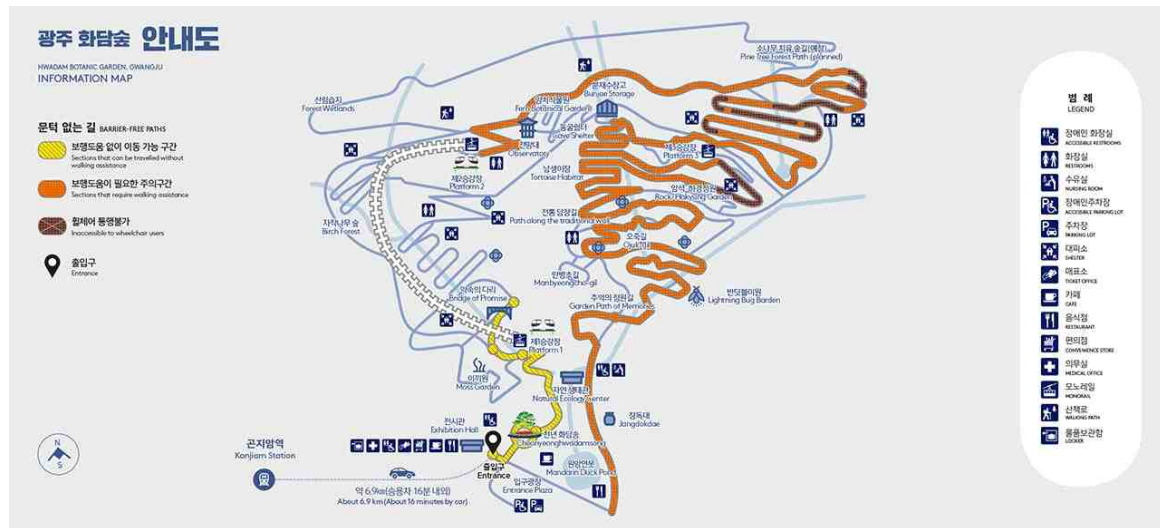
〈자료〉 '화담숲 (<https://hwadamsup.com>)'에서 발췌

그림 3-31 | 화담숲 전경



〈자료〉 '화담숲 (<https://hwadamsup.com>)' 발췌 및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3-32 | 화담숲 산책로 및 모노레일 동선



〈자료〉 ‘무장애 경기관광도시 (<https://www.ggtour.or.kr/bf/main>)’ 및 ‘화담숲 (<https://hwadamsup.com>)’에서 발췌

(2) 사유원

- 사유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사립 수목원으로, 국·내외로 소실 또는 반출 위기에 처한 모과나무 등의 희귀 고목을 보호하기 위해 TC태창 유재성 회장이 설립함
 - ‘사유(思惟, 생각하고 되짚어 봄)하는 정원’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깊은 사색과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대규모 수목원이자 건축·정원 공간임
- 약 15만 평의 산지에 수목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가 및 조경가들의 작품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음
 - 건축: 소대, 소요현, 현암, 가가빈빈, 사담(몽몽미방), 유원, 내심낙원, 명정, 첨단, 와사, 심포니 6
 - 소요현의 경우,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세계적 건축가 알바로 시자(Álvaro Siza)가 설계한 기하학적인 콘크리트 건축물로 빛과 어둠의 대비가 두드러지는 공간을 구성함
 - 명정의 경우, 한국 건축계의 거장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명상을 위한 공간으로 좁은 통로를 지나 탁 트인 수평선과 마주하게 되는 극적인 경험을 제공함
 - 정원: 풍설기천년, 별유동천, 사담(몽몽미방), 유원, 한유시경
 - 풍설기천년의 경우, 설립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3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모과나무 군락으로 사유원의 상징과도 같음
- 산책로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따라 목련길 (1시간), 백일홍길 (2시간), 모과길 (3시간), 고송길 (4시간)의 4가지 관람 추천코스를 제공함
- 식사 패키지, 티하우스, 요가·명상, 강연 등 문화·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의 다양한 경험을 유도함

표 3-18 | 사유원 개요·연혁·특징

사유원			
위치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치산호령로 1176		
면적	516,000㎡	시기	2021
운영	주식회사 사유원 (TC태창 계열사)	기능	건축 및 정원 공간, 갤러리,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연혁	• (1989.) 밀반출 위기의 모과나무 구출 • ('06.03.) 군위 현 부지 매입 • ('17.12.) 부계수목원 등록 • ('21.09.) 사유원 개장		
특징	• 건축가 승효상 및 알바로 시자, 조경가 정영선 및 카와기시 마츠노부 등 세계적 거장들과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협업 • 약 15년의 기간 동안 산을 깎지 않고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공사 진행 • 사전 예약을 통한 입장 수 제한 (미취학아동 입장 불가)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33 | 사유원 안내도



〈자료〉 '사유원 (<https://sayuwon.com>)'에서 발췌

그림 3-34 | 사유원 건축 공간 (소요현 / 명정)



〈자료〉 '사유원 (<https://sayuwon.com>)'에서 발췌

그림 3-35 | 사유원 정원 공간 (풍설기천년 / 별유동천)



〈자료〉 '사유원 (<https://sayuwon.com>)'에서 발췌

그림 3-36 | 사유원 관람 동선 (목련길 / 백일홍길 / 모과길 / 고송길)



〈자료〉 '사유원 (<https://sayuwon.com>)'에서 발췌

(3) 율곡수목원

- 율곡수목원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 자락에 위치한 파주시 최초 공립 수목원으로, 1960년대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가꾸어진 사유림을 수목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함
 - 율곡수목원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증식·전시를 위해 조성된 장소로, 인근에 율곡 이이 가문의 가업지(家業地)이자 율곡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명명함
 - ※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군사시설이 얹혀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았으나, 2011년 군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본격적인 토지 보상과 착공 준비에 들어감
- 약 10만 평의 부지에 허브원, 암석원, 침엽수원 등 21개 테마별 식물 주제원이 조성됨
 - 시민들이 기증한 15종 70그루의 나무와 함께 7백여 종 8만여 그루의 나무, 5백여 종 22만여 포기의 초본류 등 총 1,300여 종 30만여 본의 식물이 식재됨
 - 더불어 수목원 둘레길(구도 장원길)과 황톳길, 전망대, 숲속데크 등의 휴식공간을 제공함
 - 구도 장원길의 경우, 율곡 이이가 아홉 번 장원 급제했다는 전설에 착안해 조성된 5km 길이의 산책로임
- 유아 대상의 유아숲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치유숲·가족숲·엄마활력숲·실버숲·노르딕워킹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림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함
 -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군부대 병커시설을 잔디·꽃으로 덮어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시킴

표 3-19 | 율곡수목원 개요·연혁·특징

율곡수목원			
위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승배기로 392		
면적	341,500㎡	시기	2021
운영	파주시	기능	21개 테마 식물 주제원, 전망대, 황톳길,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연혁	• ('08.)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고시 (산림청 사업 최종 선정) • ('09-'10.) 기본 및 실시설계 • ('11.) 군사시설 협의 • ('13.) 율곡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 ('14.) 둘레길 및 기본 주제원 완공 • ('15.06.) 율곡수목원 임시 개원 • ('16.) 유아숲체험원 개원 • ('17-'20.) 식재 및 콘텐츠(스토리텔링 요소) 보완 • ('21.06.) 율곡수목원 정식 개원 • ('22.) 진입 도로 신설		
특징	• 산림녹화지(사유림)를 수목원으로 전환 • 21개 테마별 식물 주제원에 1,300여종 30만여 본의 식물 자원 보유 • 유아숲체험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산림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37 | 울곡수목원 안내도



〈자료〉 울곡수목원 팸플릿 스캔

그림 3-38 | 울곡수목원 전경



〈자료〉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a13192fb-d288-4229-86c1-149e731c191c) 발채 및 연구자 직접 촬영

(4) 화개정원

- 화개정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화개산에 위치한 인천 최초 지방정원으로, 화개산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됨
 - 교동대교 개통 이후 도서·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교동지역 주민들의 관광자원 개발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개산 일대에 화개정원과 화개산 전망대를 조성함
 - 화개정원은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화군이 추진한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핵심임
- 약 3만 3천 평의 부지에 물/역사·문화/추억/평화/치유를 각각의 테마로 하는 5색 테마정원을 구성하고, 강화군민이 기증한 수목을 포함하여 약 18만 본의 수목·관목·초화류를 식재함
 - 물의 정원 : 고구·난정저수지의 식생 및 경관요소를 반영한 수변정원
 - 역사·문화정원 : 화개산성, 교동읍성, 연산군 유배지 등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한 전통정원
 - 추억의 정원 : 과거 교동도의 풍경을 담은 조형물로 구성된 향수정원
 - 평화의 정원 : 북한을 마주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정원
 - 치유의 정원 : 사람에게 유용한 수목과 식물재료를 이용한 힐링정원
- 정원 내 위치한 화개산 전망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로, 북한 황해도 연백평야와 강화군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음
- 모노레일(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도 편리한 관광이 가능하며, 전통 민속놀이 체험, 스탬프 투어길 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3-20 | 화개정원 개요·연혁·특징

화개정원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58		
면적	213,251㎡ (화개정원 110,000㎡)	시기	2023
운영	강화군 화개정원사업소	기능	5색 테마정원, 화개산 전망대,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연혁	• ('14.) 교동대교 개통 (강화도 본도-교동도) • ('18.)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기획 ※ 화개산성, 교동향교, 연산군 유배지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체류형 인프라 구축 목표 • ('22.11.) 화개정원 임시 개방 • ('23.04.) 인천 최초의 지방정원 공식 등록 (산림청 기준 충족) • ('23.05.) 화개정원 정식 개원		
특징	• 5색 테마정원에 약 18만 본의 수목·관목·초화류 식재 • 전국 최대 규모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및 모노레일(입구-전망대 약 2km) 설치 •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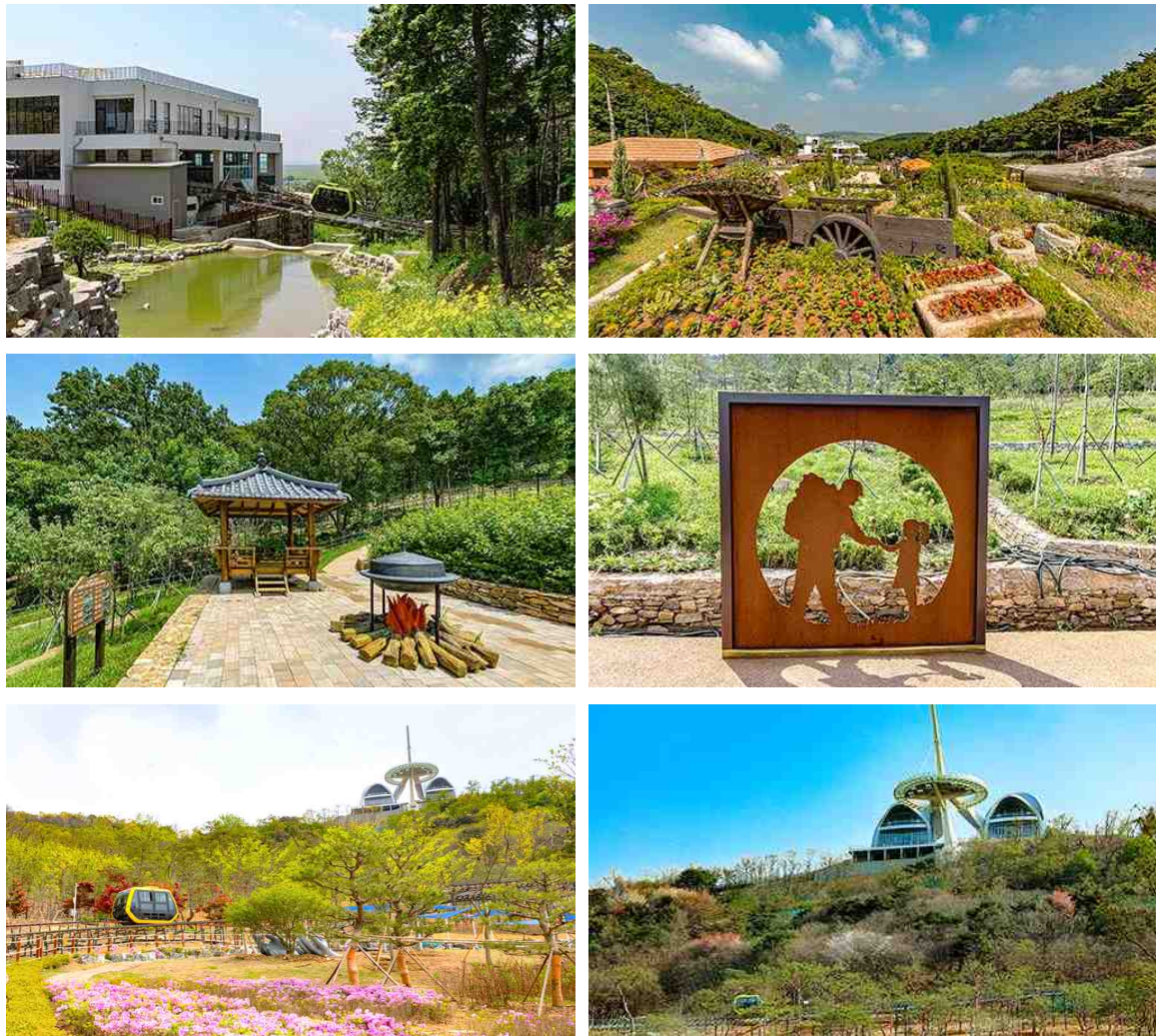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39 | 화개정원 안내도



〈자료〉 ‘화개정원 (<https://www.ganghwa.go.kr/hwagae/>)’에서 발췌

그림 3-40 | 화개정원 전경 (물의 정원 / 역사·문화정원 / 추억의 정원 / 평화의 정원 / 치유의 정원 / 전망대)



〈자료〉 ‘화개정원 (<https://www.ganghwa.go.kr/hwagae/>)’에서 발췌

(5) 제이드가든

- 제이드가든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사립 수목원으로, 자연생태 교육장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설립함
 -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이라는 테마에 맞춰 이국적인 수목원으로 조성함
 - 수목원 입구에 위치한 이탈리아 투스카나 양식의 방문객 센터, 다양한 식물을 자유롭게 식재한 영국식 보더가든, 아름다운 분수와 식물의 정형미가 돋보이는 이탈리아안 웨딩가든 등 수목원 곳곳에서 유럽 감성의 공간 체험이 가능함
- 약 5만 평의 부지에 자연 지형을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한 채로 24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함
 - 인위적으로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기보다 원래 있던 계곡 지형과 숲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산책로를 조성함
 - 수목원이 길쭉한 곡선 형태로 위를 향해 뻗어 있는 구조를 형성함
 - 4,0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원추리·만병초 등 고산식물과 특정 품종의 식물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연구를 수행함
- 수목원 내 정상에 해당하는 ‘스카이가든’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따라 숲속바람길 (1.0km, 편도 60분), 나무내음길 (800m, 편도 40분), 단풍나무길 (900m, 편도 50분)의 3가지 산책로 코스를 제공함
 - 숲속바람길의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경로이며, 나무내음길은 일부 유모차·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구간이 있고, 단풍나무길은 유모차·휠체어의 진입이 어려움

표 3-21 | 제이드가든 개요·연혁·특징

제이드가든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면적	163,500㎡	시기	2011
운영	한화솔루션	기능	24개의 테마정원, 산책로,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연혁	• ('11.07.) 제이드가든 정식 개장 • ('21.) 식물자원 보유 수 확대 (약 2,600여 종 → 약 4,000여 종) • ('22.04.) 운영 주체 변경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한화솔루션)		
특징	• 본래의 자연 지형을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한 채 수목원 조성 • 24개의 테마정원에 4,000여 종의 식물 보유 • 가드닝 강좌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41 | 제이드가든 안내도



〈자료〉 ‘월간가드닝 (<https://www.gardening.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183>)’에서 발췌

그림 3-42 | 제이드가든 전경



〈자료〉 ‘제이드가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adegarden.kr/>)’에서 발췌

(6) 아침고요수목원

- 아침고요수목원은 경기도 가평군 축령산에 위치한 사립 수목원으로, 한상경 교수(삼육대학교 원예학과)가 한국의 미를 담은 정원을 만들고자 설립·운영함
 - 아침고요수목원의 명칭은 인도 시인 타고르가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예찬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 명명함
- 약 10만 평의 부지에 하경정원, 비밀의정원, 아침광장, 하늘길, 분재정원, 한국정원 등 22여 개의 특색 있는 주제정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5,0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함
 - 하경정원의 경우, 대한민국 지도를 꽃으로 형상화하여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음
- 겨울 빛 축제 ‘오색별빛정원전’을 포함하여 사계절 내내 수목원의 정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행사 등을 즐길 수 있음
 - 봄(튤립, 벚꽃, 철쭉 등), 여름(수국, 무궁화 등), 가을(핑크몰리, 단풍 등), 겨울(빛 축제) 각 계절에 맞춰 축제를 개최·운영함

표 3-22 | 아침고요수목원 개요·연혁·특징

아침고요수목원			
위치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면적	330,000㎡	시기	1996
운영	(주)아침고요수목원	기능	주제정원 22여 개, 실내 전시시설 4곳,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연혁	• (1994.) 경기도 가평에 10만평 부지 매입 및 평탄화 작업 • (1996.05.) 아침고요수목원 개원 (10개의 주제정원) • (1997~2006.) 초기 정원 정비 및 새 주제정원 조성 • ('07.) 겨울 빛 축제 ‘오색별빛정원전’ 시작 • ('08~'14.) 지속적 정원 정비 및 주제정원 추가 조성 • ('15~현재) 계절별 축제 및 전시·행사 진행		
특징	• 22여 개의 주제정원에 5,000여 종의 식물 보유 • 계절별 축제 및 전시·행사 개최·운영 • 식물원과 약 1km 거리에 아침고요가족동물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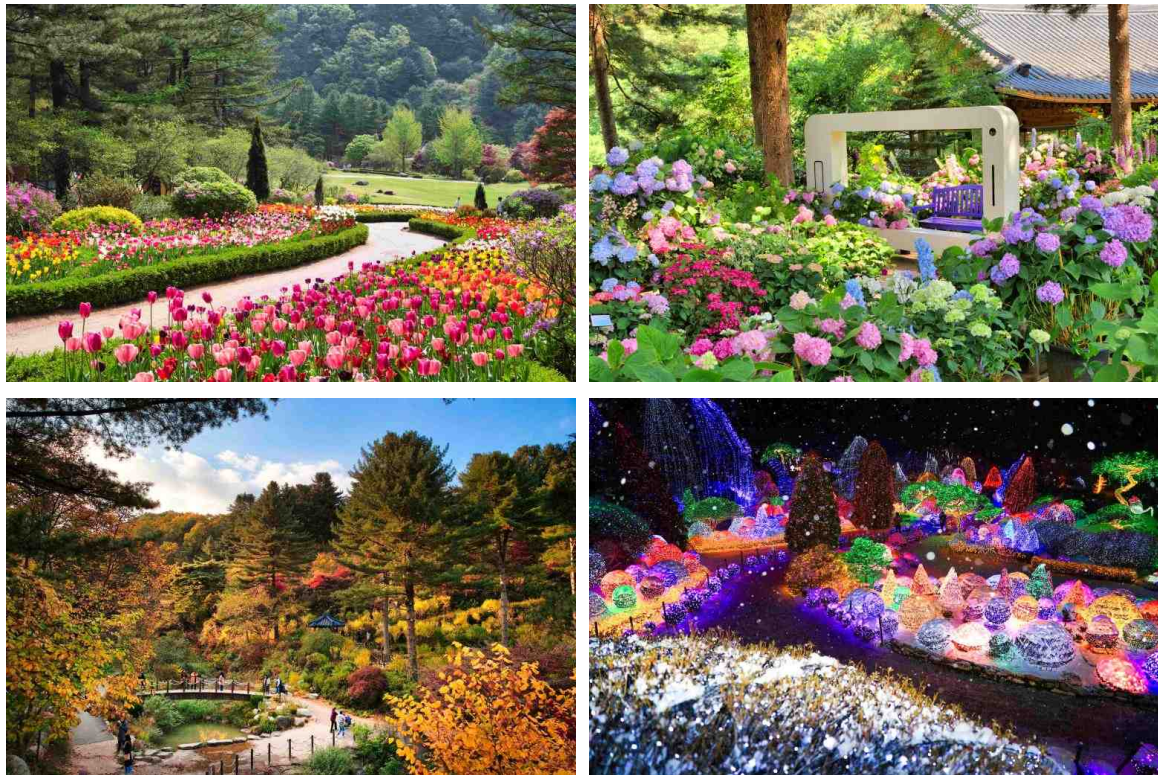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43 | 아침고요수목원 안내도



〈자료〉 '아침고요수목원 (<https://www.morningcalm.co.kr>)'에서 발췌

그림 3-44 | 아침고요수목원 전경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자료〉 '아침고요수목원 (<https://www.morningcalm.co.kr>)'에서 발췌

(7) 천리포수목원

- 천리포수목원은 충청남도 태안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사립 수목원으로, 미국 출생이지만 한국으로 귀화하여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고(故) 민병갈(Carl Ferris Miller) 박사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민간 수목원임
 - 천리포수목원은 식물 수집·보전·연구 중심으로 관리되어 오랜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가, 설립자 사후인 2009년부터 일부 구역(밀러가든)이 일반인에게 공개됨
- 약 18만 평의 부지에 본원에 해당하는 밀러가든과 에코힐링센터, 목련원, 낭새섬, 침엽수원, 종합원, 큰골 등 7개의 지역을 나누어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식물 종류들을 적절히 배치·관리함
 - 천리포수목원은 국내에서 최다 식물종을 보유한 수목원으로, 16,985 분류군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음
 - 주요 5속 식물 현황 : 목련 926 분류군, 동백나무 1,096 분류군, 호랑가시나무 566 분류군, 무궁화 386 분류군, 단풍나무 271 분류군 (2025년 12월 기준)
 - ※ 수목원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인 낭새섬까지 수목원 관리 구역으로 포함됨
- 2000년, ‘국제수목학회(IDS: International Dendrology Society)’로부터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12번째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받음

표 3-23 | 천리포수목원 개요·연혁·특징

천리포수목원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면적	590,000㎡ (밀러가든 65,000㎡)	시기	1979
운영	(재)천리포수목원	기능	7개 관리지역, 기념관, 숙박시설,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연혁	• (1962.) 천리포 해변의 1헥타르(ha) 토지 매입 • (1970.) 한국 최초의 사립수목원 조성 시작 (비공개) • (1996.) 산림청 산하 공익 재단법인 인가 • ('00.)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 최초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 • ('06.)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환경부) • ('09.) 밀러가든 일반인 공개 • ('10.) 밀러의 사색길, 목련원 일반인 공개 • ('13.)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국립수목원) • ('24.) 국가 희귀·특산 식물 보전기관 1호 지정		
특징	•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 • 국내 최다 식물종 보유 (16,985 분류군) • 밀러가든 외 지역은 식물 수집·보전·연구를 위해 대부분 출입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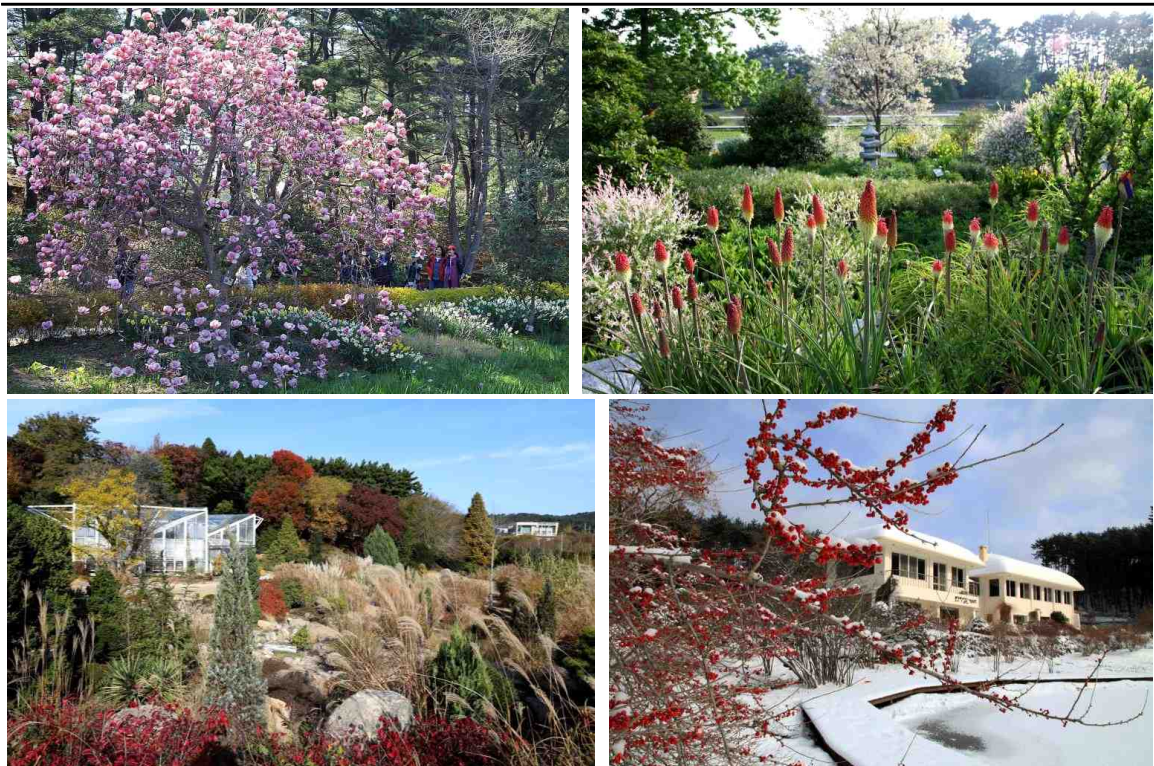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45 | 천리포수목원 밀러가든 안내도



〈자료〉 ‘천리포수목원 (<https://www.chollipo.org>)’에서 발췌

그림 3-46 | 천리포수목원 전경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자료〉 ‘천리포수목원 (<https://www.chollipo.org>)’에서 발췌

2) 국외

(1) 일본 효고현 아와지시 - 아와지유메부타이 (淡路夢舞台)

- 아와지유메부타이는 일본 효고현 아와지섬에 위치한 복합 문화·휴양 시설로,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의 '회복'과 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치유'를 상징하는 공간임
 - '유메부타이(夢舞台)'는 한국어로 '꿈의 무대'라는 뜻으로, 파괴된 자연이 건축 및 조경을 통해 치유되고 예술로 승화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음
 - 원래 해당 부지는 간사이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매립토 채취장으로 사용되어 산의 절반이 깎여 나간 폐허 상태였는데, 건축가 안도 다다오(Ando Tadao)가 지자체를 설득해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
 - 그런데 안도 다다오의 설계 도중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고베 대지진)이 발생했고 해당 부지가 지진 진원지 인근임이 밝혀짐에 따라,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를 위로하는 공간으로의 성격을 강화함
- 약 8만 5천 평의 부지에 자연지형과 건축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호텔·컨벤션, 정원·식물원, 광장·공연장, 예식장 등의 시설이 조성됨
 -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빛·물·바람 등과 같은 자연요소를 그의 상징인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 과감하게 끌어들이어 시시각각 변하는 공간을 연출하였으며, 더불어 훼손된 땅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녹화 사업을 함께 진행함
 - 백단원 (百段苑) : 산의 경사면을 따라 100개의 정사각형 화단이 계단식으로 배열된 정원(세계의 국화 식재)으로, 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거대한 헌화”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방문객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자 추모의 과정이 되도록 설계됨
 - 조개의 해변 (貝の浜) : 단지 내 조성된 수(水) 공간으로, 얇은 수조 바닥에는 100만 개의 가리비 껍데기가 깔려 있어 물소리와 빛의 반사를 극대화함
 - ※ 가리비 껍데기는 홋카이도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버려지고 있던 것을 재활용함
 - 바다의 교회 (海の教会) : 한 변이 9m인 정육면체 콘크리트 건물로 주로 웨딩 채플로 사용되며, 천장의 십자가 모양 틈새로 쏟아지는 자연광을 통해 정면 벽에 빛의 십자가를 형상화함
- 아와지유메부타이는 인근에 위치한 '아와지섬 국영 아카시해협 공원(淡路島国営明石海峡公園)' 및 '효고현립 아와지섬 공원(兵庫県立淡路島公園)'과 함께 '아와지섬 국제공원도시(淡路島国際公園都市)'를 구성하는 핵심 공간임
 - '아와지섬 국제공원도시'는 일본 효고현 아와지섬 북동부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복합 도시개발 구역으로, 1990년대 수립된 '아와지 공원섬 구상(淡路公園島構想)'을 바탕으로 여러 대형 시설과 녹지를 거대한 도시 규모의 공원으로 묶어낸 프로젝트임

그림 3-48 | 아와지유메부타이 전경



〈자료〉 'AWAJI YUMEBUTAI (<https://www.yumebutai.co.jp/>)'에서 발췌

그림 3-49 | 아와지유메부타이 주요 시설 (백단원 / 조개의 해변)



〈자료〉 'AWAJI YUMEBUTAI (<https://www.yumebutai.co.jp/>)'에서 발췌

3) 종합

○ 자연치유·문화공간 관련 8개 국·내외 주요 사례들의 개요 및 특징을 종합·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5 | 자연치유·문화공간 관련 사례 종합

지역		시설명	시기	대지면적 (㎡)	시설/기능	운영	특징
국내	경기 광주시	화담숲	2013	165,265	테마원 16개, 산책로, 모노레일, 식음 및 편의시설 등	LG상록재단	•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사립 수목원 • 약 5만 평의 부지에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자작나무 숲, 이끼원 등 16개의 테마원 조성 • 수목원 내에 약 5.3km의 전 구간이 경사가 완만한 데크길로 구성된 산책로와 순환 모노레일 설치
	대구 군위군	사유원	2021	516,000	건축 및 정원 공간, 갤러리,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주식회사 사유원	• 모과나무 등의 희귀 고목을 보호하기 위해 TC 태창 유재성 회장이 설립한 사립 수목원 • 약 15만 평의 산지에 수목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가 및 조경가들의 작품을 유기적으로 배치 • 산책로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따라 목련길, 백일홍길, 모과길, 고송길의 4가지 관람 추천코스 제공
	경기 파주시	울곡수목원	2021	341,500	21개 테마 식물 주제원, 전망대, 황톳길, 식음 및 편의시설 등	파주시	• 1960년대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가꾸어진 시유림을 새롭게 탈바꿈한 파주시 최초 공립 수목원 • 약 10만 평의 부지에 허브원, 암석원, 침엽수원 등 21개 테마별 식물 주제원 조성
	인천 강화군	화개정원	2023	213,251	5색 테마정원, 화개산 전망대, 식음 및 편의시설 등	강화군 화개정원사업소	• 화개산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인천 최초 지방정원 • 약 3만 3천 평의 부지에 물/역사·문화/추억/평

							화/치유를 각각의 테마로 하는 5색 테마정원 구성 • 정원 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및 모노레일 설치
	강원 춘천시	제이드가든	2011	163,500	24개의 테마정원, 산책로, 식음 및 편의시설 등	한화솔루션	• 자연생태 교육장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한화 호텔앤드리조트에서 설립한 사립 수목원 • 약 5만 평의 부지에 자연 지형을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한 채 24개의 테마정원 조성 • 수목원 내 '스카이가든'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따라 숲속바람길, 나무내음길, 단풍나무길의 3가지 산책로 코스 제공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1996	330,000	주제정원 22여 개, 실내 전시시설 4곳,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주)아침고요수목원	• 한상경 교수가 한국의 미를 담은 정원을 만들고자 설립·운영하는 사립 수목원 • 약 10만 평의 부지에 하경정원, 비밀의정원, 아침광장, 하늘길, 분재정원, 한국정원 등 22여 개의 특색 있는 주제정원 구성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1979	590,000	7개 관리지역, 기념관, 숙박시설, 식음 및 편의시설 등	(재)천리포수목원	• 미국 출생이지만 한국으로 귀화한 고(故) 민병갈(Carl Ferris Miller) 박사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민간 수목원 • 약 18만 평의 부지에 본원에 해당하는 밀러가든과 에코힐링센터, 목련원, 낭새섬, 침엽수원, 종합원, 큰골 등 7개의 지역 조성
국외	일본 효고현 아와지시	아와지유메부타이	2000	280,000	호텔·컨벤션, 정원·식물원, 광장·공연장, 예식장, 편의 및 상업시설 등	효고현 및 (주)아와지유메부타이	•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의 '회복'과 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치유'를 상징하는 복합 문화·휴양 시설 • 약 8만5천 평의 부지에 자연지형과 건축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호텔·컨벤션, 정원·식물원, 광장·공연장, 예식장 등의 시설 조성

〈자료〉 연구자 작성

제2절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1)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

-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비선호 시설로서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에, 장사시설의 정비 및 공원화 시 갈등을 관리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수립이 필수적임
 -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와 함께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사시설은 기피시설로서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의 대상이 됨
 - 주민 대부분은 장사시설로 인한 지역 낙후 및 이미지 저하, 보건·위생상의 위해 등을 우려하며 심리적 거부감을 드러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중앙정부는 장사시설의 신설 또는 증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은 고려되지 않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36조(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장사시설(지역지원계정) 및 봉안시설(지역자율계정, 시·도 포괄보조사업)의 설치를 지원함
 -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보조율·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짐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은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가 제정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는 '종합장사시설 설치·건립 조례' 등에 근거함
 -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며, 수혜 지역의 범위나 지원 방식을 결정함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방식에는 주민공동사업/주민숙원사업/주민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의 실시, 부대시설 운영의 우선적 사용허가 등이 포함됨

표 3-26 | 장사시설의 신설·증축 지원을 위한 근거법 및 국고보조사업

구분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함 -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국고 보조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봉안시설 설치사업은 '25년부터 시·도 포괄보조사업 '지역자율계정'으로 분리·전환됨
	2025 국고 보조 사업	(지역지원계정) 장사시설 설치사업 - 일반사항 - 화장시설 신축,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등은 각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국고보조율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자연장지 조성 등 : 70% (지역자율계정, 시·도 포괄보조사업) 봉안시설 설치사업 - 일반사항 -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각 사업별 예산지원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 - 각 사업별 예산지원금 제외항목은 본 건물에 대하여서만 지원 - 지원기준단가 및 국고보조율 - 봉안당 m²당 1,500천원, 봉안당 m²당 1,050천원 / 국비 70% - 국고보조금 집행 - 시·군·구는 국고보조금 수령 후 집행 시 국고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봉안시설 설치사업 실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자료〉 '2025년 장사(葬事)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2025)'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2)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식

(1) 주민지원기금 조성

-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지자체의 상당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 후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함
- 화장장·납골당 등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 (예, 5~15%), 기금운영 수입금 (이자 수입 등), 지자체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함

표 3-27 | 지자체별 장사(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관련 조례

지역		제정	조례명
인천광역시		2017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광역시		2018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2005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경기 (4)	성남시	2013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2010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20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왕시	2023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 (4)	동해시	2021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원주시	2016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춘천시	2014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릉시	2014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충남 (7)	공주시	2011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당진시	2025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산시	2024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천군	2019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태안군	2024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천안시	2009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산시	2015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 (4)	군산시	2010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2023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익산시	2017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정읍시	2008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3)	담양군	2017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흥군	2008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영광군	2024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북 (2)	김천시	2015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경시	2013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남 (5)	김해시	2023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양산시	2023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통영시	2022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거창군	2025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함안군	2013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자체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지원기금" 관련 사항을 담은 경우도 존재함

(2) 주민숙원사업 지원

○ 장사시설의 신설·증축 및 정비 시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을 파악한 후 이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마을숙원사업인 도로 포장, 마을회관·노인복지관·보건소 확충, 노인정 보수·확장 등 도시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함

- 일례로, 대부분의 공설·공동묘지는 인근 야산에 조성되어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기 힘든 경우가 다수이기에 묘지의 정비 시 접근로 개설·확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근 마을의 도로 포장, 상·하수도 시설 확충, 도시가스 시설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함

※ 지역사회 숙원사업 해결에 순수 장사시설의 설립에 비하여 3~5배 이상의 행·재정적 자원이 투입됨

표 3-28 | 지자체별 종합장사시설 설치·건립 관련 조례 내 주민지원 사항

지역		제정	조례명	관련 내용
경기	광주시	2024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건립지역 등 또는 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 원활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건립지역 등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음 - 건립지역 등의 주민공동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평택시	2024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 •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의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 •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대상 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경북	상주시	2020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14조(재정지원) • 종합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및 숙원사업
	영주시	2018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15조(재정지원) • 원활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건립지역의 마을발

				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경남	양산시	2022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15조(주민지원사업) • 장사시설 설치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허용허가할 수 있음 • 설치대상지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장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치대상지 연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자체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민지원" 관련 사항을 담은 경우도 존재함

(3) 주민 일자리 연계 및 소득 창출

- 장사시설의 신설·증축 및 정비 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주민지원협의체 등에게 장사시설 내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우선 위탁하거나,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자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장사시설 내 식당·매점·카페 등 편의시설, 화환 및 장구류 판매처, 또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사회 협동조합에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부대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해당 마을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활용함
 - 장사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환경 미화, 조경 관리, 경비 등 전문 인력이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 소득을 보장함
 - 특히 최근 자연친화적 장례 방식으로 권장되고 있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립의 경우, 제초 작업, 잡초 제거, 가지치기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수의 인력 투입을 요함

(4) 직접 보상 및 간접 혜택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일환으로 소득 보조 등의 직접 보상 또는 사용료 면제 등의 간접 혜택을 제공하기도 함
 - 주민지원의 제한적 방식이긴 하지만, 난방비·건강검진비 등 가구별 소득 보조 성격으로 지원하거나 공동체에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을 위한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함
 -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장사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해 주거나, 장사시설 예약 시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제공함

2.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1) 서울추모공원

□ 개요 및 현황

- 서울추모공원은 서울시에 두 번째로 조성된 시립 화장시설로서, 한강 이남 지역의 화장시설 확보를 위해 1998년 ‘서울시 제2화장시설 건립계획’ 발표 이후 2001년 서초구 원지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 ※ 서울시의 첫 번째 화장시설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임 (1970년, 서울 홍제동에서 경기 고양시로 이전)
- 서울추모공원은 공공 갈등의 관리 과정을 거치며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10여 년이 넘게 소요됨
 - 서초구청 및 지역주민(원지동 일대 8개 마을)은 반대 시위와 함께 ‘서울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01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약 6년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서울시 최종 승소로 소송이 종결됨
 - 이후 서울시와 지역주민 간 430여 회에 걸친 후속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름에 따라, 2009년 서울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2011년 완공됨

표 3-29 | 서울추모공원 개요

서울추모공원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4	 * 출처 : 서울시설공단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park/introduce.jsp)
면적	36,453㎡	
운영	서울시설공단	
기간	1998~2011	
시설	승화원(화장로 15기) 영접마당, 중정, 봉송로, 고별실, 수골홀, 유족대기실, 카페테리아, 식당/매점, 갤러리, 유택동산, 주차장 등	

〈자료〉 연구자 작성

□ 주민지원

- 2009년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공공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17여 가지의 사항이 담긴 '지역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함⁵⁾
 - 지역주민 지원계획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주민편의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과 함께 추모공원 인근 9개 마을의 용도지역 종상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2018년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내곡열린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내곡동 주민센터, 내곡육아지원센터,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청소년상담복지 내곡센터, 헬스장, 늘봄카페 등 복합문화시설을 설치·제공함
 - 내곡열린문화센터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3,996.53㎡; 예산 총 170억 원 (시비 99억 원, 구비 71억)
 -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2018년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원지동 일대에 서초종합체육관을 조성하여 수영장, 대·소체육관 등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설치·제공함
 - 서초종합체육관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6,332㎡; 예산 총 258억 원 (전액 시비)
 - 용도지역 종상향의 경우, 2024년 서울추모공원과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주변 10개 마을에 대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 건물 층수 3층)으로의 종상향 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함
 - ※ 해당 10개 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02년과 2006년 해제되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건물 층수 2층)으로 용도가 결정됨
 - 더불어 서울시는 주민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추모공원 내 식당·매점·카페·자판기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제공함
 - 서울추모공원 조성 직후 부대시설은 새원마을 104가구가 법인체를 설립해 운영함
 - 하지만 계획된 주민지원 사항 중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항목들도 확인됨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의 경우,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주변 부지 활용의 제한 등으로 인해 해당 계획이 백지화됨

5) '서울시 서초구의회 (https://sdc.seoul.kr/main/minutes/html/MinutesView.do?MINTS_SN=3683)',
'서울시 서초구청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ldx=61&bcldx=321465>)',
'SBS NEW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113176)' 참고

2) 울산하늘공원

□ 개요 및 현황

- 울산하늘공원은 운구·장례·화장·봉안에 이르기까지 장사 절차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장사시설로, 울산 동구 공설화장장의 노후화에 따라 2000년부터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추진하여 2003년 울주군 삼동면으로 입지를 확정함
 - 공공의 일방적 부지 선정 시 공공 갈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것을 우려해 울산 최초로 ‘주민 자발적 유치 공모제’를 시행함
- 그런데 당시 장사시설 진입로가 관통하는 인접지역(양산시 하북면) 주민들과 환경훼손 및 지가하락을 이유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가까이 법정·물리적 갈등이 발생함
 - 인접 지역과의 갈등 봉합 후 2008년 울산하늘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2012년 완공됨

표 3-30 | 울산하늘공원 개요

울산하늘공원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면적	98,026㎡	
운영	울산시설공단	
기간	2003-2012	
시설	승화원(화장으로 10기), 봉안당(6만여 기),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유택동산, 장례시장, 추모의 숲 등	

* 출처 : 브이월드 (www.vworld.kr)

〈자료〉 연구자 작성

□ 주민지원

- 울산시는 자발적으로 기피시설을 유치해 준 지역사회에 총 19개의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할 것에 합의함⁶⁾
 - 지역사회 숙원사업 지원 사항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버스노선 연장운행, 지방산업단지 공단조성, 면사무소 건립, 면민 운동장 건립, 하수차집관로 설치, 대단위 택지지구 지정

6) ‘울산제일일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36>) 참고

(중상향 필요), 삼동-KTX울산역 간 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포함됨

※ 삼동-KTX울산역 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를 통과함

- 마을기업 (주)하늘공원보습에 울산하늘공원 내 부대시설(식당·매점·카페·장례식장·장례용품점 등) 운영권을 장기 위탁함

※ (주)하늘공원보습은 당시 울산시가 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로 삼동면에 제공한 200억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하늘공원 내 부대시설 운영권을 제공받음

- 또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일 경우 승화원 사용료의 80%를 감면해 줌

표 3-31 | 울산하늘공원 건립 관련 주민숙원사업 지원 (19건)

사업명	사업내용
인센티브 지원	•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자연부락 숙원사업비 지원	• 인센티브 숙원사업비로 지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 삼동면 일부지역 해제
삼동면 쌀 사주기	• 75농가에서 5,487포대 구입
대암댐 피해보상	• 마을별 경로당 지원
버스노선 연장 운행	• 울산역-통도사 5회에서 8회 연장 운행
지방산업단지 공단 조성	• 암리 일원 공업지역 지정
하잠교 재가설	• 교량1식 및 접속도로
면사무소 건립 (복지회관 포함)	• 연면적 1,921㎡, 지상3층
면민운동장 건립	• 축구장, 체육관, 주차장 등
울리-삼동 간 도로 개설	• L=7.4km, B=10-16m
하수차집관로 설치	• 하수관 설치 L=40km
울산하늘공원 진입도로	• L=5.58km, B=10-16m
보삼마을 연계도로	• 하늘공원 진입도로와 연계 추진
계획도로 조기완공 (5건)	• L=41.3km, B=10-30m
하작-둔기 간 도로 확장 (2차선→4차선)	• L=4.8km, B=7-15m
대단위 택지지구 지정 (하잠리, 둔기리 일원)	• 면적 A=70,000㎡ ※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도시계획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강구	• 삼동-KTX울산역 간 도로 개설

〈자료〉 ‘울산제일일보’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36>)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3) 화성함백산추모공원

□ 개요 및 현황

-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 경기 서남부권의 극심한 화장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지자체(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가 공동 건립한 광역 종합장사시설로, 2011년 안양시가 화성시에 해당 사업을 최초 제안한 이후 화성시는 마을 주민 70% 이상이 동의하는 장사시설 유치 후보지 중 현재 추모공원이 위치한 속곡1리를 최종 입지로 선정함
 - 장사시설 유치 후보지 물색 시 마을발전기금과 수익 사업권 등 화성시의 주민 인센티브 계획을 바탕으로 무려 6개 마을이 유치에 지원함
 - ※ 경기도 서남부권 6개 시가 함께 이용하는 종합장사시설로 출발해, 2023년 군포시가 추가됨
- 그런데 시설 경계선과 맞닿은 인접 지자체(수원시 호매실동 일대)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지하하락을 이유로 집단 반대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 국무조정실의 중재와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통해 갈등을 봉합한 이후 2018년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2021년 완공됨

표 3-32 |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개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위치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서해로 2448-32	 * 출처 :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630)
면적	301,146㎡	
운영	화성도시공사	
기간	2011-2021	
시설	화장장(화장로 18기), 봉안당(29,382기),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장례식장 등	

〈자료〉 연구자 작성

□ 주민지원

- 화성시는 총 395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수익시설 운영권 위탁 등의 방식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수행함
 - 화성시는 2020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을 통

해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을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으로 구분한 후 마을발전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을 차별적으로 적용·지원함

- 유치지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마을발전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모두 활용 가능하며, 주변지역·기타지역·매송면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만 활용 가능함
- 주민지원사업의 사례로서, 어천2리의 경우 총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 미설치 80가구에 대해 상수도 설치(2020.12-2021.04)를 지원하였으며, 송라2리의 경우 총 2억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시설로 활용할 찜질방 내 찜질효소찜질기 설치를 지원함

※ 유치지역은 숙곡1리, 주변지역은 어천1·2리, 야목1리, 송라1·2리, 기타지역은 천천 1·2·3·4·5리, 원평1·2·3·4리, 숙곡2리, 야목2·3·4·5리, 원리에 해당함

- 더불어 화성시는 추모공원 내 장례식장·식당·매점·카페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주)함백산에 위탁함으로써, 주민 고용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지원함
-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의 경우, 지원사업이 마을발전 전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 협의체·기금운용심의위원회·주민총회 등 주민참여 구조를 제도화함

표 3-33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마을발전지원의 종류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세부 내용
소득증대 사업	농업시설 설치	• 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차량 포함),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물 공동저장소,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기계(농자재), 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축산업 시설, 6차산업시설(관련사업 포함)
	관광산업	• 휴게소, 휴양소, 농산물 판매장
	그 밖의 소득증대	• 생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구입비 지원
주민복지 사업	사회복지시설 설치	• 경로당, 마을회관, 공중목욕탕(찜질방 등 유사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간보호센터
	상·하수도시설부문	• 상·하수도시설, 수도비 세대별 지원
	교육·문화시설	• 도서관,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회교육시설
	건강·의료시설부문	• 보건지소, 건강검진, 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포함) 세대별 지원
	공용 운동·오락시설	•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체육시설, 레포츠시설
	전기·통신시설부문	•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마을방송시스템, 통신비 및 전기료 세대별 지원
	그 밖의 시설부문	•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시가스, 냉·난방시설 설치사업, 가전·가구 포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농촌체험마을(조성 포함), 냉난방비 세대별 지원

육영사업	•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선진지 견학, 주민 교육
수익사업	• 수익사업을 위한 비용 •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수익시설(매점, 식당,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또는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가 수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단,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복지증진 등 유치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
그 밖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수익사업 등 인센티브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자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별표 1]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표 3-34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세부 내용
소득증대 사업	농업시설 설치	• 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 포함),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물 공동저장소,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축산업 시설, 6차산업시설(관련사업 포함) 등
	상공업시설	• 공업용 수도,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등
복지증진 사업	사회복지시설 설치	• 경로당, 마을회관, 공중목욕탕(찜질방 등 유사시설, 부대시설 포함),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 소규모 도로, 교량 등
	상하수도시설	•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 도서관, 통학차량,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공중위생시설 등
	공용 운동·오락시설	•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체육시설, 레포츠시설 등
	전기·통신시설	•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마을방송시스템 등
	그 밖의 시설부문	•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시가스, 냉·난방시설 설치사업 포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농촌체험마을(조성 포함), 마을만들기, 마을 놀이시설 등
	마을 공용물품 구입	• 마을 공동시설에 필요한 공용물품(가전, 가구 등) 구입비 지원
육영사업	•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학교급식 지원, 선진지 견학, 주민 교육 등	
그 밖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수익사업 등 인센티브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자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별표 2]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4) 순천시립추모공원

□ 개요 및 현황

○ 순천시립추모공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화장시설을 현대화·공원화 하면서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전남 동부권의 거점 종합장사시설로, 순천시가 장사시설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화장장과 인접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함

※ 화장장(순천시 연화원 → 순천시립추모공원)에 인접한 야흥마을은 전체 80여 가구, 2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화장장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여 화장장마을로 불려옴

○ 그러나 시의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주민과의 토론 및 고민을 통해 실질적인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민동의를 이끌어 냄

- 야흥마을은 화장시설의 입지 선정에 대응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전위원회로 전환하고, 시와 함께 새로운 마을 구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함

표 3-35 | 순천시립추모공원 개요

순천시립추모공원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132 (야흥동)	
면적	40,800㎡	
운영	순천시	
기간	개원 : 1981 공원화 사업 : 2010-2013	
시설	화장장(화장로 5기), 봉안당(6,000기),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유택동산, 추모공원, 휴식광장 등	

* 출처 : 뉴스1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4193877>)

〈자료〉 연구자 작성

□ 주민지원

○ 순천시는 야흥마을을 태양광 발전 기반의 에너지 자립마을로 특성화하는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함⁷⁾

- 야흥마을은 순천시 첫 에너지 자립마을로서 ‘햇빛마을’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됨
- 야흥마을 전체 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및 건강관리실 등 공동시설을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로 운영하며, 마을 앞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조합한 자체 동력 가로등을 설치함

- 야흥마을 주민들 역시 스스로 에너지 자립마을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집집마다 형광등 대신에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실천함
- 추가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 앞 도로개설, 게이트볼장 설치, 저수지 공원 조성, 시내 버스 운행 등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함

7) '무등일보' (<https://www.mdilbo.com/detail/GQFJv6/482509>) 참고

제3절 공원화 관련 지원 사업

1. 장사시설의 공원화

□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사시설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서 공원형·정원형·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등 친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로의 전환을 강조함
 - 지속가능한 장례방식에 대한 관심, 친환경적 장법에 대한 선호 증대, 후손의 묘지 및 봉안시설의 관리 부담 등 장례문화 패러다임이 전환됨
 - 2005년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화장 문화가 보편적인 장사방식으로 정착되었으며, 매장·봉안·자연장 등 기존 장사방법 외에 산분장에 대한 관심·수요도 증가함
 - ※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사방식임
 - 도시숲·수목원·자연휴양림 등 기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등 환경 및 생태를 고려한 공설 수목장림의 확대 조성을 추진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형 장사시설, 산분장 시범지구의 조성을 협의함
- 매장보다 화장을 기반으로 한 봉안·자연장·산분장의 수요 및 선호도 증가 등 장사문화의 변화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장사시설 공원화를 통한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에 일조함
 - 공간집약형 장사시설의 조성을 통해 접근성, 이용 편의성, 관리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반환된 여유 공간을 자연장지·산분장지·추모숲과 더불어 수목원·정원 등의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공간의 공공성 및 친환경성을 강화함
- 기존 장사시설(벽제리묘지)을 수목장·추모숲 및 수목원·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전환 시 대상지 규모, 분묘 기수, 훼손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수목 및 식생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단계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형 사업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대상지의 구역별·기능별로 연계·적용함으로써, 장사시설 공원화의 단계적 실현을 검토 가능함

□ 장사시설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유형

○ 장사시설 공원화와 관련된 국가·광역지자체 지원사업은 ① 종합 공간계획, ② 기반시설 확충, ③ 장사방식 재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표 3-36 | 장사시설 공원화 관련 국가·광역지자체 지원사업

구분	사업	부서	지원	연계
종합 공간계획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비 1:1 분담 (국비 최대 60억)	• 자연경관·문화자원·추모공간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청	지방비 1:1 분담	• 장사시설 공원화 시 녹지축 및 완충녹지 확대를 통해 기후대응형 도시숲 조성
	지방정원 조성사업	경기도	도비 30%, 시·군비 70%	•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테마정원, 추모정원 등 도입
기반시설 확충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 한국 관광공사	지방비 1:1 분담 (개소 당 2.5억)	•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동선 개선 및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산림복지 진흥원	총 사업비의 50% (개소 당 최대 33억)	• 무장애 나눔길 등을 통해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활동 지원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환경부	국비 30%, 지방비 70%	• 유희·휴손 공간의 생태복원 및 체험형 생태·휴식공간으로 재생
장사방식 재편	산분장지 조성	보건 복지부	국비 70% (개소 당 국비 1억 이내)	• 기존 묘역 일부에 산분장지 도입을 통해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전환

〈자료〉 연구자 작성

2. 장사시설 공원화 관련 지원사업

1) 종합 공간계획

(1)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개요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관광개발 계획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중·장기 예산과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관광개발 사업임
- 기존 관광개발 정책을 통해 다양한 관광지와 관광시설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었으나,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미흡, 전국적으로 유사한 성과물 도출, 관광자원 간 연계·협력 부족 등의 한계점들이 나타남
 -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18. 7. 11.)’에서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관광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추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발표함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거나 잠재력 있는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비전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 목표 : 지역주도형 관광개발정책 추진으로 지역관광 역량 제고; 정부의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형 관광생태계 구축
- ※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는 선정된 지역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로 컨설팅을 제공함

표 3-37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개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목적	•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화 또는 유휴 관광자원의 재활성화;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 유지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 광역도 기초 시·군 대상 (제주 제외) / 도별 2-3개소
기간	• 5년 (기본계획 수립 1년 + 사업추진 4년) ※ 사업 첫해에는 문체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연계되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규모 검토 등에 대해 컨설팅 수행
지원	• 2026년 기준, 사업 규모에 따라 국비 최대 60억 원 지원 (지방비 1:1 분담; 총 사업비 120억 원 내외)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원

- 지자체가 핵심사업, 관리·운영사업,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균형 있게 조합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제안하면, 문체부가 공모를 통해 우수 계획을 선정함
 - 핵심사업 : 지역 특화소재(핵심 관광자원)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브랜드 구축 등
 - 연계·협력사업 : 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부처 사업 및 지역 관광조직 협력사업 등
 - 관리·운영사업 : 관광 정책 추진체계 구성, 지역협력체 역량 강화, 창업/일자리 지원 등
- ※ 2019년 기준, 핵심사업/ 관리·운영사업/ 기반시설(인프라)개선사업으로 구성됨
- 사업 선정 후 총 5년간 지방비 1:1 분담 방식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 내외에서 예산이 지원됨
 - 사업 규모에 따라 국비는 최대 6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됨 (2026년 기준)
 - ※ 5년간 총 120억 원 규모의 사업 → 국비 60억 원 + 지방비 60억 원
 - ※ 5년간 총 60억 원 규모의 사업 → 국비 30억 원 + 지방비 30억 원
- 사업 첫해에는 문체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연계되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규모 검토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함

□ 현황

- 2019년 충남 서천군, 경남 합천군의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한 이후, 2020년 8곳, 2021년 5곳, 2024년 3곳, 2025년 3곳, 2026년 6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2019년 : 충남 서천군, 경남 합천군
 - 2020년 : 경기 수원시,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강진군, 경북 포항시, 경남 사천시
 - 2021년 : 강원 삼척시,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영주시, 경남 남해군
 - 2024년 :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
 - 2025년 : 강원 인제군, 전남 여수시, 경북 봉화군
 - 2026년 : 강원 평창군, 충남 공주시, 충북 보은군, 전북 완주군, 전남 장흥군, 경남 김해시
- ※ 2022-2023년은 코로나19 유행 시기로 인해 신규 공모 선정이 일시 중단됨

표 3-38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연도별 선정 지역

연도	지역	내용
2019년 (시범사업)	충남 서천군	• 장항송림산림욕장 및 신성리갈대발 등 생태자원 연계 활성화
	경남 합천군	•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영상 촬영지 테마 몰입형 체험 및 축제 개발)
2020년	경기 수원시	• 수성 화성 인근 옛길 재활성화 및 관광콘텐츠 개발
	강원 정선군	• 지역 특화 소재 아리랑 브랜드 활용 관광 마을 구성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충북 제천시	• 의림지 일원 미디어예술(미디어아트) 정원 조성 및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충남 아산시	• 충무공 이순신 스마트 체험관 구축, 연계 콘텐츠 개발 등 이순신 콘텐츠 세계화 사업
	전북 남원시	• 남원 특화 이야기(스토리) 연계 달빛공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남원 주요 여행지 연계 코스 개발
	전남 강진군	• 고려청자·의상 등 고려문화체험 콘텐츠 및 유물 발굴 체험 콘텐츠 개발·운영
	경북 포항시	• 근대문화유산거리 콘텐츠 개발 및 구룡포 예술공장 활성화
	경남 사천시	• 에어레이싱 체험, 놀이 프로그램, 직업 체험 등 산업관광 측면에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재활성화
2021년	강원 삼척시	• 대이리 동굴지대를 활용한 동굴치유(힐링), 지능형(스마트)동굴, 미디어숲 조성, 관광환경 개선 등 동굴의 재발견·재탄생 사업
	충북 단양군	• 다리안 관광지 내 유휴 유스호스텔 시설을 마을호텔, 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 등 특화된 체류형 숙박시설로 조성하는 사업
	전북 진안군	• 수려한 마이산의 풍경과 지역 특화산업인 홍삼 한방을 융·복합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홍삼한방타운 치유거점 조성; 인근 농촌체험 마을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경북 영주시	• 기존 소수서원, 선비세상 등 유교 관광자원과 연계한 안(安)·빈(貧)·낙(樂)·도(道) 4개의 주제 구간을 설정해 이야기를 접목한 흥미 있는 관광콘텐츠 운영; 한(韓)문화 관광사업체 발굴 등
	경남 남해군	• 플라츠 광장에서 요일 장터, 월별 축제 등 개최; 마을상생협의체, 청년 관광기획자 등과 협업해 인근 마을 관광 활성화 등
2024년	강원 영월군	•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영사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 임실군	•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

		로모션 등
	경북 영양군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2025년	강원 인제군	카트랜드 리모델링, 모터 페스티벌 개최 등 레저 중심 콘텐츠 확대; 기존 마니아 중심 시설을 가족 단위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활성화; 인제 자작나무숲, 백담사, 곰배령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시티투어 노선 구성을 통해 인제만의 통합 관광 브랜드 구축 등
	전남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종료 후 남겨진 주제관 등 박람회장 부지 활용 (일루미네이션, 미디어아트 등 감성 야간 관광 콘텐츠)
	경북 봉화군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일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베트남 테마마을 조성; 봉트남(봉화+베트남) 브랜드 개발 등
2026년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의 송어축제장을 거점으로 송어파크 사계절 프로그램 고도화; 오대산~진부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송어파크 거점공간인 웰컴센터, 열린광장 조성사업 추진 등
	충남 공주시	플라잉 스카이 킹덤(Flying Sky Kingdom) 콘텐츠 조성; 왕도길 여행 코스 개발; 야간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 인프라 및 안내 체계 개선 등
	충북 보은군	스포츠관광 복합지원센터 조성; 체험형 로컬 프로그램; 스포츠 브랜딩 및 원도심 연계사업 등
	전북 완주군	오성한옥마을과 오성제 일원을 중심으로 풍류 콘텐츠 강화;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프리미엄 관광 브랜드화 등
	전남 장흥군	회복관광센터 조성; 리트릿 셀프케어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광역 노선(광주송정역~우드랜드)과 리트릿 노선(3개 자원) 교통수단 도입; 주변 도시 연계 팝업스토어 운영 등
	경남 김해시	아유타 라운지 조성; 봉황대길 골드스트리트 명소화; 김해 카레축제 개최; 야간관광 '가야의 밤' 프로그램 확대; 하늘길·바닷길 패키지 투어 상품 운영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List.jsp)' 등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022-2023년은 코로나19 유행 시기로 인해 신규 공모 선정이 일시 중단

(2)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청)

□ 개요

-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열섬·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소음 감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녹지공간 및 휴식·치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생활권 및 주변 지역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임
- 특히 도심 내 유휴공간, 공공시설 부지, 도로변 등을 활용해 도시숲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함

표 3-39 | ‘도시숲 조성사업’ 개요

도시숲 조성사업	
목적	• 도시열섬·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생물 다양성 증진; 생활환경 개선 및 휴식·여가·치유 등을 위한 녹지공간 제공
주관	• 산림청
대상	• 도시지역 및 법정 읍·면 지역 ※ 국·공유지 우선 선정
기간	• 단년도 및 다년도(3~4년) 사업
지원	• 사업 유형별 상이 (지방비 1:1 분담)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원

-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 유형과 수요에 따라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됨
 - 기후대응 도시숲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조성함
 - 도시바람길숲의 경우, 도시의 대기 순환 증진 및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조성됨
 - 자녀안심 그린숲의 경우,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과 안전한 녹색보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조성됨
- 매년 사업 선정 후 지방비 1:1 분담 방식으로 예산이 보조·지원됨
 - 2026년 기준, 사업규모는 총 142개소, 1,760억 원으로 이 중 880억 원은 국비로 지원됨
 - 〈202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후대응 도시숲의 경우 개소당 평균 조성 면적이 1.4ha일 시 1ha당 10억 원(국비 5억 원), 도시바람길숲의 경우 도시당 100-2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됨

표 3-40 | '도시숲 조성사업' 유형별 특성

유형	내용
기후대응 도시숲	• 도시열섬·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 생활권 및 주변 지역에 숲 조성 - (사업규모) 17개 광역시·도 107개소 151ha, (사업비) 755억 ※ 조성단가 : 1ha 당 10억 원(국비 5억 원), 개소 당 평균 조성 면적 1.4ha ※ '23년 이후 사업 명칭 변경 (미세먼지 차단숲 → 기후대응 도시숲) •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열섬 완화숲, 도시 탄소저장숲 등 유형별 추진 - 미세먼지 저감숲 :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 - 도시열섬 완화숲 : 도심 고온지역 및 포장공간(도로, 광장 등)을 활용한 숲 조성 - 도시 탄소저장숲 : 도시지역 대규모 유휴지 숲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산업단지, 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도심 고온지역 내 유휴지 및 포장지역, 도시 주변 대규모 유휴공간에 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를 목적으로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바람길 숲 조성 - (사업규모) 전국 20개 도시, (사업비) 도시 당 100~200억 ('22~'25년) ※ [신규] 도시당 200억(설계 10, 시공 190), [보완] 도시당 100억(설계 5, 시공 95) ※ '22~'25년 8개소(도시 당 200억); '23~'25년 9개소(도시 당 100억); '24~'27년 2개소(200억); '25~'28년 1개소(200억) • 바람 생성숲(외곽 산림)-디딤숲·확산숲(도시 내 거점숲)-연결숲(생성숲과 거점숲 연결)을 조성하여 도시 내에 맑은 공기 순환 - 생성숲 : 도시 외곽 산림으로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는 역할 - 연결숲 : 찬공기가 도시내부로 잘 유입되도록 하는 바람통로 역할 - 디딤·확산숲 : 도심 내 거점 숲으로 찬 공기의 원활한 이동 지원 • 17개 도시에 시범사업('19~'22년) 후 2차('22~'25년), 3차('24~'28년) 추진 - '25년 : 19개 도시 시공, 1개 도시 설계 (국비 370억 원)

〈자료〉 '202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산림청, 2025)'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 현황

- 기후대응 도시숲의 경우, 2019년 48개소(90ha), 2020년 50개소(93ha), 2021년 103개소(155.8ha), 2022년 153개소(192.8ha), 2023년 110개소(174.5ha), 2024년 114개소(158.3ha)가 조성됨
 - 대표 조성 사례로는 경기 평택시 포승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숲과 전남 광양시 유당공원 및 폐철도부지의 기후대응 도시숲이 있음
 - ※ 2023년 이후 사업 명칭이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됨

그림 3-50 | 경기 평택시 포승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숲



〈자료〉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https://www.pyeongtaek.go.kr/forest/contents.do?mid=0202010000>)'에서 발췌

그림 3-51 | 전남 광양시 유당공원 및 폐철도부지의 기후대응 도시숲



〈자료〉 'kbs NEWS (<https://news.ikbc.co.kr/%EC%A7%80%EC%97%AD/article/view/kbc202310230020>)'에서 발췌

표 3-41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현황 (2019~2024)

지자체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특회계* (미세먼지 차단숲)		예특회계 (미세먼지 차단숲)		예특회계 (미세먼지 차단숲)		기후대응기금 (미세먼지 차단숲)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도시숲)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도시숲)	
	개소수	면적 (ha)	개소수	면적 (ha)	개소수	면적 (ha)	개소수	면적 (ha)	개소수	면적 (ha)	개소수	면적 (ha)
합계	48	90.0	59	93.0	103	155.8	153	192.8	110	174.5	114	158.3
서울특별시	-	-	2	3.0	-	-	7	9.1	6	7.8	4	4.3
부산광역시	3	5.0	5	2.5	8	10.5	5	8.6	7	7.7	4	5.6
대구광역시	2	5.0	2	2.0	4	3.2	7	6.5	6	4.4	4	2.4
인천광역시	4	4.9	1	2.0	3	3.5	4	9.0	4	9.0	9	11.0
광주광역시	2	5.1	2	2.0	3	1.5	3	3.0	3	2.5	-	-
대전광역시	2	2.6	1	1.2	4	5.3	2	1.0	2	3.0	4	3.7
울산광역시	2	7.0	1	5.0	-	-	5	2.5	5	11.4	3	6.0
세종시	-	-	-	-	-	-	1	1.0	1	1.0	2	1.2
경기도	3	6.6	5	6.2	6	15.5	12	16.0	6	7.9	8	8.7
강원도	3	6.0	2	7.0	1	2.0	7	10.0	2	5.7	-	-
충청북도	3	7.6	3	6.0	4	7.8	7	8.5	7	14.0	8	13.1
충청남도	5	7.2	5	14.4	14	18.4	16	23.1	10	19.0	13	20.0
전라북도	4	8.5	6	11.0	15	22.4	11	14.2	10	14.7	11	14.9
전라남도	6	9.4	10	15.0	14	37.0	21	37.3	18	30.7	19	37.4
경상북도	3	9.0	5	7.5	10	13.5	15	19.0	10	16.0	11	9.8
경상남도	6	6.1	9	8.2	17	15.2	26	19.7	11	12.7	10	11.2
제주도	-	-	-	-	-	-	4	4.3	2	7.0	4	9.0

〈자료〉 '202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산림청, 2025)'에서 발췌

* 예특회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지방정원 조성사업 (경기도)

□ 개요

-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활용해 지방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정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공 정원에 해당함
- ※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가정원 지정 신청 및 검토를 통해 국가정원으로 지정·관리 가능함

표 3-42 | ‘지방정원 조성사업’ 개요

지방정원 조성사업	
목적	• 지역 거점 정원 조성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관	• 경기도 (공원녹지과)
대상	• 경기도 내 시·군
기간	• 연차별 지정 및 단계적 조성
지원	• 사업 유형별 상이 (도비 30%, 시·군비 70%)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원

- 경기도 내 시·군이 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신청해 산림청·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경기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 정원으로 육성함
- 경기도는 정원조성계획 승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등의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측면에서 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를 확보·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시·군이 부지를 제공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의 보조율로 도 예산이 지원됨
- 다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군의 재정 자립도(차등 보조율)에 따라 지역 개발, 청소·환경 분야 사업은 최대 50%까지 도비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 경기도가 직접 시행 주체가 되어 대규모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대부분 또는 전액을 도비로 충당함 (예.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의 경우 경기도 자체 예산 직접 투입)

□ 현황

- 2019년 ‘세미원’이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이후 2025년 ‘자라섬 정원’이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새로숲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과 ‘안양천 지방정원 (안양천 일대)’이 각각 2027년과 2028년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음
- 세미원의 경우,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서 경기도 및 양평군이 조성한 후 재단법인 세미원이 위탁·운영하는 공공형 정원임
- 새로숲의 경우,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정원과 습지가 연계된 생태정원으로 전환 중에 있음

표 3-43 | 경기 지방정원 현황

명칭	위치	규모 (ha)	특징	연혁
세미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13	-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 - 연꽃 중심의 수생식물 정원 과 전통 정원 결합	(2004.05.) 개원 (2019.06.28.) 지방정원 등록
자라섬 정원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로 60 일원	55.9	-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 - 수변 생태환경과 문화콘텐츠 결합	(2009.) 자라섬 이화원 개원 (2025.10.15.) 지방정원 등록
새로숲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	45	-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생태정원으로 전환 - 정원 시설 및 안산갈대습지 연계	(2024.02.) 정원조성계획 승인 (2025.11.) 착공 (2026.04.) 1단계 일부 개방 2027년 전체 개원 목표
안양천 지방정원	경기도 안양천 일대	39.7	4개 지자체 공동 협력형 정원 (광명·안양·군포·의왕) - 총 연장 약 28.8km의 선형 정원	(2023.04) 산림청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 완료 2028년 운영 시작 목표

〈자료〉 ‘산림청 (<https://north.forest.go.kr>)’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그림 3-52 | 경기 지방정원 전경 (세미원 / 자라섬 정원)



〈자료〉 ‘양평TV’ (<https://www.xn--tv-ht7jv38b.kr/7772>) 및 ‘경기도뉴스포털’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8047)에서 발췌

2) 기반시설 확충

(1)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한국관광공사)

□ 개요

-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은 관광지의 물리적 접근성 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프로그램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차별·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초고령사회 진입 등 관광산업 수요변화에 대처, 무장애 관광환경 정비 등의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이 추진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광지의 무장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관광거점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최근 공모 심사 시 심사단의 절반을 실제 관광 취약계층(장애인 등)으로 구성하여 비 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지를 중점 평가함

표 3-44 |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개요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목적	•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대상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선정 단위 : 관광권역 (1개 권역당 1-4개소 관광지점으로 구성)
기간	• 단년도 및 다년도(3~5년) 사업
지원	• 매년 약 20-30개소 선정; 개소 당 2.5억 원 (지방비 1:1 분담)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원

- 매년 사업 선정 후 지방비 1:1 분담 방식으로 개소 당 약 2억 5천만 원 내외의 예산이 보조·지원됨
- 환경적 측면 : 관광지의 보행로·경사로·화장실·주차장·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무장애 동선 정비 등 (열린관광지 조성)
- 정보적 측면 : 무장애 여행코스 발굴; 무장애 여행정보 DB 개선 및 신규 확보;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 고도화 등
- 서비스 측면 : 행정가, 관광지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인식 개선 교육; 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여행 기회 제공 등

□ 현황

○ 2025년 기준, 누적 182개소의 열린관광지가 선정·조성됨

- 연도별 열린관광지 개소 수 : 2015-2018년 29개소, 2019-2020년 20개소, 2020-2021년 43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 20개소, 2024년 30개소, 2025년 20개소
- 고양시의 경우, 2021년 행주산성 일대(행주산성, 행주산성역사공원, 행주커뮤니티센터)가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후 무장애 동선 구축, 주차장·화장실 정비, 촉지음성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지로 전환됨

그림 3-53 | 2021 고양시 행주산성 일대 열린관광지



〈자료〉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https://access.visitkorea.or.kr/main/main.do>) 및 ‘무장애 경기관광도시’ (<https://www.ggtour.or.kr/bf/main>)에서 발췌

(2)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산림복지진흥원)

□ 개요

○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은 녹색자금(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산림복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임

- 특히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산림 접근성 향상 및 무장애 나눔길 등 포용적 녹색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세부사업은 ①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②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지원, ③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④ 산림복지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 ⑤ 산림복지 제공자 편의 개선(환경개선, 무장애 나눔길)으로 구분됨

표 3-45 |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개요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목적	•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하)
대상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조성 대상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기간	• 단년도 및 다년도 사업 ※ 녹색자금 지원액(자부담 제외)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사업(2~3년)으로 신청 ※ 연차사업은 시·도(광역단체)별 1개소만 신청 가능
지원	• 개소 당 최대 33억 원 (총 사업비의 50% 지원, 자부담 50%)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원

○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자부담 50%)으로 개소 당 최대 33억 원까지 지원됨

- 사업비는 목재데크 및 친환경 포장재(황토 등)를 이용한 숲길 경사 완화 (8% 이하), 산림 체험을 위한 쉼터·편의시설 설치 등에 활용됨

※ 매년 시·도(광역단체)별 연차사업 포함 3개소 이내로 선정됨

표 3-46 |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의 세부사업

사업	내용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 (사업목적)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숲길 조성으로 보행 약자층의 장애 없는 안전한 산림 체험활동 지원 • (사업대상지) 신청자가 소유하였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토지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행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 (사업내용) 목재데크, 황토포장 등 숲길 조성 및 이용자를 위한 안전·편의 시설 설치 • (조성방향) 산림훼손과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시공
산림복지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	• (사업목적) 도시숲 내 보행 장애요인 개선을 통한 보행약자의 무장애 이용 환경 제공 • (사업대상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국도시림 현황 통계 작성 기준(21년 말 기준)」의 '마을숲'과 '경관숲'중 지정한 대상지 ※ 국·공유지 녹화지, 생활권 도시숲,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 (사업내용) 기 조성된 도시숲의 보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 (조성방향) 단순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지양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도시숲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UD, BF 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시설 개선

〈자료〉 '202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계획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 현황

○ 2025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67개의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됨

- 연도별 무장애 나눔길 개소 수 : 2016년 9곳, 2017년 18곳, 2018년 19곳, 2019년 18곳, 2020년 21곳, 2021년 16곳, 2022년 17곳, 2023년 15곳, 2024년 14곳, 2025년 20곳

그림 3-54 |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사례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432>)'에서 발췌

(3)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환경부)

□ 개요

-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도시 내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부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넓히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임
- 세부사업으로는 도시 생태휴식공간(舊 자연마당)과 어린이 생태체험공간(舊 생태놀이터)으로 구분됨
 - 도시 생태휴식공간의 경우, 도시의 유휴·방치공간 및 훼손된 지역을 생물서식지, 주민참여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에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함
 - ※ 도시 생태휴식공간은 최소 2만㎡ 이상의 규모로 조성
 -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의 경우, 도시지역 유휴·자투리땅을 활용해 체험·학습 등을 위한 생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을 도모함
- 핵심시설에는 다층림(다양한 높이의 자생 수목 숲), 소생물 서식 습지, 돌무더기·비오톱(Biotope, 야생 생물 서식 공간), 생태 산책로 및 탐방 데크, 자연 놀이터 등이 포함됨

표 3-47 |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개요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구분	도시 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목적	• 도시 내 유휴·방치공간 및 훼손된 지역을 도시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전환	• 도시 내 유휴·자투리땅을 어린이 체험·학습공간으로 전환
주관	• 환경부	• 환경부
대상	• 국·공유지; 사업예산 확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역 • 50,000㎡ 내외 (최소 20,000㎡ 이상)	• 국·공유지; 사업예산 확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역 • 1,000~3,000㎡ 내외
기간	• 3년	• 1년
지원	• 개소 당 30억 원 내외 (국비 30%, 지방비 70%)	• 개소 당 4~5억 원 내외 (국비 30%, 지방비 70%)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형태일 경우 총 사업비의 100%를 국비로 지원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원

- 해당 사업의 도입 초기(2012-2015년)에는 총 사업비의 100%를 국비로 지원하여 추진력을 높였으며, 이후 2016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30%, 지방비 70%)의 형태로 전환됨

- 도시 생태휴식공간은 개소 당(50,000㎡ 내외) 총 사업비가 약 30억 원 내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은 개소 당(1,000-3,000㎡ 내외) 총 사업비가 약 4-5억 원 정도 소요됨
-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함

□ 현황

- 2012년 사업 도입 첫 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부산 남구 이기대, 대구 동구 불로동의 3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17년까지 총 20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국정과제 도입 목표를 조기 달성함
- ※ 현재 신규사업 선정·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나, 향후 유사사업 도입 시 활용 가능함

표 3-48 |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사례 (2012년 선정)

명칭	위치	면적 (㎡)	특징
불암산 자연마당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77,800	• 1977년 도시자연공원 지정 이후 불법 불탑점, 쓰레기 및 폐자재 적치로 장기간 훼손·방치되었던 불암산 자락을 복원 • 생태계류(시내)를 복원하고 생태습지 및 참나무·배나무 중심의 생태숲을 조성 • 총 사업비 약 31억 원 전액 국비 지원
이기대 자연마당	부산 남구 용호동 일원	73,400	• 과거 한센병(나환자) 집단 거주지역의 시설들이 철거된 후 무단 경작과 나대지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지형이 변형되고 수계(물길)가 단일화된 지역을 복원 • 해양과 육상 산림 생태계를 연계한 '해안형 생태복원 모델'로 조성 • 단절되었던 물길을 복원하여 계류와 습지를 만들고, 난대 침엽수 및 활엽수 등 해안림 특성에 맞는 자생 식물을 대거 식재 • 총 사업비 40억 중 국비 30억, 시비 10억 원 지원
불로 자연마당	대구 동구 불로동·도동 불로고분공원 내	94,678	• 신라시대 고분군(214기)이 밀집한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내부의 유흥지가 불법 논·밭으로 경작되면서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공간을 복원 • 역사문화자원과 생태복원을 결합함으로써, 공간을 3개 구역으로 나눈 후 나비 초지, 상수리나무 숲, 두꺼비 및 맹꽁이 서식 습지 등을 체계적으로 복원 • 총 사업비 약 42억 원 전액 국비 지원

〈자료〉 '환경부-보도자료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boardId=184706&boardMasterId=1>)'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보완

3) 장사방식 재편

(1) 산분장지 조성사업 (보건복지부)

□ 개요

- '산분장지 조성사업'은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지정된 장소에 뿌려 장사 지내는 산분장(散粉葬)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 산분장지를 전국에 확충하는 사업임
-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강·바다·산 등에 뿌리는 장례 방식인 산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가 공설 장사시설 내에 합법적인 산분 구역을 조성하도록 지원함
 - 시설산분 : 산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나 시설이 마련된 장사시설
 - 해양산분 :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 ※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어장관리해역, 항만 수상구역 등에서는 산분 제한
- 전통적인 매장이나 봉안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장사시설의 확대 측면에서 2020년 기준 8.2%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표 3-49 | '산분장지 조성사업' 개요

산분장지 조성사업	
목적	•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 및 장사시설 환경 개선
주관	• 보건복지부
대상	• 신규 자연장지 조성지; 기존 장사시설 부지 (신축, 증·개축 시) ※ 최소 면적 1,000㎡ 이상 ('26년 신청 지자체부터 적용)
지원	• 개소 당 국비 최대 1억 원 (㎡당 약 10만 원, 국비 70%)

〈자료〉 연구자 작성

□ 지원

-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별로 개소 당 1억 원 이내의 규모(㎡당 10만 원)에서 국비 70%를 지원함

□ 현황

- 2025년 사업 도입 첫 해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의 3개 지자체가 선정됨
 -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6년 6월까지 목련공원 내 1,400㎡(424평) 규모의 산분장지를 조성함
 - 전라북도 무주군의 경우, 2026년 12월까지 무주 추모의집 내 234㎡(71평) 규모의 산분장지를 조성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용미리 제1묘지(추모의 숲) 내 500㎡(151평) 규모의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를 조성해 2026년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감
 - 휠체어·유모차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 데크와 추모 조형물 및 정원을 조성함

표 3-50 |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선정 대상지

대상지	사업 내용	규모	사업 기간
충청북도 청주시	• '목련공원' 내 산분장지 조성	1,400㎡	2025.09-2026.06
전라북도 무주군	• '무주 추모의집' 내 산분장지 조성	234㎡	2025.06-2026.12
서울특별시	• '용미리 제1묘지(추모의 숲)' 내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조성	500㎡	2025.05-2025.12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55 | 용미리 제1묘지 어린이 추모공간 '나비쉼터'



〈자료〉 '서울시설공단'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ublicity/bbs/bbsMsgDetail.do?msg_seq=382&cd=pub_picture)에서 발췌

제4장 벽제리묘지의 현황 및 특성 진단

제1절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제2절 벽제리묘지의 공간·사회적 특성

제1절 벽제리묘지의 일반 현황

1. 벽제리묘지

□ 개요

- 벽제리묘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하며, 서울 중랑구 망우리묘지, 파주 용미리 제1·2묘지, 남양주 내곡리묘지 등과 함께 서울시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공동묘지임
 - ※ 벽제리묘지는 고양시 관할구역 내 입지하지만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로 현재 서울시설공단에 의해 운영·관리됨
- 벽제리묘지는 1960년대 서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시가지 개발, 기존 망우리묘지 및 내곡리묘지의 만장으로 인한 추가 매장 불가능 등의 사유로 1963년 당시 벽제리 인근에 조성됨
- 벽제리묘지의 총 면적은 1,375,000㎡(약 416,000평)로, 2026년 5월 기준 사용 중인 분묘는 6,800여 기에 해당함
 - ※ 고양시 관할구역 내 고양시에 의해 관리되는 묘지 전체 면적의 약 5.9배에 달함

□ 연혁

- 1963년 11월, 서울시의 인구 집중 및 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경기도 고양군 벽제리 일대에 장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묘지 운영을 개시함
 - ※ 당시 벽제리묘지는 주로 서울 시내에 위치해있던 분묘(망우리묘지 및 내곡리묘지)를 이전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됨
- 1991년 5월, 벽제리묘지 개설 이후 30여 년 동안의 지속적인 매장으로 인해 수용 능력의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만장(滿葬)' 처리됨
- 1998년 8월, 경기북부 지역의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묘지 훼손·유실 사태와 서울시의

화장 장려 정책이 맞물리면서, 가문 소유의 기존 계약지나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신규 매장이 전면 중단됨

- 2020년, ‘벽제리·내곡리묘지 개장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무연 분묘와 재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분묘 400여 기를 대상으로 개장을 추진함
 - 핵가족화 및 장례문화 변화로 인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도 방치된 분묘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및 거부감 유발 등과 관련된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용미리 제1묘지, 망우리묘지, 벽제리묘지, 내곡리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함
 - 개장은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 신고 안내와 두 차례에 걸친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을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함 (봉안기간 종료 후에는 산골(散骨)됨)

□ 특징

- 벽제리묘지는 초기 개별적·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조성 분묘로,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 혹은 능선 형태로 묘역이 퍼져 있음
 - 벽제리묘지는 7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면에 구역-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함
 - 분묘별로 구역 및 번호가 명시된 표시석이 설치됨
 - 벽제리묘지 내 개별 분묘의 영역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이동통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벽제리묘지는 경사도가 높은 산자락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까지 능선을 따라 분묘들이 빼곡히 조성되어 있음
 - ※ 산자락 고지 부근에 위치한 묘소까지 이동 시 성인 기준 평균 2-3시간이 소요됨
- 벽제리묘지는 1991년 만장 및 1998년 매장 중단 조치 이후 신규 단독 매장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기존 분묘의 관리와 더불어 무연고 분묘 정리, 개장(파묘 후 화장) 및 이장 작업 중심으로 운영됨
 - 인근 덕양구 대자동에 화장장인 서울시립승화원이 위치해 장사시설 간 연계성이 높은 편임 (벽제리묘지에서 거리상 10km 내외, 시간상 20분 내외)
- 벽제리묘지의 경우 전체 분묘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조성 묘지로 만장 이후 상당수의 분묘가 적극적 유지관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사시설 공원화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됨

표 4-1 | 벽제리묘지 개요·연혁·특징

구분	내용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산4-1, 산4-4 일대
면적	• 약 1,375,000㎡ (약 416,000평) ※ 고양시 관내 전체 묘지 면적의 약 5.9배
시기	• 1963년 조성 (비조성 분묘)
기능	• 분묘 6,807기 (2026.05.31. 기준)
운영	• 서울시설공단
연혁	• 1963.11. : 벽제리묘지 개설 • 1970.09. : 서울시립승화원 현 위치로 이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1987.01. :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시립승화원 인수 • 1991.05. : 벽제리묘지 만장 • 1998.08. : 경기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묘지 훼손 및 유실 ※ 이후 서울시 화장장력정책에 의거 매장 중단 • 2020. : '2020년 벽제리·내곡리묘지 개장계획' 수립
특징	• 1963년, 서울 망우리·내곡리묘지의 만장으로 매장이 어려워지자 벽제리 인근에 공동묘지 조성 (주로 서울 시내에 있던 묘지를 이전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 • 이후 벽제리묘지는 1991년 5월 만장 • 벽제리묘지의 경우 전체 분묘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조성묘지로 만장 이후 상당수의 분묘가 소극적 유지관리 진행 중 •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사시설 공원화 전환의 필요성 증대
전경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4-1 | 1991년 벽제리묘지 만장 공고



〈자료〉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1991/nwdesk/article/1848066_30445.html)에서 캡처

그림 4-2 | 1998년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벽제리묘지 훼손 및 유실



〈자료〉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1998/nwdesk/article/1998039_30723.html)에서 캡처

그림 4-3 | 벽제리묘지 전경



〈자료〉 연구자 현장답사 시 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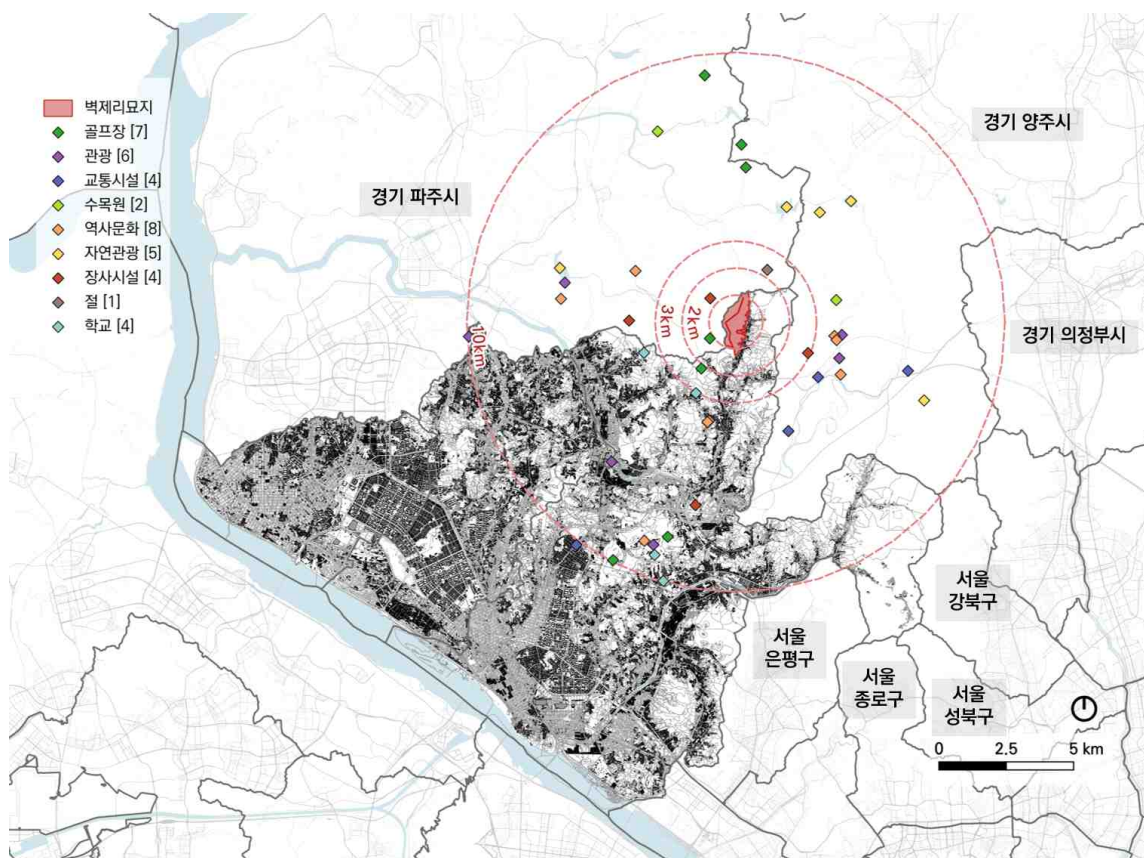
제2절 벽제리묘지의 공간·사회적 특성

1. 공간적 특성

□ 입지

- 벽제리묘지는 파주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북쪽 끝부분에 위치함
- 벽제리묘지의 공간 중심에서 반경 10km 이내에는 장사시설, 수목원, 골프장, 학교, 관광지 등 주요 시설 40여 개가 위치함
 - 벽제리묘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는 용미리 제2묘지, 서서울CC 골프장 등이 위치하며, 3km 이내에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올림픽CC 골프장 등이 위치함

그림 4-4 | 벽제리묘지 입지



〈자료〉 'QGIS'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 벽제리묘지로부터 반경 10km를 기준으로 경기 파주시·양주시·의정부시 및 서울 북서부의 일부 행정구역이 포함됨

- 고양시 측면에서, 벽제리묘지는 덕양구의 원당·화정 및 원흥·삼송지구에서 비교적 근거리
리에 위치하며 고양동에서 북쪽으로 파주까지 이어지는 보광로(367번 지방도)를 통해 주
요 진입함

- 덕양구의 원당·화정 및 원흥·삼송지구에서 자차로 약 15-20분 내외로 소요되며, 삼송
역(3호선) 인근에서 대중교통(일반 및 마을버스)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함

- 서울시 측면에서, 벽제리묘지의 반경 10km 내외에 속하는 은평구 구파발역을 기준으로
은평뉴타운을 거쳐 고양시로 이어지는 통일로(1번 국도) 및 보광로(367번 지방도)를 통
해 진입함

- 서울시 은평구의 구파발역 인근에서 평시 기준 자차로 약 20-25분 정도 소요되며, 구
파발역·연신내역·불광역(3호선)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일반버스를 통해 환승 없이 접근
가능함

- 파주시 측면에서, 벽제리묘지의 반경 10km 내외에 속하는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기준으
로 아동동을 거쳐 서울·고양 방향의 통일로(1번 국도) 및 보광로(367번 지방도)를 통해
진입함

-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금촌역 인근에서 자차로 약 25-35분 정도 소요되며, 경의중앙선
역에서 벽제리묘지까지 환승 없이 이동하는 버스는 드문 편임

- ※ 운정지구 기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통일로IC를 이용하거나 설문동 방향 지방도
를 활용함

- 양주시 측면에서, 장흥면 및 삼송동·옥정지구 등지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양주역(1호선)을 기준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추IC 또는 통일로IC) 또는 일영로(371번 지방도)를 통해 보광로(367번 지방도)로 합
류 후 진입함

- 양주시의 양주역 인근에서 자차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및 일영로 이용 시 약
25-30분 정도 소요되며, 장흥 등을 경유하는 외곽 버스를 이용 가능하나 배차간격이
다소 긴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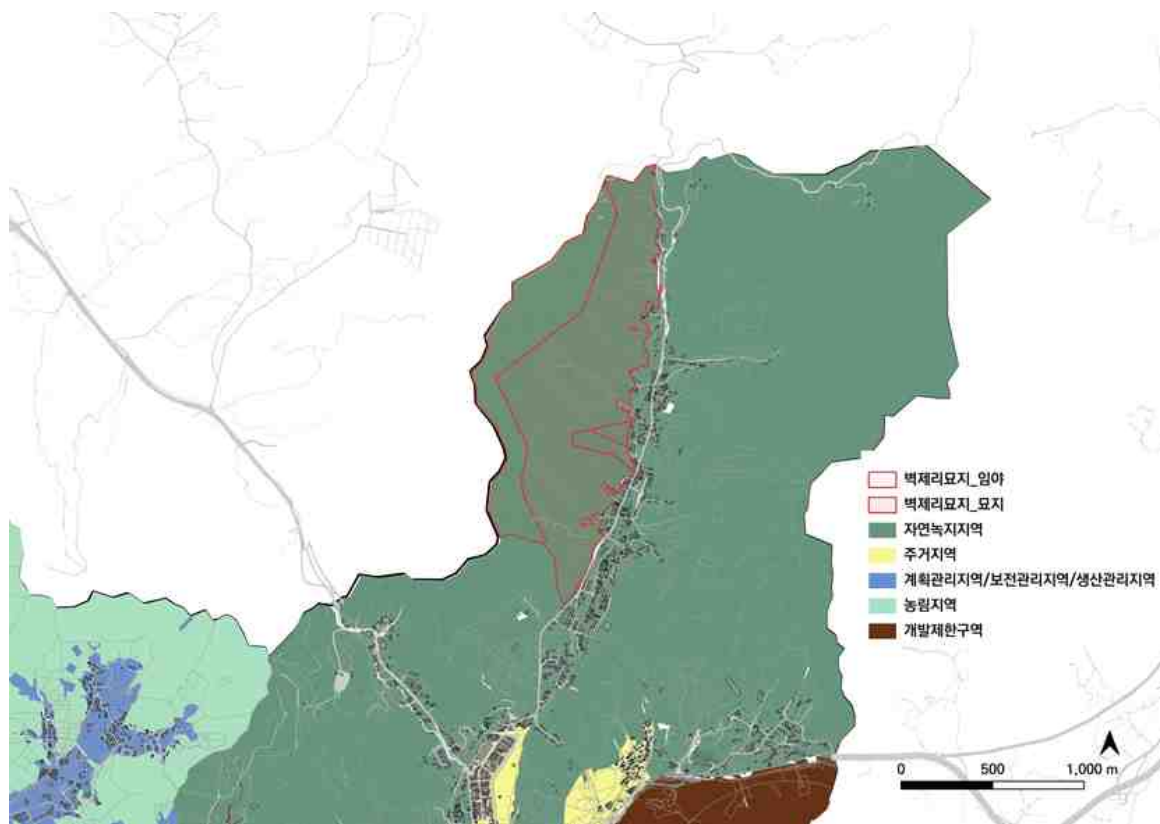
- 의정부시 측면에서, 의정부역·가능역(1호선) 및 의정부시청역(의정부경전철) 인근에서 서
쪽으로 이어지는 호국로(39번 국도)를 통해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벽제동으로 접근 후
보광로(367번 지방도)를 이용해 진입함

- 의정부시의 의정부역·가능역 및 의정부시청역 인근에서 자차로 약 30-35분 정도 소요
되며, 고양시 방면으로 넘어가는 일반버스를 이용하여 벽제 주변까지 이동한 뒤 도보
나 마을버스로 환승 후 접근 가능함

□ 토지용도

- 벽제리묘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크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4-1, 산4-4, 산5, 산6-1의 4개의 토지로 구성됨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확산을 방지하며 장래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함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됨
 - ※ 다만, 묘지공원 및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가 허용됨
- 산 4-1의 지목은 임야로, 토지면적은 413,253㎡에 해당함
- 산4-4, 산5, 산6-1의 지목은 묘지로, 토지면적은 각각 916,480㎡, 14,876㎡, 30,347㎡에 해당함

그림 4-5 | 벽제리묘지 토지용도/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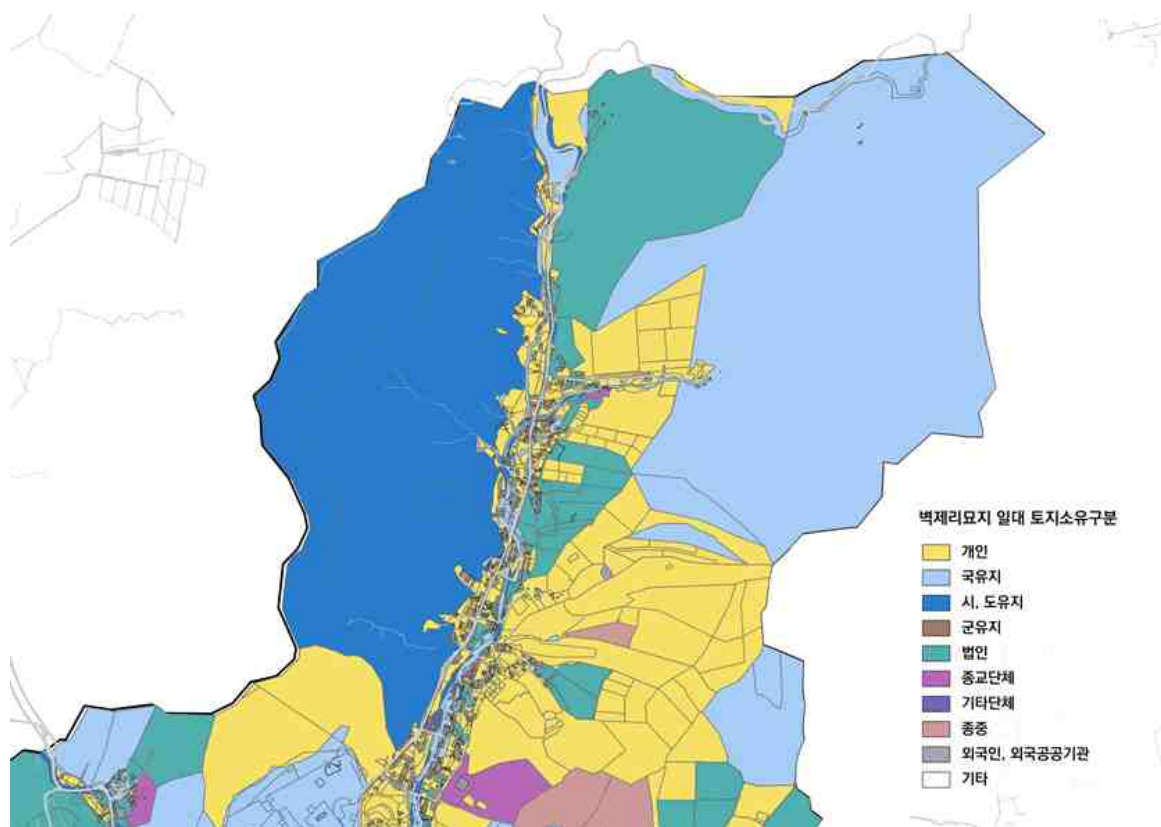


〈자료〉 'QGIS'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 토지소유

- 벽제리묘지 부지(산4-1, 산4-4, 산5, 산6-1)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토지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의 관외 장사시설임
 - 1960년대 서울시의 급격한 인구 팽창으로 인한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경기도 땅을 매입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함
- ※ 벽제리묘지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로 서울시설공단에 의해 운영·관리되지만, 건축 인허가 및 도시계획적 관할권은 고양시에 속하는 독특한 이원화 구조를 지님

그림 4-6 | 벽제리묘지 토지소유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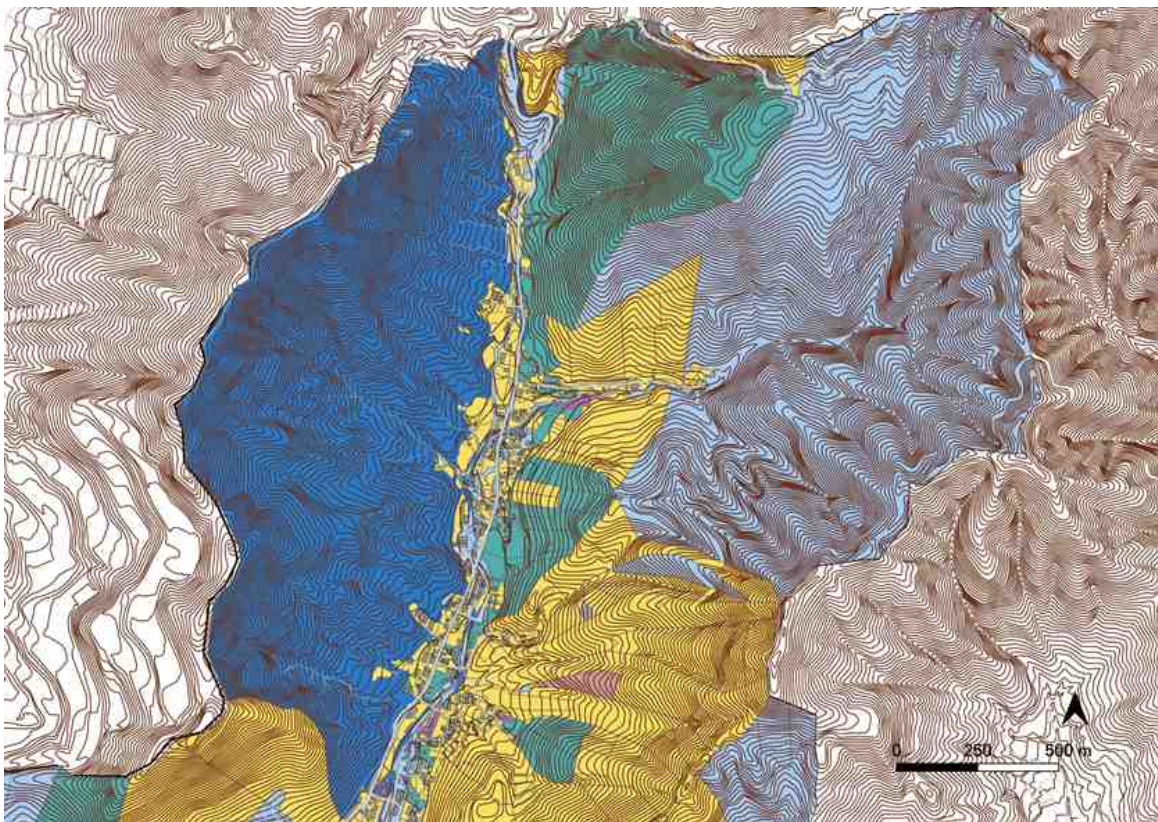


〈자료〉 'QGIS'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 지형 (등고 및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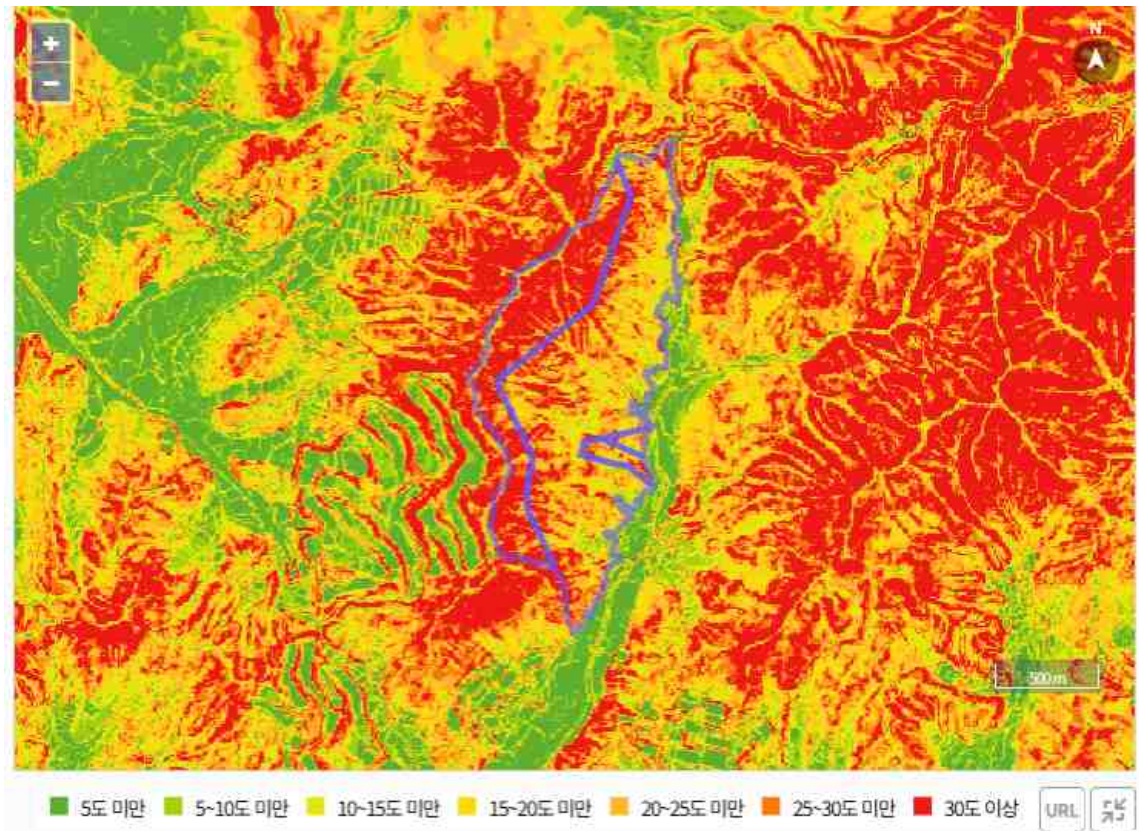
- 벽제리묘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형 산지 묘역으로 전통적 장묘문화에 따라 햇빛이 잘 드는 남향·남동향·남서향의 경사면을 중심으로 분묘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음
 - 산자락의 능선과 계곡의 등고선을 따라 단을 깎아 분묘를 배치한 계단식 구조를 띠
- 벽제리묘지는 표고(해발고도) 100-400m 사이의 산자락에 위치하며, 보광로를 중심으로 진입부(하단부)의 경사는 완만하지만 서편 능선을 따라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가팔라지는 지형임
 - 전체 면적의 87.5%가 경사도 15도 이상이며, 특히 30도 이상이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1998년 경기북부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로 인해 일부 분묘가 훼손·유실된 경향이 있을 정도로 경사면 관리가 중요한 지형으로, 현재 배수시설과 축대(옹벽)를 보강하여 사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4-7 | 벽제리묘지 등고선



〈자료〉 'QGIS'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4-8 | 벽제리묘지 경사도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1,389,582	100
5도 미만	4,093	0.3
5~10도 미만	35,856	2.6
10~15도 미만	133,771	9.6
15~20도 미만	227,833	16.4
20~25도 미만	281,448	20.3
25~30도 미만	259,088	18.6
30도 이상	447,493	32.2

〈자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https://ecvam.neins.go.kr/main.do>)'에서 분석 및 발취

2. 사회적 특성

□ 인구

- 벽제리묘지가 속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행정동인 고양동 기준, 2000년 이후로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 고양시 및 덕양구의 경우, 2000년 이후로 인구가 증가하다가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함
- 고양동의 경우, 2000-2024년의 기간 동안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고양시 및 덕양구 역시 2000-2024년의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함
 - 2024년 기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10.7%, 11.1%, 9.0%와 17.6%, 18.0%, 23.9%로 고양동의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고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음
 - 고양동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해당함

표 4-2 | 고양동(행정동)의 인구 변화 (2000-2024)

(단위 :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4
고양시	합계	762,598	864,402	897,222	990,073	1,045,497	1,047,592	1,044,968
	15세 미만	199,138 (26.1)	196,935 (22.8)	161,073 (18.0)	144,238 (14.6)	129,078 (12.3)	116,632 (11.1)	111,821 (10.7)
	65세 이상	43,946 (5.8)	64,919 (7.5)	84,359 (9.4)	109,145 (11.0)	144,331 (13.8)	172,076 (16.4)	183,613 (17.6)
고양시 덕양구	합계	360,408	375,812	372,973	425,100	460,881	484,424	482,446
	15세 미만	92,045 (25.5)	82,560 (22.0)	65,547 (17.6)	61,320 (14.4)	57,327 (12.4)	56,166 (11.6)	53,592 (11.1)
	65세 이상	21,073 (5.8)	29,909 (8.0)	38,007 (10.2)	51,117 (12.0)	67,874 (14.7)	81,748 (16.9)	86,602 (18.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합계	19,553	22,702	31,669	32,305	29,656	28,004	27,562
	15세 미만	4,718 (24.1)	4,872 (21.5)	6,294 (19.9)	5,383 (16.7)	3,783 (12.8)	2,809 (10.0)	2,493 (9.0)
	65세 이상	1,192 (6.1)	1,949 (8.6)	3,378 (10.7)	4,251 (13.2)	5,364 (18.1)	6,279 (22.4)	6,583 (23.9)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인구총조사” 데이터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벽제리묘지가 속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법정동인 벽제동 기준, 2023-2025년의 기간 동안 총 인구는 소폭 증감을 보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그 비율이 35.8%에 달함

※ 벽제리묘지 부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4-1, 산4-4, 산5, 산6-1 내의 총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 10명에 해당함 (노인 7명 포함)⁸⁾

표 4-3 | 벽제동(법정동)의 인구 변화 (2023-2025) (단위 : 명 (%))

구분		2023	2024	2025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합계	2,126	2,100	2,119
	15세 미만	83 (3.9)	85 (4.0)	87 (4.1)
	65세 이상	684 (32.2)	719 (34.2)	758 (35.8)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8) ‘국토환경성평가지도 (<https://webgis.neins.go.kr/map.do>)’의 “환경입지분석” 참고

□ 산업

- 벽제리묘지가 속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행정동인 고양동의 경우, 2024년 기준 총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각각 2,512개, 8,414명에 해당함
- 표준산업분류(11차)에 따라 ‘세세분류(96922)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 ‘대분류(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하는데, 고양동의 해당 대분류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각각 249개, 553명에 해당함
 - 표준산업분류(11차)에 따라 ‘세세분류(96922)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 ‘소분류(969) -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하는데, 고양동의 해당 소분류(969)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각각 62개, 260명에 해당함
 - 고양동의 해당 수치는 덕양구 내에서 가장 높음
- ※ 벽제리묘지 현장 관리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벽제리묘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묘지 관련 업무(별초, 잔디 식재 및 관리 등)로 생계를 유지 중임

표 4-4 | 고양동(행정동)의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산업 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 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2,512	8,414	J	정보통신업	56	81
A	농업, 임업 및 어업	5	14	K	금융 및 보험업	9	31
B	광업	-	-	L	부동산업	96	192
C	제조업	118	76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	8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	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5	172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26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67
F	건설업	211	756	P	교육 서비스업	123	1,097
G	도매 및 소매업	711	1,48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2	953
H	운수 및 창고업	350	88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9	217
I	숙박 및 음식점업	319	1,033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9	553

〈자료〉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표(고양시)’ 자료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표 4-5 | 장사시설 관련 표준산업분류 상세 (11차)

구분	코드	분류명
대분류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	969	•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	9692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96922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자료〉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index.jsp#)’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제5장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전략 수립

제1절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제2절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공간 계획

제1절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표 5-1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방향	내용
①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적 추진	•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②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의 공간적·기능적 전환	• 추모·치유 및 문화·여가 융합공간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주변지역 공간환경 개선 및 연결성 확장
③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기관 간 상생 협력 체계 정립 •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④ 관련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	• 노후 장사시설의 복합화·공원화 지원 체계 마련 • 장사시설에 대한 지속가능·미래지향적 모델 제안

〈자료〉 연구자 작성

(1)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적 추진

□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 벽제리묘지, 즉 공동묘지의 공원화 조성의 경우 기존 분묘의 이장(개장·화장), 지형 복원, 예산 확보 등 추진과정의 복잡성이 예상되기에, 물리적·행정적 절차를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묘 이장 및 토지 보상 등 지난한 선결 과제의 해결, 대규모 재원 투입에 따른 위험부담의 최소화 등을 위해 분묘 정비 - 녹지화 (산림복원) - 공원 조성 (수목원·정원) 등의 단계적 목표·방향을 마련함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005-2034)의 경우, 1단계·2단계·3단계(3-1, 3-2, 3-3, 3-4·5)로 추진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로 조성 기간·규모·예산, 주요 장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함

그림 5-1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도



〈자료〉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4·5단계)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인천광역시, 2026)’에서 발췌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시, 1단계로는 공간 정비 및 기반 구축, 2단계로는 기능 구현 및 거점 조성, 3단계로는 공간 활성화 및 가치 극대화로 구분 후 단계적 추진이 가능함
- 공간 정비 및 기반 구축 단계의 경우, 기존 묘지의 분묘들을 정비하고 녹지생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임

- 분묘 정밀 조사 및 이장 체계 확립 : 연고·무연고 분묘의 위치·기수·면적·관리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이장(개장·화장)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함

- ※ 지자체별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또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화장장려금(개장지원금)을 지원함

- 지형 안정화 및 훼손지 복원 : 분묘가 이장된 자리의 토사 유출 방지 및 훼손된 사면 보강 등 지형 안정화 작업과 함께, 지형·기후 등에 적합한 식재 작업을 통해 산림녹화를 진행함

- ※ 벽제리묘지의 대규모 면적 및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공원화와 관련된 국가 및 광역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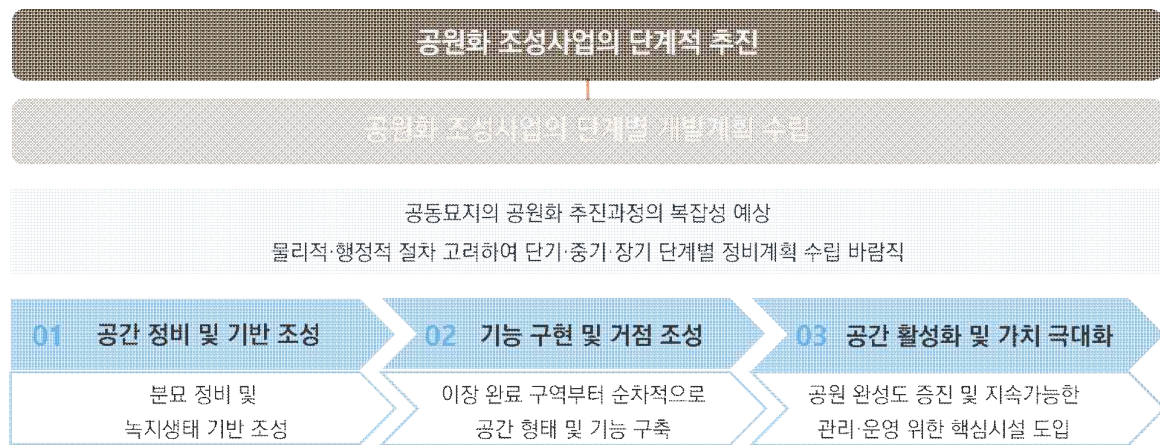
표 5-2 | 장사시설 공원화 시 활용 가능한 국가·광역지자체 지원사업

구분	사업	부서	지원
종합 공간계획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비 1:1 분담 (국비 최대 60억)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청	지방비 1:1 분담
	지방정원 조성사업	경기도	도비 30%, 시·군비 70%
기반시설 확충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지방비 1:1 분담 (개소 당 2.5억)
	녹색자금 지원사업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산림복지진흥원	총 사업비의 50% (개소 당 최대 33억)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환경부	국비 30%, 지방비 70%
장사방식 재편	산분장지 조성	보건복지부	국비 70% (개소 당 국비 1억 이내)

〈자료〉 연구자 작성

- 기능 구현 및 거점 조성 단계의 경우, 이장이 완료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수목원·정원 등의 공간 형태 및 기능을 갖추는 단계임
 - 수목원·정원 구역 내 테마정원 및 산책로 개설 : 전체 부지를 한 번에 개발하기보다는 단계별 구역도에 기반하여 분묘 이장이 끝난 구역부터 테마원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개방함
 - 추모공간으로서의 가치 정립 : 기존 분묘 내 유골의 화장 후 안장을 위한 납골당·자연장·산분장 등 장사시설 구역을 조성함과 동시에, 과거 공동묘지였던 장소의 역사적 가치 정립을 위해 기념비·광장 등을 마련함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전환 : 인근 주민 및 방문객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시도함
- 공간 활성화 및 가치 극대화 단계의 경우, 공원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핵심시설을 도입하는 최종 단계임
 - 복합 문화·편의시설의 건립 :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문자 센터, 전시·교육·체험관 등의 주요 건축공간을 구성함
 - 주변지역 연계 및 거점화 : 인근 거주 지역 및 기존 문화·관광 자원과의 물리적·인지적 연계를 통해 지역 거점으로 안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
 -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형 공원관리 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으로 공원을 관리·운영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함

그림 5-2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1)



〈자료〉 연구자 작성

(2)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의 공간적·기능적 전환

□ 추모·치유 및 문화·여가 융합공간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간적 관점에서, 기존 벽제리묘지가 위치한 산자락의 지형 등 자연적 요소를 보전·유지한 상태로 추가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원·정원 등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장사시설을 연계·설치함으로써 기피시설의 거점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도적 융합 모델을 제시함

- 벽제리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과 수목원·정원 등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가 융합된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필요한 공간을 구성 후 이들을 물리적(동선)·시각적 측면 등에서 적절히 분리함과 동시에 연계시킬 수 있는 공간적 전략이 요구됨

- 벽제리묘지를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 전환 시, 자연산림 및 생태숲, 수목원 및 정원, 자연친화적 산책로, 자연장·산분장지, 추모광장 등의 공간을 융합하여 조성 가능함
- 자연산림 및 생태숲 : 분묘 이장 부지의 지형을 안정화한 후 자생 수종 중심의 밀도 높은 숲을 조성하여 도심 속 거대한 그린인프라를 구축함
- 수목원 및 정원 : 자연산림 및 생태숲과 조화를 이루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는 테마정원 등을 배치·조성함
- 자연친화적 산책로 : 자연산림·생태숲 및 수목원·정원을 둘레길, 무장애(Barrier-Free) 데크길 등으로 연결하여 보행 접근성을 개선함
- 자연장·산분장지 : 전통적인 봉분 형태의 묘지 매장 방식을 탈피하여 나무 또는 잔디 아래 유골을 안치하거나 산 또는 강 등에 유골을 뿌리는 친환경 자연장·산분장으로 고도화함
- 추모광장 : 장사시설을 슬픔·절망의 공간을 넘어 사색·성찰이 가능한 열린 추모공간으로 연출함

※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우드랜드 공동묘지(스코그스쉬르코고르텐)의 경우, 기존 소나무 숲 지형을 보존하면서 건축을 자연에 종속시킨 설계를 통해 공동묘지를 추모·치유 및 문화·여가가 결합된 공공공간으로 구성함

○ 기능적 관점에서, 기존의 장사시설 기능은 유지하지만 장사방식의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일반 방문객을 목적지로서 유인하기 위해 문화·여가·휴양 기능을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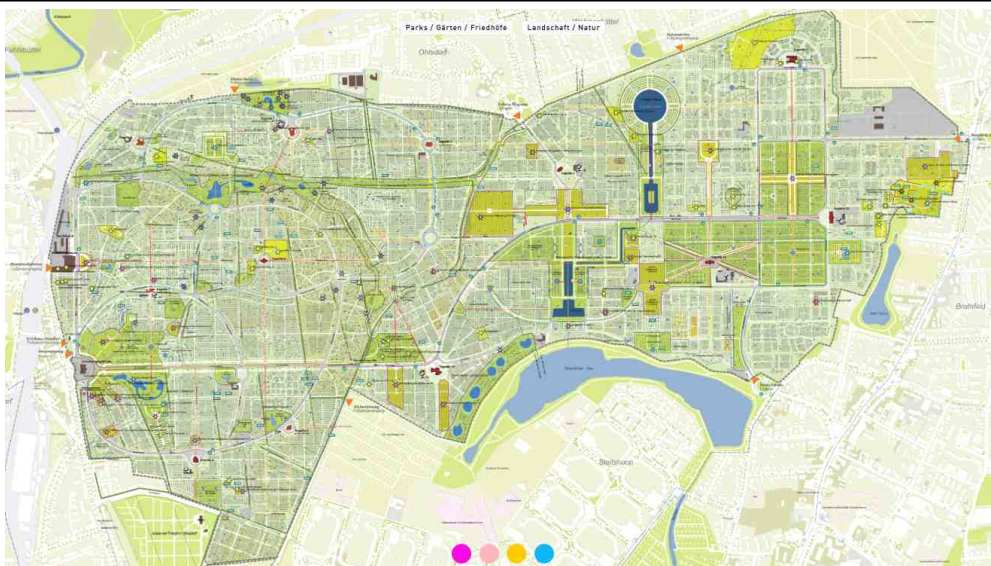
- 기존의 도심 외곽 공동묘지로서의 역할 및 지위를 넘어 추모·치유·문화·여가 기능을 융합 시킴으로써, 방문객을 유인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 공공공간으로 변화시킴

- 벽제리묘지 대상지에 추모·치유 및 문화·여가 기능을 융합 시, 거점시설(방문자 센터, 전시·교육·체험관 등) 건립,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전시회, 버스킹 등) 운영, 웰니스(Wellness) 콘텐츠(요가, 명상, 치유 등) 연계 등의 방식으로 접근 가능함

□ 주변지역 공간환경 개선 및 연결성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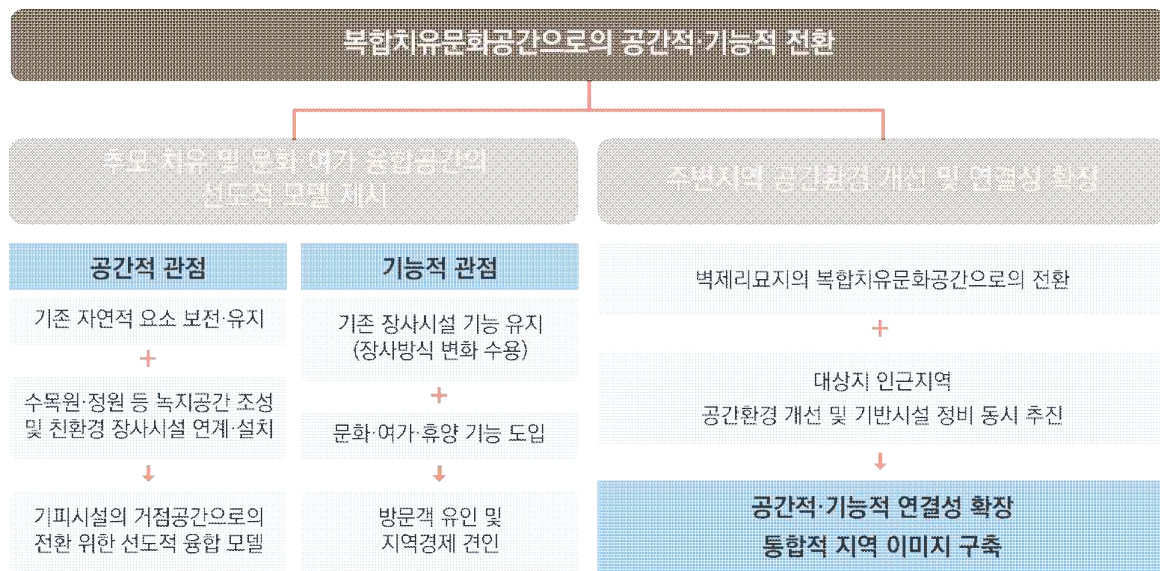
- 벽제리묘지를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 전환 시 대상지 인근지역의 공간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동시 추진하여 공간적·기능적 연결성을 확장하고 통합적 지역 이미지를 구축함
 - 과거 기피시설로서 단절·고립되어 존재했던 벽제리묘지의 경계를 허물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함
 - 진입로 정비 및 보행로 연계 : 주요 진입 도로, 지역 내 둘레길·산책로 등 주변 공간환경과 공원 내부 동선(무장애 보행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일상적인 차량 및 도보 접근성을 향상함
 - 대중교통 노선 확대 :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방문객의 대중교통을 활용한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구역을 경유하는 시내·외 버스노선의 조정을 통해 정류소를 추가하며,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함
 - 개방형 광장 조성 : 공원 진입부를 개방형 광장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기존 벽제리묘지 부지가 가졌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완화함
- ※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올스도르프 공원묘지의 경우, 공원묘지 내부로의 도시 인프라(도로망, 대중교통 등) 흡수·조성,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활동 적극 수용 등 도시조직 및 시민생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함
- 벽제리묘지의 공원화 조성 추진 시, 도로 포장, 생활SOC(마을회관, 노인정 등) 확충 등 주변지역 공간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쇄신과 주민 인식 전환에 기여함
- ※ 주민지원기금 조성,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방식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이 가능함

그림 5-3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와 주변 도시조직



〈자료〉 'bgmr Landschaftsarchitekten (<https://www.bgmr.de/de/projekte/ohlsdorf2050>)'에서 발췌

그림 5-4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2)



〈자료〉 연구자 작성

(3)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기관 간 상생 협력 체계 정립

- 벽제리묘지가 고양시 관할구역 내에 입지하지만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및 서울시설공단 운영시설이라는 점, 시설·기능이 융합된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계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획·계획의 측면에서, 고양시 및 서울시(서울시설공단) 양 지자체 간 합리적인 정책적 의사결정 도출 등을 위해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서 '행정 협의체'를 상설화함
 - 상설 공동실무협의회 구성 : 분묘 이장 계획, 재원 분담, 인허가 절차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함
 - 합리적 역할 분담 모델 확립 : 부지 소유주인 서울시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관해 양 지자체 간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 일례로, 서울시에서 분묘 이장 및 보상, 초기 기반 조성 등을 분담할 경우, 고양시에서는 공원화 관련 인허가 지원, 주변 공간환경 개선 등을 분담함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운영·관리의 측면에서, 기존 단일 용도에서 추후 시설·기능이 융합된 복합 용도로 전환될 경우 원활히 작동 가능한 지속가능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함
 - 운영·관리 체계 설정 : 공원화 조성 완료 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운영 주체를 조기에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
 - ※ 일례로, 고양시 위탁 운영, 서울시설공단 공동 관리 등의 방식을 채택 가능함
 -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공원 내 시설(식당·매점·카페 등 편의시설, 화환 및 장구류 판매처, 숲 해설 프로그램 등) 운영 시 고양시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 특산물 판매 공간 제공 등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함
 - ※ 장사시설의 신설·증축 및 정비 시, 주민협의체 등에게 장사시설 내 부대시설 운영권을 우선 위탁하거나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자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 공원화 조성의 기획·계획 및 운영·관리 단계에서 고양시민이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양 지자체는 관련 갈등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 주민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고양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참여 지원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획 단계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벽제동) 등 인근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시설·기능 구성, 주변 공간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 주민 설명회 정례화 : 정례적인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분묘 이장 등 절차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공유하고 단계별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을 제고함
-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사례의 경우, 'Ohlsdorf 2050' 프로젝트를 통해 함부르크 최대 규모의 공공녹지 중 하나인 올스도르프 공원묘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 9월 13-21일의 기간 동안 네 차례의 'Nachbarschaftscafés(이웃카페)'라고 하는 주민협의체 모임을 통해 계획 관련 정보 공유, 중점과제 설정, 아이디어 제안 등의 주민참여 활동을 진행함
- ※ 2018년 9월 진행된 'Nachbarschaftscafés(이웃카페)'의 결과물로서, 시민참여(Bürgerbeteiligung)를 근간으로 하는 세부과제가 도출됨 (총 12개 중 5개)

그림 5-5 | 'Ohlsdorf 2050' 프로젝트의 'Nachbarschaftscafés(이웃카페)'를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 과제



〈자료〉 'Ohlsdorf 2050 - Präsentation des Parkmanagements und der baulichen Maßnahmen auf dem Ohlsdorfer Friedhof'에서 발췌

그림 5-6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기본 방향 (3)



〈자료〉 연구자 작성

(4) 관련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

□ 노후 장사시설의 복합화·공원화 지원 체계 마련

- 기존 노후화된 공동묘지·봉안당 등이 도시공간 확장과 함께 도심 내 기피시설로 고립된 후 주민들의 이전 또는 정비 요구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노후 장사시설의 복합화·현대화·공원화를 적극 장려하고 계획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련 법제도의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기존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장사시설을 시민 친화적인 복합 공공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력을 구축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관련 조항의 신설을 검토 가능함
 - 전국에 산재한 벽제리묘지와 같은 노후 공동묘지의 정비 시 대규모 예산 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노후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국비 지원 특례 : 조성된 지 일정 기간(예, 30-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묘지 등을 대상으로 복합화·현대화·공원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일부(토사 유출 방지 및 토양 복원비, 조경비 등)를 국비나 도비로 보조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함
 - 민간 재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 : 노후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에 민간 자본이나 공공기관(LH, SH, GH 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융자 지원,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 기준을 마련함
- ※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상에 ‘공원화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을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표 5-3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내 ‘공원화’ 명시 조항

법제도	항목		내용
고양시 장사시설 조례	제2조 (정의)	용어 정의	•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함 • “공설묘지”란 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함 •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함 •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함
	제4조 (시책의 수립·시행)	시책 수립·시행	•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가. 분묘의 개장 후 화장 지원 (공설·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한정) 나.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의 추진 -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9조 (시범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범 장사 시설 •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자료〉 연구자 작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입지 규제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관련 내용의 추가를 검토 가능함

- 장사시설의 공원화 시 문화·여가 관련 시설·기능을 복합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제한의 완화 등 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 기반시설 복합화의 제도적 수단 활용 : 하나의 부지에 장사시설(보건위생시설)과 도시공원(공간시설) 및 문화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동시에 중복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상 가이드라인을 정비함

※ 도심 내 노후 장사시설 부지를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적·건축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함

그림 5-7 | 기반시설 복합화의 제도적 수단

구분	중복 결정	입체적 결정	
	시설부지 내 서로 다른 시설 설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비시설부지 내 시설 설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설부지 내 비시설 설치 허가 (시설결정 + 개발행위 예외규정)
근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칙 4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결정방식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시설부지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개념도			
인허가절차	시설2개 각각 사업 (2번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시설은 건축허가 (용도지역지구 규제 적용)	비시설은 건축허가 (용도지역지구 규제 적용)

〈자료〉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2015)'에서 발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장사시설 및 주변지역의 통합 정비를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 가능함
 - 장사시설과 같은 기파·혐오시설 주변지역은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이미지 훼손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낙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도시재생의 범주에 포함시켜 장사시설의 정비 효과를 주변지역까지 확산시킴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검토 : 도심 내 노후 장사시설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에 포함시켜, 장사시설 주변의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

□ 장사시설에 대한 지속가능·미래지향적 모델 제안

- 벽제리묘지를 포함하여 전국 노후 장사시설에 대한 현대화·공원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례문화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측면에서 혁신적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최근 “AIP (Aging in Place)” 개념의 확산과 함께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익숙한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여 사망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장사되어 소속될 수 있는 “Dying in Place”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정비 시 소규모 장사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함
 - 기존의 다소 경직된 도시공원 분류체계를 완화하여 도심 내 공원에서도 자연친화적 추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의 인식 전환에 기여함
 - 생활권공원 내 장사시설 허용 기준 신설 : 도심 내 노후화된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의 정비(리모델링) 시, 일정 비율(예, 전체 공원 면적의 5-10% 이내) 이하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장사시설(식물원형 수목장·잔디장, 지하형 봉안시설 등)을 연계·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
 - ※ 현재 묘지공원(도시공원-주제공원-묘지공원)의 경우, “정숙한 장소로 장례 시가화가 예상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에 10만㎡ 이상으로 설치”로 입지 및 규모가 제한됨
 - ※ 소규모 장사시설(공설묘지, 봉안당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신규 개발 시 계획·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함
 - 하나의 장사시설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여할 시, 지자체 간 협력 및 장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공동 조례를 제정함
 - 벽제리묘지와 같이 소유주(서울시)와 관할지(고양시)가 이원화된 경우 등 하나의 장사시

설에 다수의 지자체가 관여할 시 발생하는 행·재정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기준을 정립함

- 교차 관할 장사시설 조례 제정 : 장사시설 공원화 조성 시 다수의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위해 지자체 간 비용 분담, 인허가 의제 처리, 수익 환원 비율 등을 규정하는 상생 조례 가이드라인을 구축함

※ 해당 조례에 장사시설 공원화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변지역 주민 복지기금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가능함

○ 추후 장사시설, 특히 공설·공동묘지의 정비 시에는 도시 중심부 또는 주변부 등의 유형 구분 후 그 특성에 기반하여 정비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벽제리묘지와 같이 도시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장사시설의 경우, 복합화·공원화를 통해 복합치유문화공간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우드랜드 공동묘지(스코그스쉬르코고르덴)’를 포함한 유럽의 공동묘지들은 대규모 부지에 자연요소와 건축 및 조경을 결합·연계한 공원묘지를 조성해 오고 있음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사례의 경우, 점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묘지가 증가한다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묘지 일부 구역을 용도변경·활용할 것을 계획함

※ ‘Ohlsdorf 2050’의 틀 안에서 공원묘지 공간을 ‘집중/광역 공동묘지 구역’과 ‘집중/광역 공원 구역’으로 구분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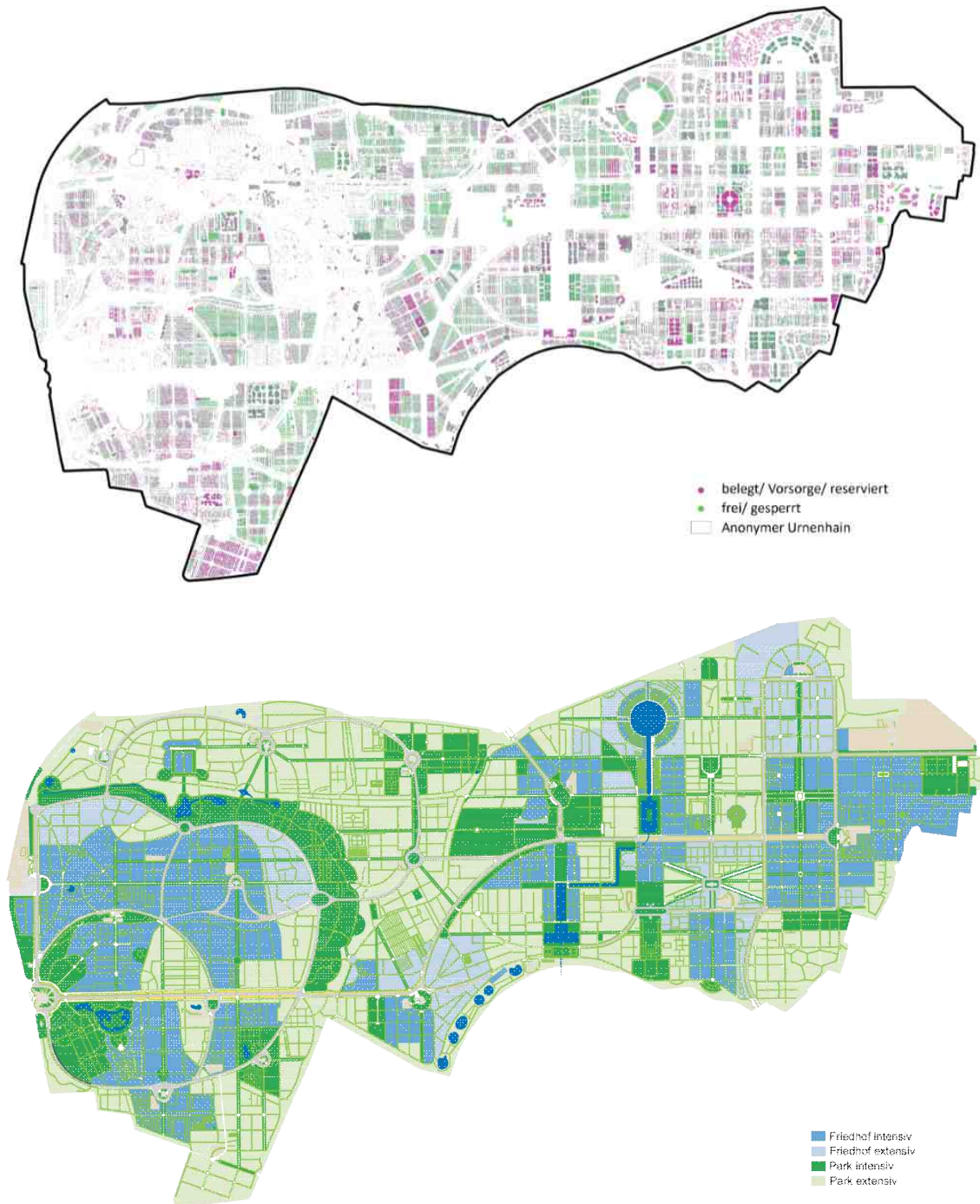
※ 공동묘지 구역은 기존의 장례 및 매장 절차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공간(전체 389ha 중 약 120-140ha)을, 공원 구역은 장례 관련 운영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공간(산책, 자연관찰, 놀이 및 교류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을 의미함

- 한편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장사시설의 경우, 도시공간적·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도시조직 및 시민생활에 적극 편입되어 일상의 일부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예를 들면, 미국 보스턴에는 역사적인 명소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 위에 빨간색 안내선을 그려 놓은 ‘프리덤 트레일 (Freedom Trail)’이 조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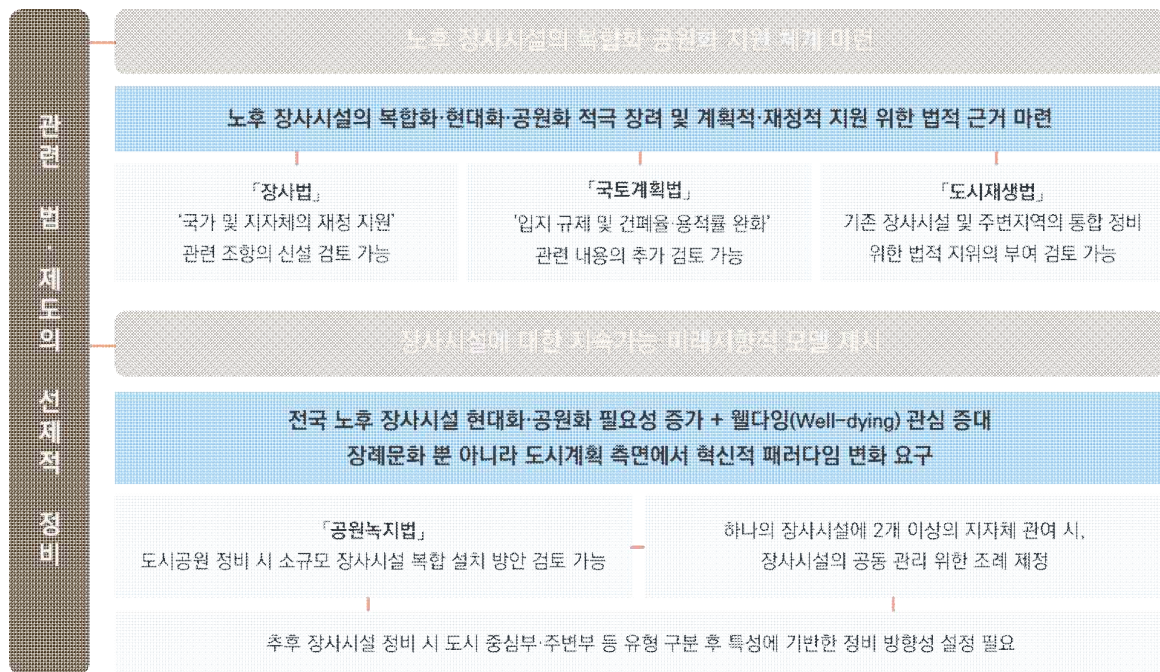
• 명소들 중 ‘King’s Chapel Burying Ground’, ‘Granary Burying Ground’ 등은 미국 식민지 초기 보스턴의 기원을 지닌 인물들과 미국 독립의 핵심 인물들의 묘비가 위치한 곳으로, 보스턴 내 도심공원의 형태로 조성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역사를 체험하고 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 함

그림 5-8 | 올스도르프 공원묘지 내 사용/미사용 구역 및 집중·광역 공동묘지/공원 구역



〈자료〉 'bgmr Landschaftsarchitekten (<https://www.bgmr.de/de/projekte/ohlsdorf2050>)' 및 'OHLSDORF DE R PARK (<https://www.ohlsdorf-derpark.de/der-park/>)'에서 발췌

그림 5-9 | 벽제리묘지 공원과 조성의 기본 방향 (4)



〈자료〉 연구자 작성

제2절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의 공간 계획

1) 공간 구상(안)

□ 구역 설정 (Zoning)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을 통한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의 전환 시, 필요성·타당성 등에 기반하여 구성 가능한 기능·시설을 선정한 후 지형(경사 등), 소요면적·비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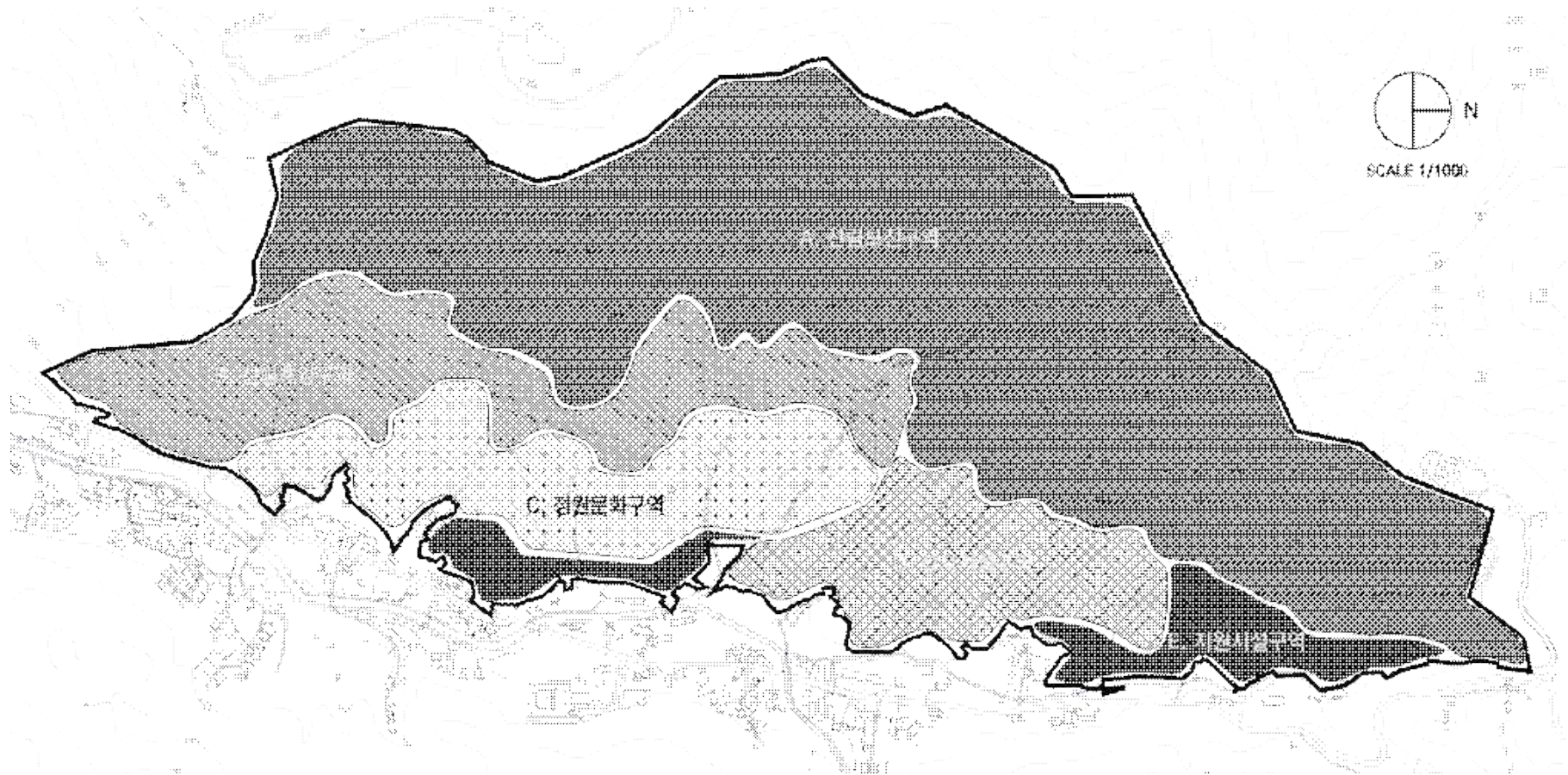
- ① 산림보전구역, ② 산림휴양구역, ③ 정원문화구역, ④ 장사시설구역, ⑤ 지원시설구역의 총 5개의 구역으로 구분된 구역도(안)을 제시함
 - 산림보전구역의 경우, 기존 부지의 토지용도·지목(임야),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보전 산림으로 설정하며, 전망대 및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여 원형 숲의 보전·관리 기능의 범위 안에서 경관 조망 및 산책 등의 공간이용·활동이 가능함
 - 산림휴양구역의 경우, 산림화 및 야영장 조성 등을 통해 치유·휴양을 위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공원 이용률 제고,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체류 거점으로서 역할 함
 - 정원문화구역의 경우, 야외 주제정원 및 주요 건축물(집객시설)로 구성된 거점공간으로서 방문객들에게 수목원·정원에 대한 관광·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 주제정원의 구상 시, 대상지 내부에서 동측의 벽제천으로 합류하는 수계 요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사시설구역의 경우, 봉안당·수목장·산분장 등 자연친화적·수요맞춤형 장사시설로 재구성하고 정원문화구역과의 공간적 분리 및 연계를 위해 전이공간으로서 추모숲·추모광장을 배치함
- 지원시설구역의 경우, 공원 내 수목의 관리·활용을 위한 가식장, 방문차량 수용 및 동선 처리를 위한 진입부·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복합치유문화공간의 운영을 지원함
- ※ 가식장은 조경·수목 공사에서 굴취한 나무를 일정 기간 임시로 심어 보관하는 장소로서, 경관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북측에 배치함

표 5-4 | 구역별 기능·시설 및 규모

구역		기능	세부시설	규모			특성
				비율 (%)	면적 (㎡)		
A	산림보전구역	원형 숲 보전·관리	보전 산림	54.4	약 756,456	756,000	• 무장애(BF, Barrier Free) 산책로 조성 • 파노라마 경관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 배치
			전망대			456	
B	산림휴양구역	산림화를 통한 치유·휴양	개방형 산림, 치유숲, 야영장	19.6	약 272,743	270,849	• 산림 속 치유·휴양이 가능한 체류형 시설 (야영장) 조성 • 공원 이용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치유숲센터, 야영센터, 위생동			1,894	
C	정원문화구역	거점공간으로서 관광·체험	주제정원	8.6	약 120,136	115,000	• 주제·규모 등에 따른 유형별 테마정원 조성으로 방문객의 정원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실내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원 이용의 편리성 향상
			수목원, 실내온실, 원예치유동, 전시·교육동, 문화·체험동, 방문자센터, 판매동, F&B시설			5,136	
D	장사시설구역	장사방식 재편	추모숲, 추모광장, 수목장·산분장	10.3	약 143,126	141,722	• 봉안당·수목장·산분장 등 자연친화적 장사 시설로의 재구조화 • 정원문화구역과의 전이공간으로서 추모숲 및 추모광장 배치
			봉안·추모동, 관리동			1,404	
E	지원시설구역	공원 운영·관리 지원	가식장, 주차장	7.1	약 97,987	95,500	• 공원 내 수목의 관리·활용을 위한 가식장 조성 • 남측·북측 주차장(각 300대 규모) 조성으로 방문차량 수용 및 동선 처리
			가식장 관리동, 주차 관리동, 방재·유지관리 창고, 공중화장실, (+ 모노레일 승강장)			2,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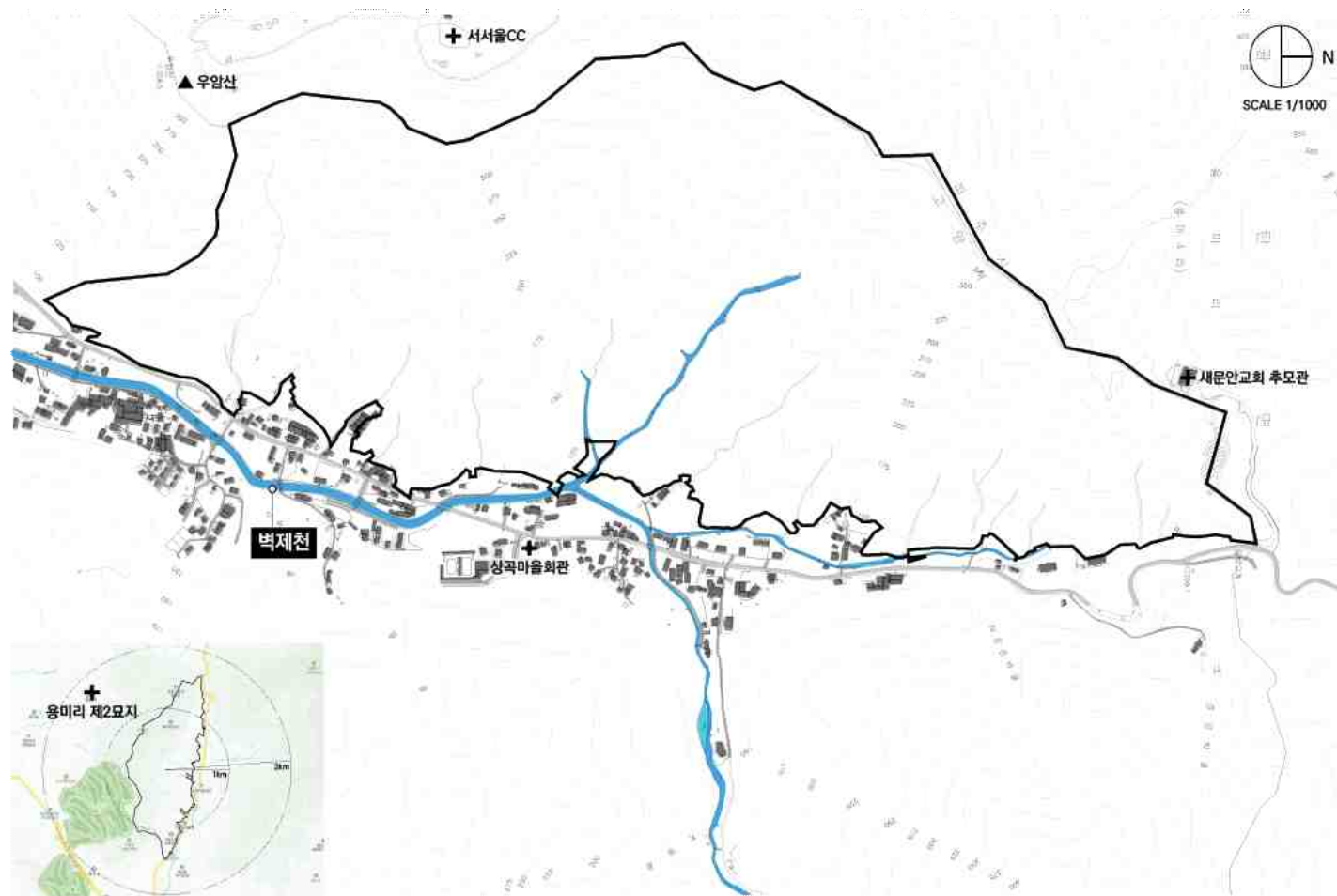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10 | 구역도(안)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11 | 대상지 인근 벽제천 수계



〈자료〉 연구자 작성

□ 동선 설계

- 벽제리묘지 공원화 조성을 통한 복합치유문화공간으로의 전환 시, 구역 설정, 기능·시설 배치, 지형(경사 등) 등의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 및 모노레일을 중심으로 동선을 설계함
 - 대상지가 서측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심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경사를 따라 Z자형의 무장에 데크길을 구성함
 - 정원문화구역에서 출발하는 보행로 A구간(A-1, A-2)은 약 2.7km, 장사시설구역에서 출발하는 보행로 B구간은 약 2.2km의 길이에 해당함
 - ※ 보행로 A구간의 A-1은 세부공간 구성 1안, A-2는 세부공간 구성 2안에 해당함
 - 대상지 중심부에 산림보전구역·산림휴양구역·정원문화구역을 아울러 순환하는 모노레일 선로를 구성함
 - 정원문화구역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순환하는 모노레일 선로의 길이는 약 2km에 해당함

표 5-5 | 무장에 데크길 및 모노레일 동선의 구간별 길이

무장에 데크길				모노레일		
구간		길이 (km)	범례	구간	길이 (km)	범례
무장에 데크길 A-1	(1안)	2.86		전체	2.01	
무장에 데크길 A-2	(2안)	2.61		A → B	0.48	
무장에 데크길 A 출발·종료지점	-	-		B → C	0.34	
무장에 데크길 B	-	2.22		C → D	0.61	
무장에 데크길 B 출발·종료지점	-	-		D → A	0.58	
전망대	-	-		승강장	-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12 | 무장애 데크길 및 모노레일 동선(안)



〈자료〉 연구자 작성

□ 세부공간 구상 - 1안

○ 세부공간 구상 1안의 경우, 정원문화구역 및 산림휴양구역 내에 야외 주제정원·치유숲 등과 함께 복합형·거점형 건축물을 구성·배치함

표 5-6 | 세부공간 구상 1안의 시설별 공간 유형 및 규모

시설	공간 규모	건축 면적 (㎡)*	유형	범례	시설	공간 규모	건축 면적 (㎡)	유형	범례
A. 산림보전구역					D. 장사시설구역				
보전 산림	대지 약 54.4%	약 756,000	녹지		추모숲	-	74,727	외부공간	
전망대	1동 2F	375	건물		추모광장	-	39,736	외부공간	
B. 산림휴양구역					수목장 1차 (2,000기)	-	11,719	외부공간	
개방형 산림	-	148,040	녹지		수목장 2차 (2,000기)	-	12,775	외부공간	
치유숲	-	99,953	녹지		산분장지	-	2,815	외부공간	
야영장	-	23,114	외부공간		봉안·추모동 (4,000기)	1동 3F	2,160	건물	
치유숲 센터	1동 2F	2,495	건물		관리동	1동 1F	204	건물	
야영센터	1동 2F	965	건물		E. 지원시설구역				
위생동	3동 1F	200	건물		가식장	-	72,287	외부공간	

C. 정원문화구역**					주차장-남측	1동 1F	13,282	외부공간	
몰입형 정원	5개소	각 10,000 이상	외부공간		주차장-북측	1동 1F	9,931	외부공간	
감각형 정원	5개소	각 약 7,000	외부공간		가식장 관리동	1동 1F	270	건물	
참여형 정원	6개소	각 5,000 이하	외부공간		주차관리동	2동 1F	각 150	건물	
실내 수목원	1동 2F	2,480	건물		방재·유지관리 창고	1동 1F	270	건물	
전시·교육·문화·체험동	1동 2F	1,995	건물		공중화장실 (T)	5동 1F	각 72	건물	
방문자센터	1동 2F	4,580	건물		모노레일 승강장	4동 1F	각 216	건물	

〈자료〉 연구자 작성

*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으로, 수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① 몰입형 정원 : 야생화·소나무·조각·언덕·연못정원 등; ② 감각형 정원 : 향기·소리·햇빛·바람정원 등; ③ 참여형 정원 : 채소·약초·이끼·시민·관찰정원 등

□ 세부공간 구상 (2안)

○ 세부공간 구상 2안의 경우, 정원문화구역 및 산림휴양구역 내에 야외 주제정원·치유숲 등과 함께 단일형·분산형 건축물을 구성·배치함

표 5-7 | 세부공간 구상 2안의 시설별 공간 유형 및 규모

시설	공간 규모	건축 면적 (㎡)*	유형	범례	시설	공간 규모	건축 면적 (㎡)	유형	범례
A. 산림보전구역					D. 장사시설구역				
보전 산림	대지 약 54.4%	약 756,000	녹지		추모숲	-	74,727	외부공간	
전망대	1동 2F	375	건물		추모광장	-	39,736	외부공간	
B. 산림휴양구역					수목장 1차 (2,000기)	-	11,719	외부공간	
개방형 산림	-	148,040	녹지		수목장 2차 (2,000기)	-	12,775	외부공간	
치유숲	-	99,953	녹지		산분장지	-	2,815	외부공간	
야영장	-	23,114	외부공간		봉안·추모동 (4,000기)	1동 3F	1,200	건물	
치유숲 센터	1동 2F	729	건물		관리동	1동 1F	204	건물	
야영센터	1동 2F	965	건물		E. 지원시설구역				
위생동	3동 1F	200	건물		가식장	-	72,287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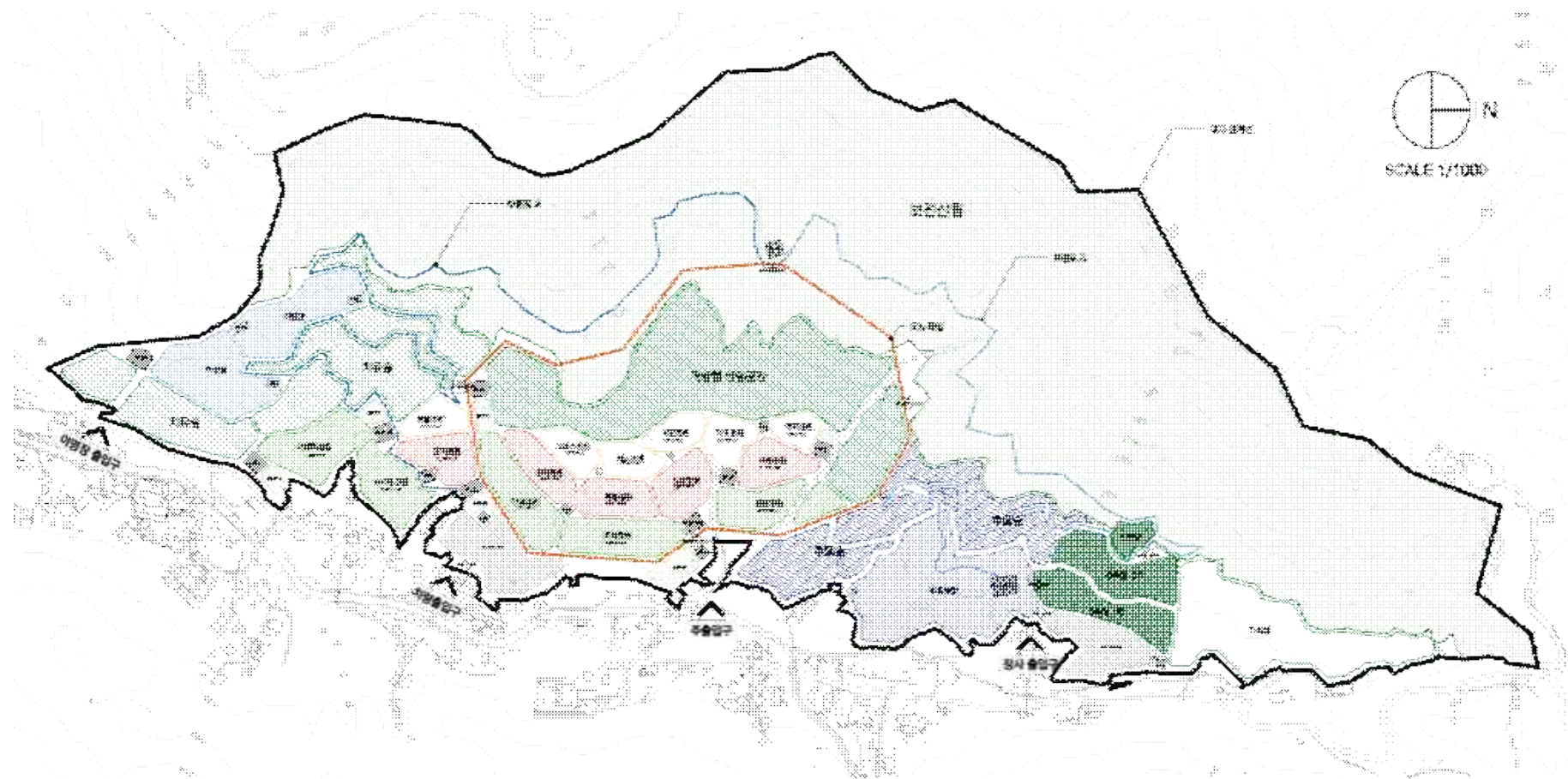
C. 정원문화구역**					주차장-남측	1동 1F	13,282	외부공간	
몰입형 정원	5개소	각 10,000 이상	외부공간		주차장-북측	1동 1F	9,931	외부공간	
감각형 정원	5개소	각 약 7,000	외부공간		가식장 관리동	1동 1F	270	건물	
참여형 정원	6개소	각 5,000 이하	외부공간		주차관리동	2동 1F	각 150	건물	
수목원	1동 2F	700	건물		방재·유지관리 창고	1동 1F	270	건물	
실내온실	1동 2F	700	건물		공중화장실 (T)	4동 1F	각 72	건물	
원예동	1동 2F	729	건물		모노레일 승강장	4동 1F	각 216	건물	
전시동	1동 2F	625	건물		판매동	1동 2F	225	건물	
교육동	1동 2F	625	건물		관리사무소	1동 2F	270	건물	
문화동	1동 2F	625	건물						
방문자센터	1동 2F	700	건물						
F&B	2동 2F	각 216	건물						

〈자료〉 연구자 작성

*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으로, 수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① 몰입형 정원 : 야생화·소나무·조각·언덕·연못정원 등; ② 감각형 정원 : 향기·소리·햇빛·바람정원 등; ③ 참여형 정원 : 채소·약초·이끼·시민·관찰정원 등

그림 5-14 | 세부공간 구성 (2안)



〈자료〉 연구자 작성

2) 공간 시각화

※ 시각화 프로그램(SketchUp, Rhino, Illustrator, Photoshop,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조감도·투시도 등 공간 계획의 시각적 결과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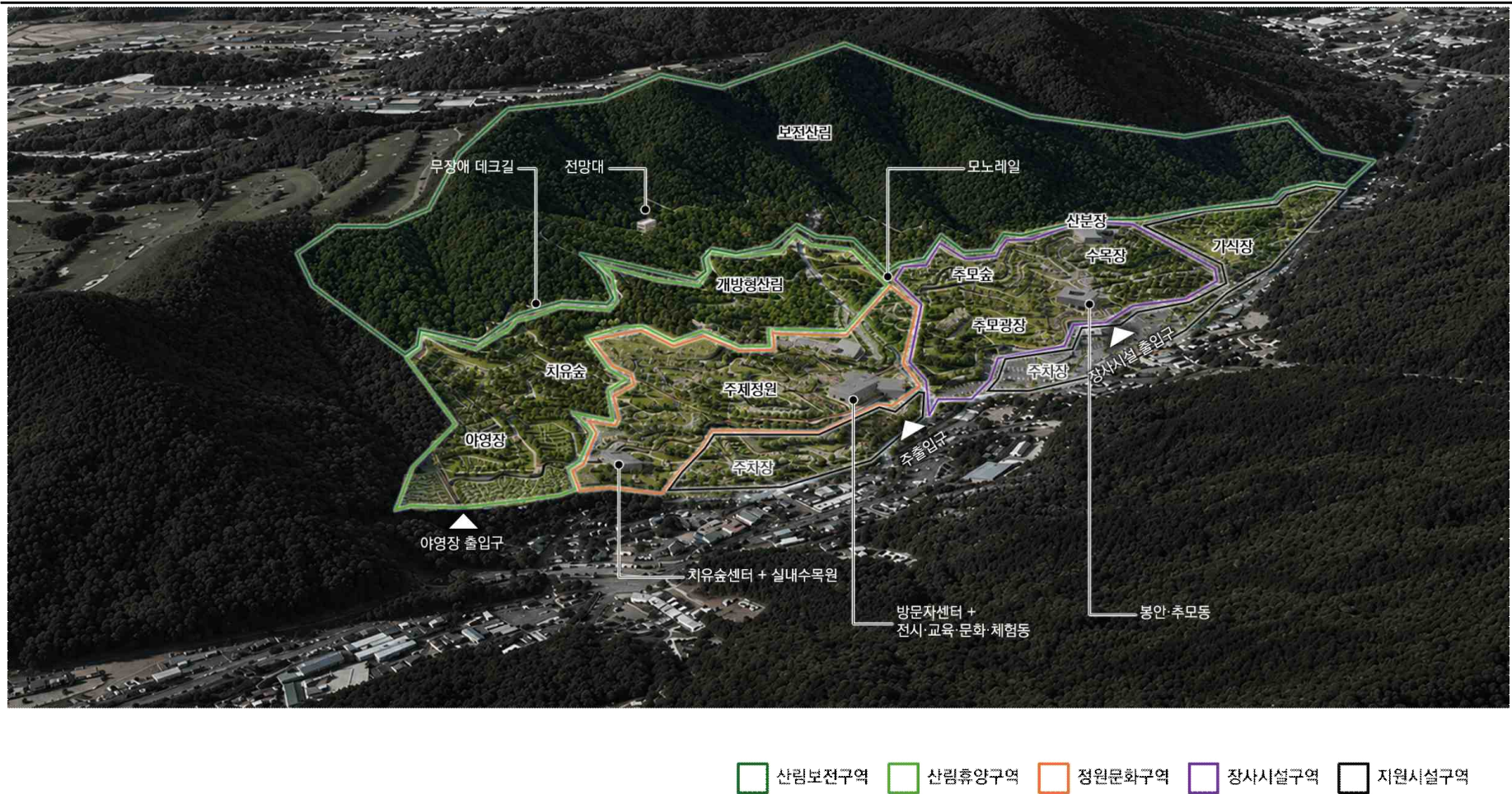
□ 조감도

그림 5-15 | 세부공간 구성 1안 - 남측 (1)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16 | 세부공간 구성 1안 - 남측 (2)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17 | 세부공간 구성 1안 - 북측 (1)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18 | 세부공간 구성 1안 - 북측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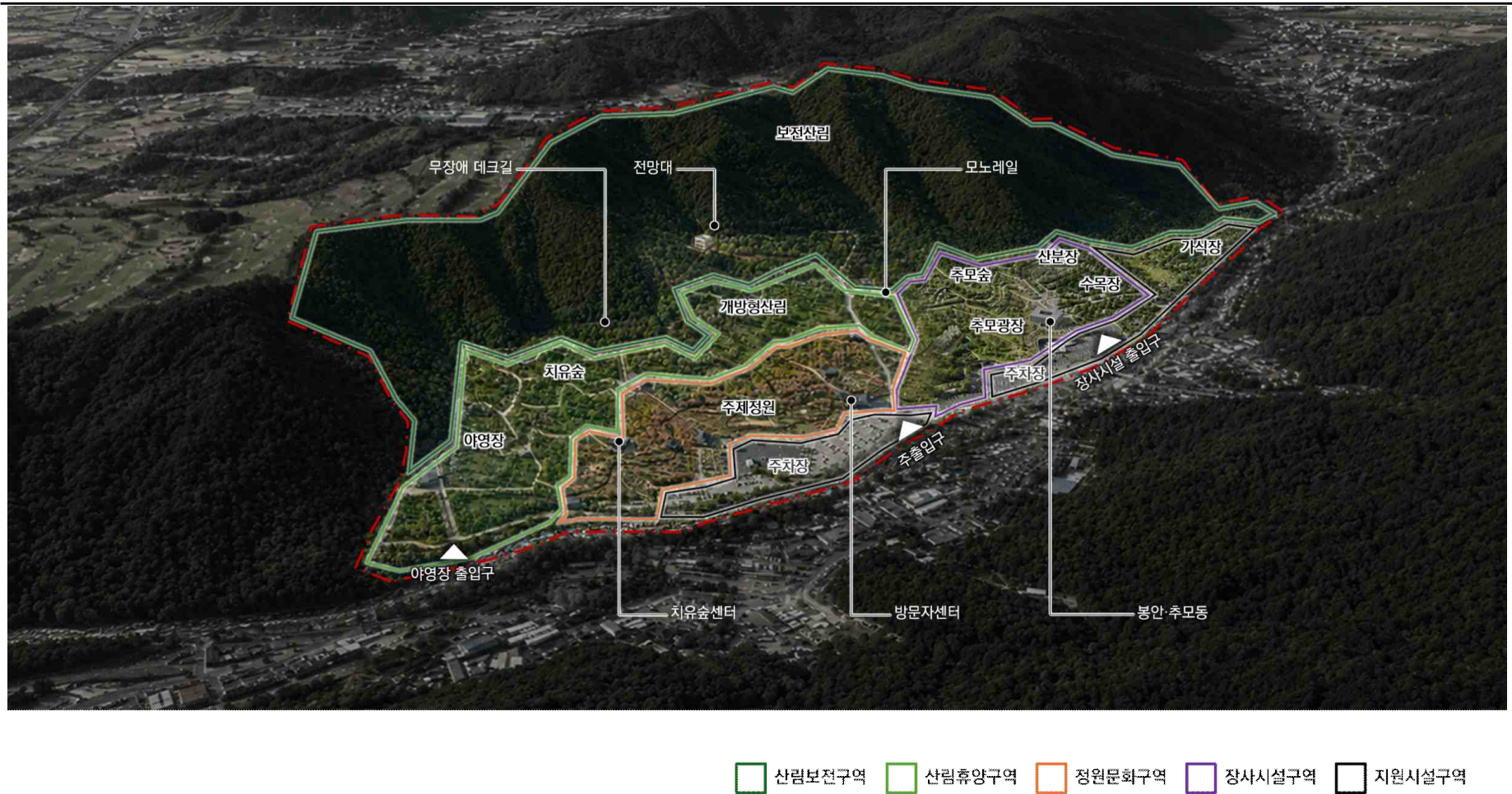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19 | 세부공간 구성 2안 - 남측 (1)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0 | 세부공간 구성 2안 - 남측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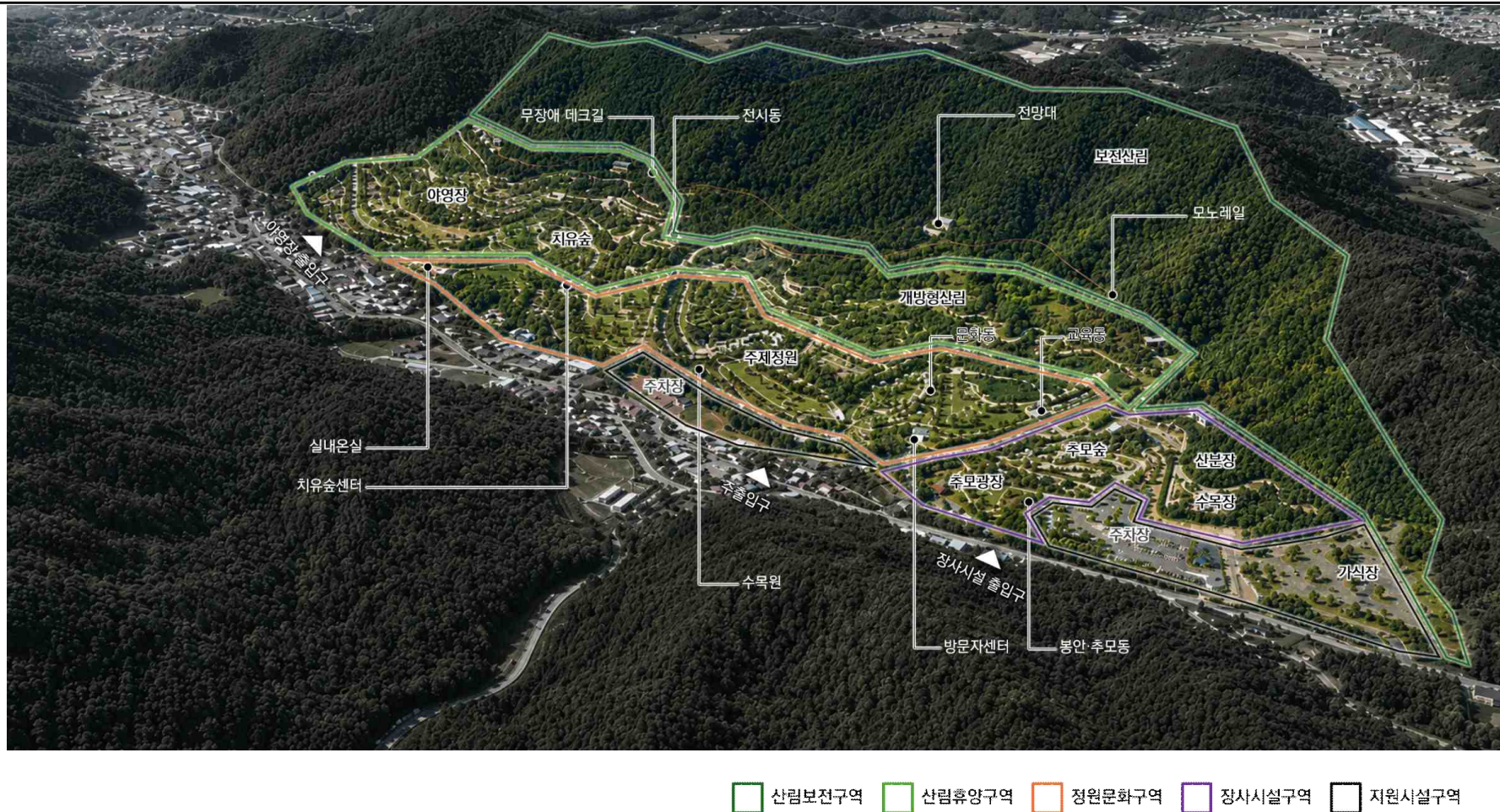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1 | 세부공간 구성 2안 - 북측 (1)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2 | 세부공간 구성 2안 - 북측 (2)



〈자료〉 연구자 작성

□ 투시도

그림 5-23 | 산림보전구역 (1)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4 | 산림보전구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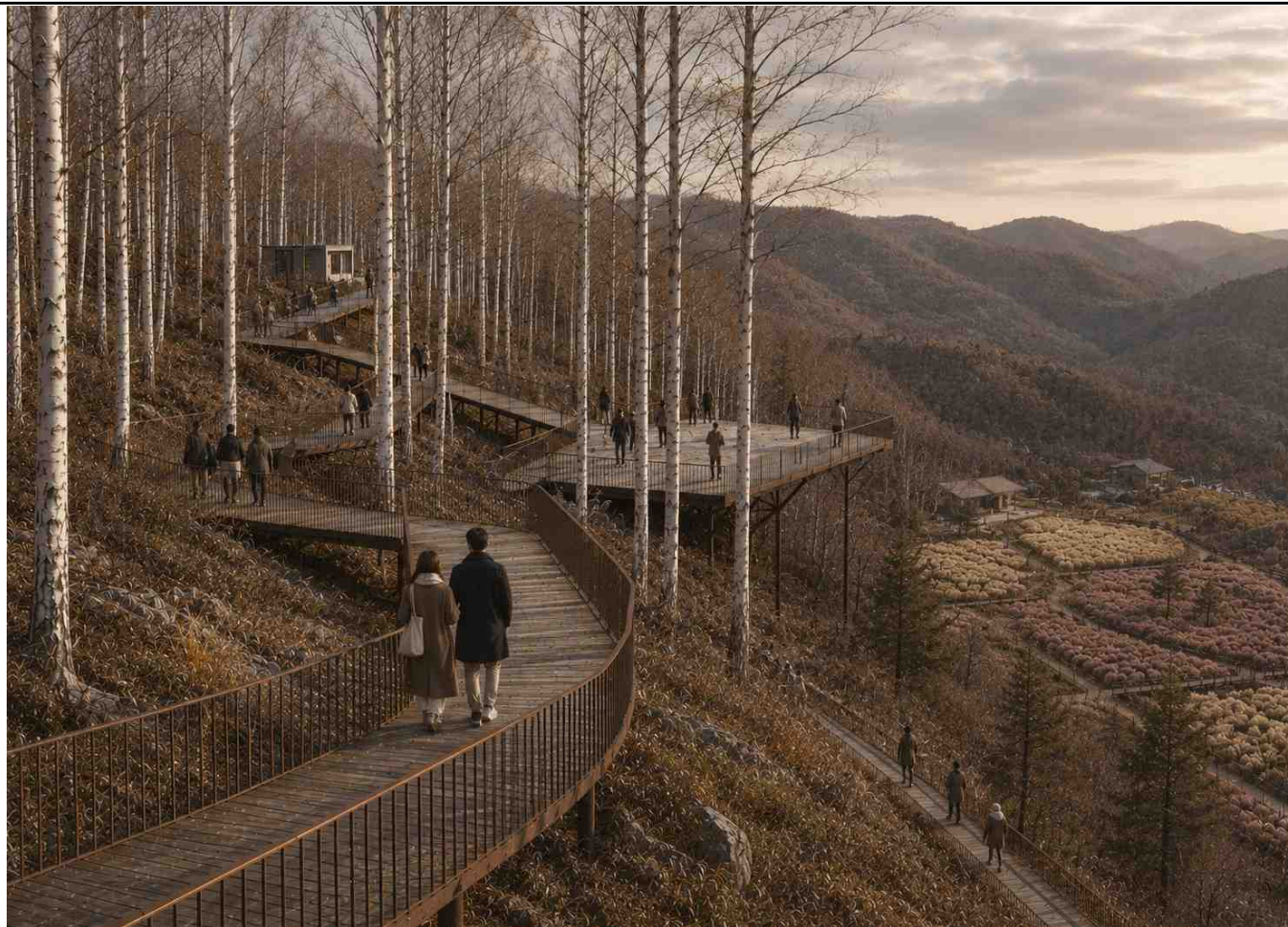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5 | 산림보전구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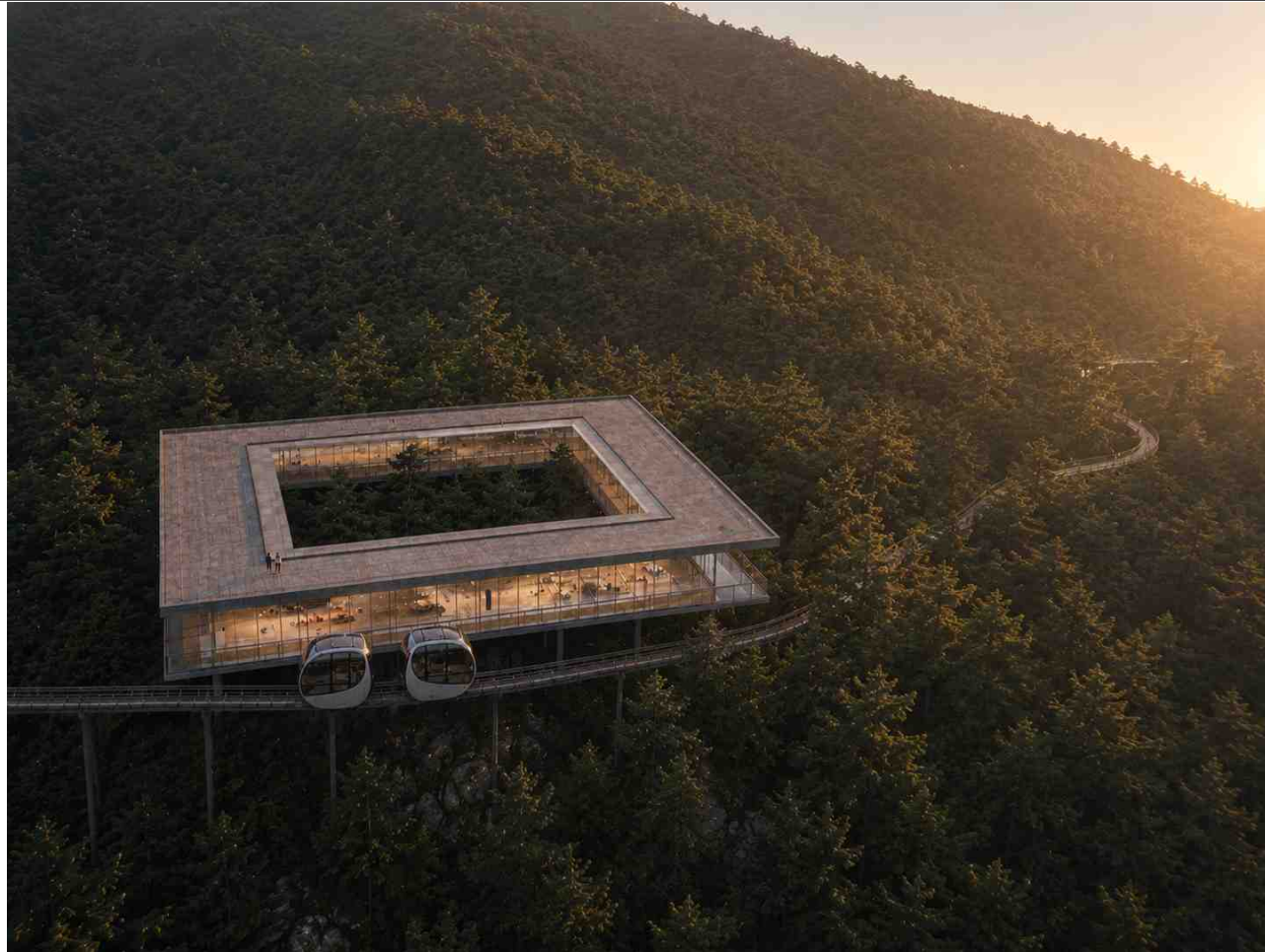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6 | 산림보전구역 (4)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7 | 산림보전구역 (5)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8 | 산림휴양구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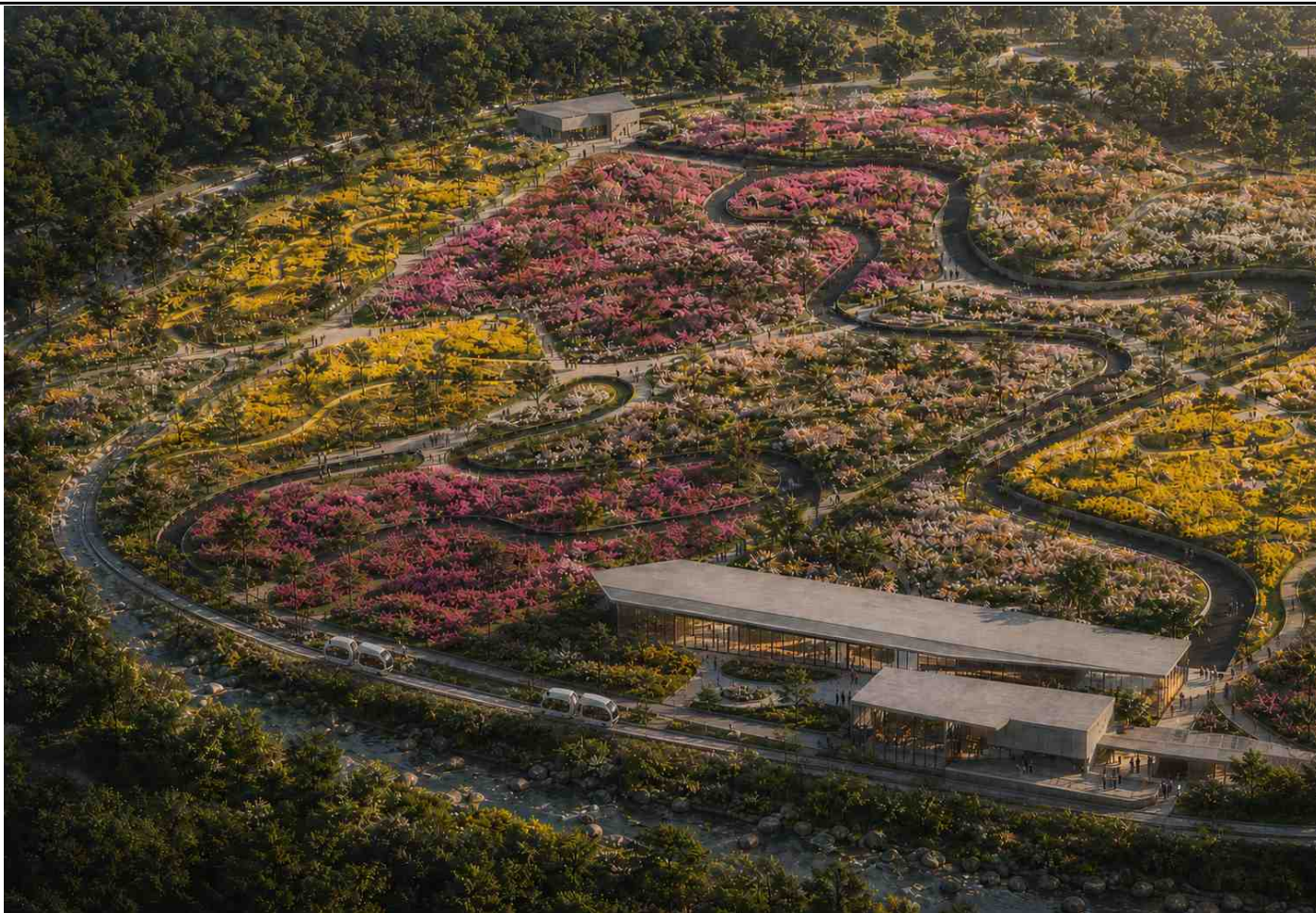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29 | 산림휴양구역 (2)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30 | 정원문화구역 (1)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31 | 정원문화구역 (2)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32 | 정원문화구역 (3)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33 | 정원문화구역 (4)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34 | 장사시설구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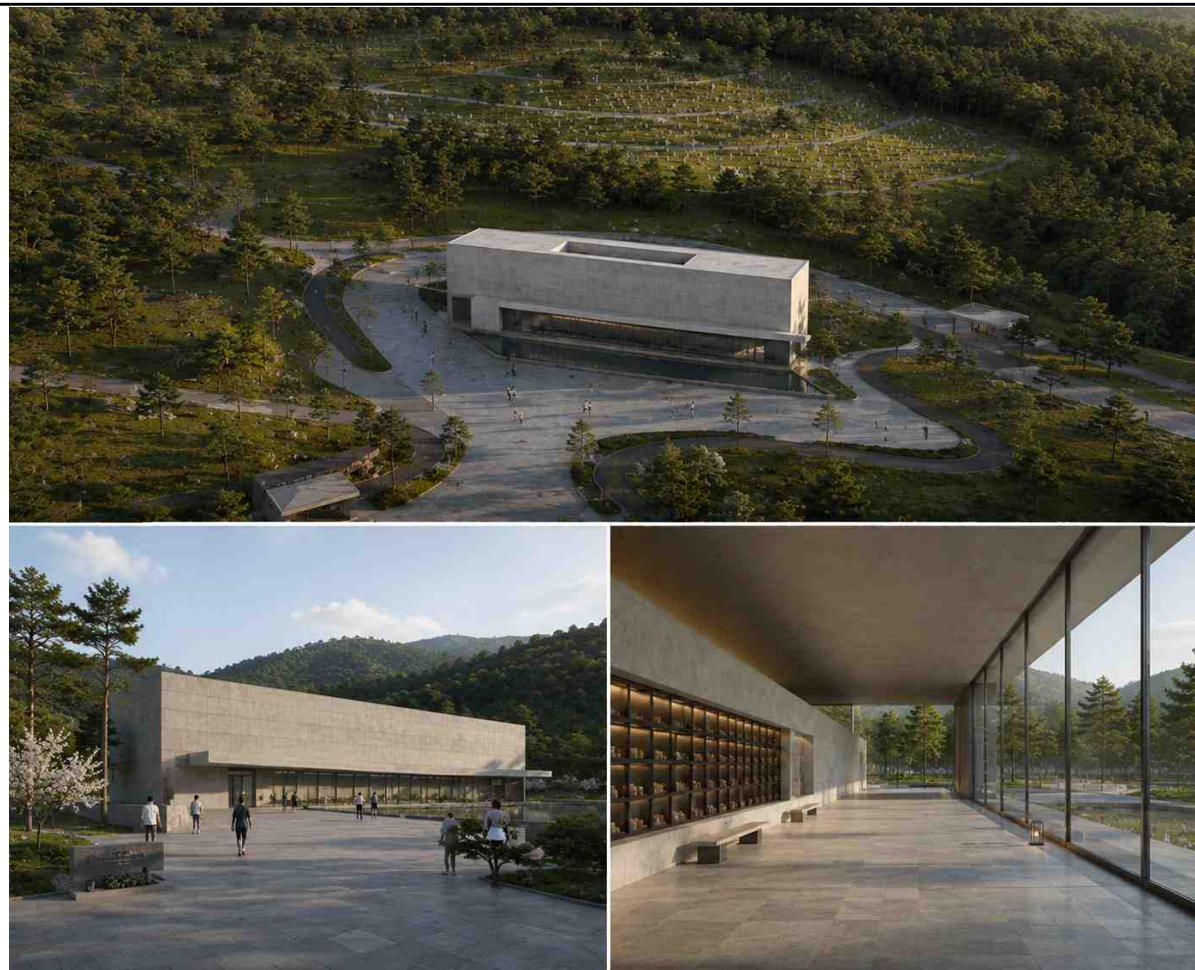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35 | 장사시설구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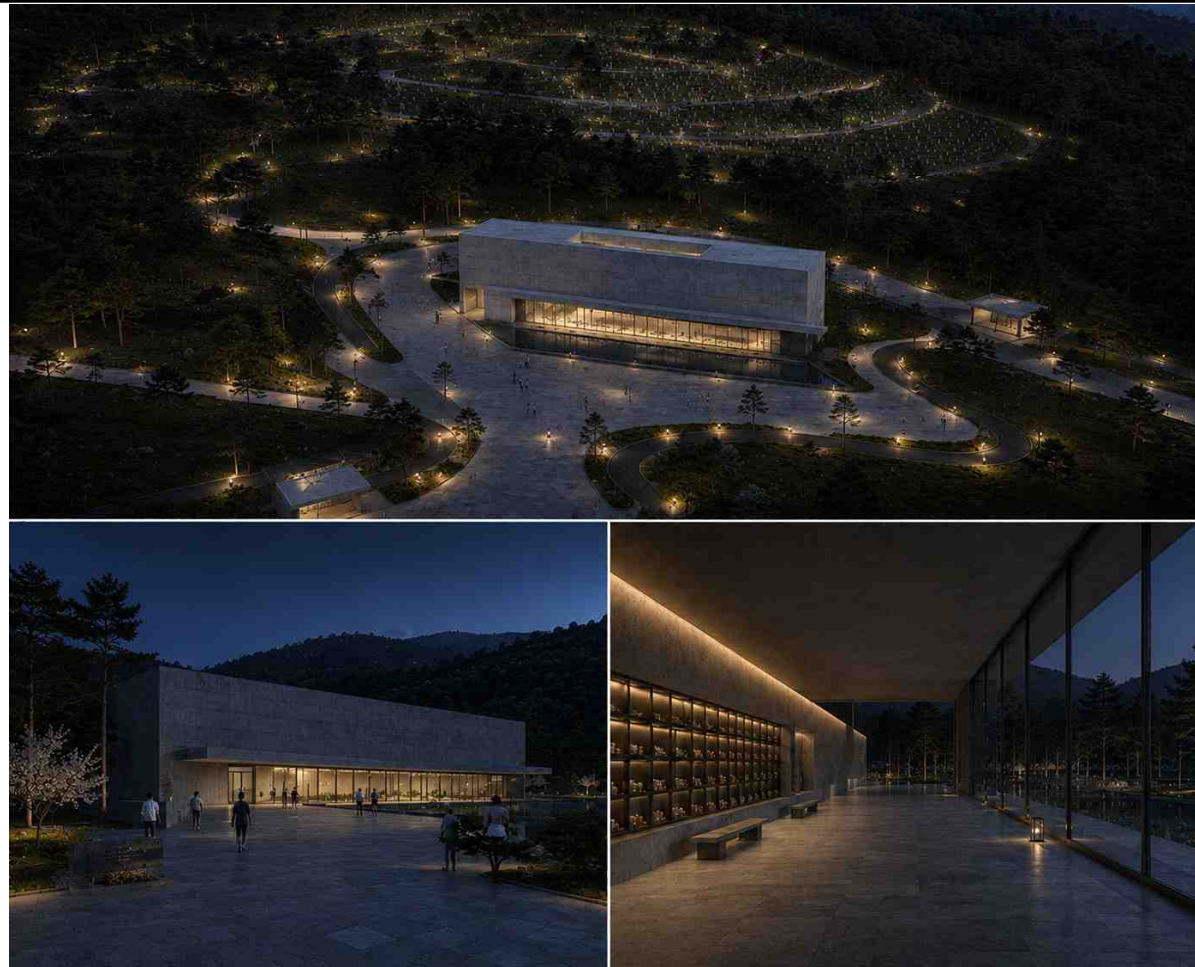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36 | 장사시설구역 (3)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37 | 장사시설구역 (4)



〈자료〉 연구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기도 (2023).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 고양시의회 (2020).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운영개선 정책방안 연구.
- 고양특례시 (2026).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표(고양시).
- 국토교통부 (2015).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 보건복지부 (2023).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장사(葬事)업무 안내.
- 산림청 (2025). 202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 세종시설공단 (2017). 2017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종합계획(안).
- 이수장 (2006). 장사시설과 관련된 갈등해결방안 연구: 홍성군과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3), 165-195.
- 인천광역시 (2026).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4·5단계)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과 (2025).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현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 202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계획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6). 2026년 지방자치단체별 화장장려금 조례-알기 쉬운 화장장려금.
- 함요상, 현승현 (2013).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3), 451-492.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605호, 1973. 3. 13., 일부개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7호, 2026. 3. 31.,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6158호, 2000. 1. 12., 전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9호, 2007. 5. 25., 전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37호, 2023. 2. 7., 일부개정)
-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755호, 2026. 2. 23., 일부개정)

-
-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750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147호, 2024. 12. 19., 일부개정)
-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59호, 2018. 12. 24., 일부개정)
-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73호, 2024. 4. 1., 제정)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경기도화성시조례 제2521호, 2025. 12. 3 1., 일부개정)

[해외문헌]

Hamburger Friedhöfe -AöR-, BUKEA (2018). Ohlsdorf 2050 – Präsentation des Parkmanagements und der baulichen Maßnahmen auf dem Ohlsdorfer Friedhof.

[관련기사]

- 경기도 뉴스포털 (2025.10.16).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제2호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등록.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8047
- 고양특례시 뉴스포털 (2021.12.27). 고양시, 관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지원금 지원. https://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90&q_estnColumn1=All&q_bbscttSn=20220902144836419
- 뉴스1 (2021.01.27). 순천시 설 명절 추모공원 봉안시설 '사전 예약제' 운영.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4193877>
- 매일일보 (2025.12.24). 화성도시공사,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완료...공공 장사서비스 안정성 강화.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630>
- 무등일보 (2016.05.25). 순천 야흥 화장장 마을, '햇빛마을'로 변모. <https://www.mdilbo.com/detail/GQFJv6/482509>
- 상조장례뉴스 (2024.02.29.). 발등에 불 떨어진 지자체들, 장사시설 건립 추진. <https://www.s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08>
- 양평TV (2024.12.17).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두물머리와 세미원 일원에서 개최. <https://www.xn--tv-ht7jv38b.kr/7772>

연합뉴스 (2008.11.25). '벽제=화장터?'···"벽제洞 이름 바꿔주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380291?sid=100>

연합뉴스 (2017.01.13).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연중무휴 운영. <https://www.yna.co.kr/view/AKR20170113174200063>

울산제일일보 (2013.07.30). “울리~삼동간 도로 조속 개설하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36>

인천투데이 (2025.05.26). 두려움에서 기억으로, 부평공동묘지.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29>

환경부-보도자료 (2013.05.31). 도심주변 훼손·방치 공간에 '자연마당' 조성한다. <https://www.mce.go.kr/home/web/board/read.do?menuld=&boardId=184706&boardMasterId=1>

Btv news (2025.02.10). 수도권 화장장 '포화'…원정 화장에 삼일장도 포기 <https://news.sk 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266>

kbs NEWS (2023.10.23). 전라남도, 전국 최대 규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https://news.ikbc.co.kr/%EC%A7%80%EC%97%AD/article/view/kbc202310230020>

MBC 뉴스 (1991.05.27). 벽제리묘지 오늘 만장공고. https://imnews.imbc.com/replay/1991/nwdesk/article/1848066_30445.html

MBC 뉴스 (1998.08.09). 폭우로 유실된 분묘찾는 사람들로 경기도 묘지 아수라장. https://imnews.imbc.com/replay/1998/nwdesk/article/1998039_30723.html

SBS NEWS (2012.03.12). 산고 끝 개장 서울추모공원 '넘비 몸살' 여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113176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국립기억의숲. <https://nfm.wbf.or.kr>

국립하늘숲추모원. <https://sky.fowi.or.kr>

국토환경성평가지도. <https://ecvam.neins.go.kr/main.do>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k4129/220929456097>
망우역사문화공원. <https://manguripark.or.kr/index.php>
무장애 경기관광도시. <https://www.ggtour.or.kr/bf/main>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List.jsp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
브이월드. www.vworld.kr
사유원. <https://sayuwon.com>
산림청. <https://north.forest.go.kr>
서울시 서초구의회. https://sdc.seoul.kr/main/minutes/html/MinutesView.do?MINTS_SN=3683
서울시 서초구청.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ldx=61&bcldx=321465>
서울시설공단.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park/introduce.jsp
서울시설공단.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ublicity/bbs/bbsMsgDetail.do?msg_seq=382&bcd=pub_picture
아침고요수목원. <https://www.morningcalm.co.kr>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https://access.visitkorea.or.kr/main/main.do>
월간가드닝. <https://www.gardening.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183>
은하수공원. <https://www.sjfmco.or.kr/eunhasu.do>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
제이드가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adegarden.kr/>
천리포수목원. <https://www.chollipo.org>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https://www.pyeongtaek.go.kr/forest/contents.do?mid=0202010000>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a13192fb-d288-4229-86c1-149e731c191c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lid=43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화개정원. <https://www.ganghwa.go.kr/hwagae/>

화담숲. <https://hwadamsup.com>

Archify. <https://www.archify.com/hk/photo/detail/169558>

Association of Significant Cemeteries in Europe. <https://www.significantcemeteries.org/2011/11/ohlsdorf-cemetery-hamburg-germany.html>

AWAJI YUMEBUTAI. <https://www.yumebutai.co.jp/>

bgmr Landschaftsarchitekten. <https://www.bgmr.de/de/projekte/ohlsdorf2050>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https://www.fehd.gov.hk/english/map/columbarium/cc_pt.html?mapID=1380&type=columbarium

FOREST LAWN. <https://forest-lawn.com>

Hamburg.de. <https://www.hamburg.de/tourismus/sehenswuerdigkeiten/friedhof-ohlsdorf-314168>

Hamburger Friedhöfe. <https://www.friedhof-hamburg.de/en/ohlsdorf-cemetery/service/>

Kawaguchi City Official Site. <https://www.city.kawaguchi.lg.jp/soshiki/01120/035/iinakawaguchi/34754.html>

KEY OPERATION INC./ARCHITECTS. <https://www.keyoperation.com/en/archives/projects/goshikidai-f-cemetery/>

OHLSDORF DER PARK. <https://www.ohlsdorf-derpark.de/der-park/>

Singapore Funeral Alliance. <https://www.singaporefuneralalliance.com.sg/post-funeral>

Singapore National Environment Agency. <https://www.nea.gov.sg/our-services/after-death>

Skogskyrkogården. <https://skogskyrkogarden.stockholm/en/>

ZENBOX CATALYST. <https://www.zenboxcatalyst.com.sg/singapore-burial-system/>

公益財団法人 エターナリカ. <https://www.eternalica.org/reien/goshiki/index.html>

五色台メモリアルパーク. https://www.ohnoya.co.jp/cemetery/search_other/640gsk/cemetery.shtml

川口市めぐりの森. www.kawaguchishi-megurinomori.jp

Abstract

Park-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funera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Byeokje-ri cemetery

Youngmee Jeon¹⁾, Jeongin Eum²⁾

Following rapid urbanization, funeral facilities such as cemeteries, crematoriums, and columbariums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urban fabric. Consequently, they have faced negative evaluations as urban incompatible facilities due to concerns regarding environment, sanitation, and health; grievances over traffic congestion and noise; anxieties over depreciating real estate values and damaged regional images; perceptions of spatial injustice; and emotional or psychological aversion. Recently, however, alongside changes in funeral practices from burial to cremation and evolving public perceptions of funeral culture, a transition toward sustainable, eco-friendly funeral facilities has been pursued. As a result, funeral facilities are being reinterpreted not as objects of public NIMBYism, but as essential urban infrastructure or public spaces for local community welfare.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is shifting paradigm in funeral culture, local governments are spearheading efforts to modernize, multifunctionalize, and parkify existing funeral facilities, thereby transforming them into green and leisure spaces accessible to both bereaved families and ordinary citizens in their daily lives.

The Byeokje-ri Cemetery, occupying approximately 137.5 hectares in

1) Associate Research Fellow, Goyang City Institute

2) Assistant Researcher, Goyang City Institute

Byeokje-dong, Deogyang-gu, Goyang City, is a Seoul municipal funeral facility established in 1963. It was created wh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urchased lan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t the time to address the saturation of public cemeteries caused by urban expans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The Byeokje-ri Cemetery reached full capacity in May 1991. Subsequently, new burials were completely suspended in August 1998, driven by the destruction and loss of graves from torrential rains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as well as Seoul's policy promoting cremation. Currently, the cemetery focuses on managing existing graves, organizing unentitled graves, and executing exhumation and relocation tasks. Given that the Byeokje-ri Cemetery consists of naturally formed burial grounds where a substantial number of graves have lacked active maintenance since reaching capacity, the necessity to convert the site into a park has intensified to respond to changing funeral paradigm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urban space utilization. Meanwhile, despite being owned and oper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Byeokje-ri Cemetery is located within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Goyang City. Hence, Goyang City is increasingly called upon to serve as a vital stakeholder to ensure desirable and rational decision-making during the future modernization and parkification of the cemeter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converting funeral facilities into park-based multifunctional spaces, analyze adequate and suitable case studies of parkification, and propose strategic directions and spatial plans for the park-oriented development of the Byeokje-ri Cemetery.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ransforming funeral

facilities into parks by reviewing relevant laws, regulations, policies,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and identifying key issues surrounding funeral facilities. Next, the study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me examples, categorizing them into park-type funeral facilities and natural healing/cultural spaces. Furthermore, it investigates not only community support cases for areas surrounding funeral facilities but also subsidy projects associated with parkification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ollowing this, the study diagnoses the general status, spatial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attributes of the subject site, the Byeokje-ri Cemetery. Finally, it presents fundamental directions and spatial plans as strategies for the parkification of the Byeokje-ri Cemetery.

Through this research, the following key directions are suggested for the parkification of the Byeokje-ri Cemetery:

① Phased Implementation of the Parkification Project

- Formulating step-by-step development plans for the parkification project.

② Spatial and Functional Transition into a Multifunctional Healing and Cultural Space

- Presenting a pioneering model that integrates spaces related to memorialization, healing, culture, and leisure.
- Improving the spatial environment of surrounding areas and expanding connectivity.

③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 Setting up 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evant municipi-

palities and institutions.

- Activating civic participation governance.

④ Preemptiv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Systems

- Preparing a support framework for the multifunctionalization and parkification of deteriorated funeral facilities.
- Proposing a sustainable, future-oriented model for funeral facilities.

정책 26-06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전략: 벽제리묘지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26년 06월 30일

저 자 전영미, 음정인

발 행 인 김현호

발 행 처 고양연구원

주 소 104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존 9층

전 화 031-8073-8341

홈 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24069-22-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KoPubWorld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장사시설의 공원화 조성 전략: 벽제리묘지를 중심으로

Park-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funeral facilities: Focusing on the Byeokje-ri cemetery